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10.12.(금) 10:00
울산박물관 2층 대강당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행사안내

■ 일시_ 2018.10.12.(금)10:00 ■ 장소_ 울산박물관 2층 대강당

진행 : 신형석(울산대곡박물관장)

개 회 10:00 ~ 10:15 • 행사 안내
10:15 ~ 10:30 • 개회사
• 환영사

조진선(한국청동기학회장)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기조강연 10:30 ~ 11:00 • 울산의 청동기시대문화와 그 역할

안재호(동국대학교)

사회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제1발표 11:00 ~ 11:30 •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중심취락

발표 : 정대봉(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제2발표 11:30 ~ 12:00 •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토기의 변화상과 그 의미

발표 : 김현식(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배진성(부산대학교)

중 식 12:00 ~ 13:30

제3발표 13:30 ~ 14:00 •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

발표 : 배군열(성림문화재연구원)
토론 : 유병록(세종문화재연구원)

제4발표 14:00 ~ 14:30 •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

발표 : 윤호필(동양문물연구원)
토론 : 황창한(울산문화재연구원)

제5발표 14:30 ~ 15:00 •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양상

발표 :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이창희(부산대학교)

휴 식 15:00 ~ 15:20

종합토론 15:20 ~ 17:30 • 토론좌장: 안재호(동국대학교),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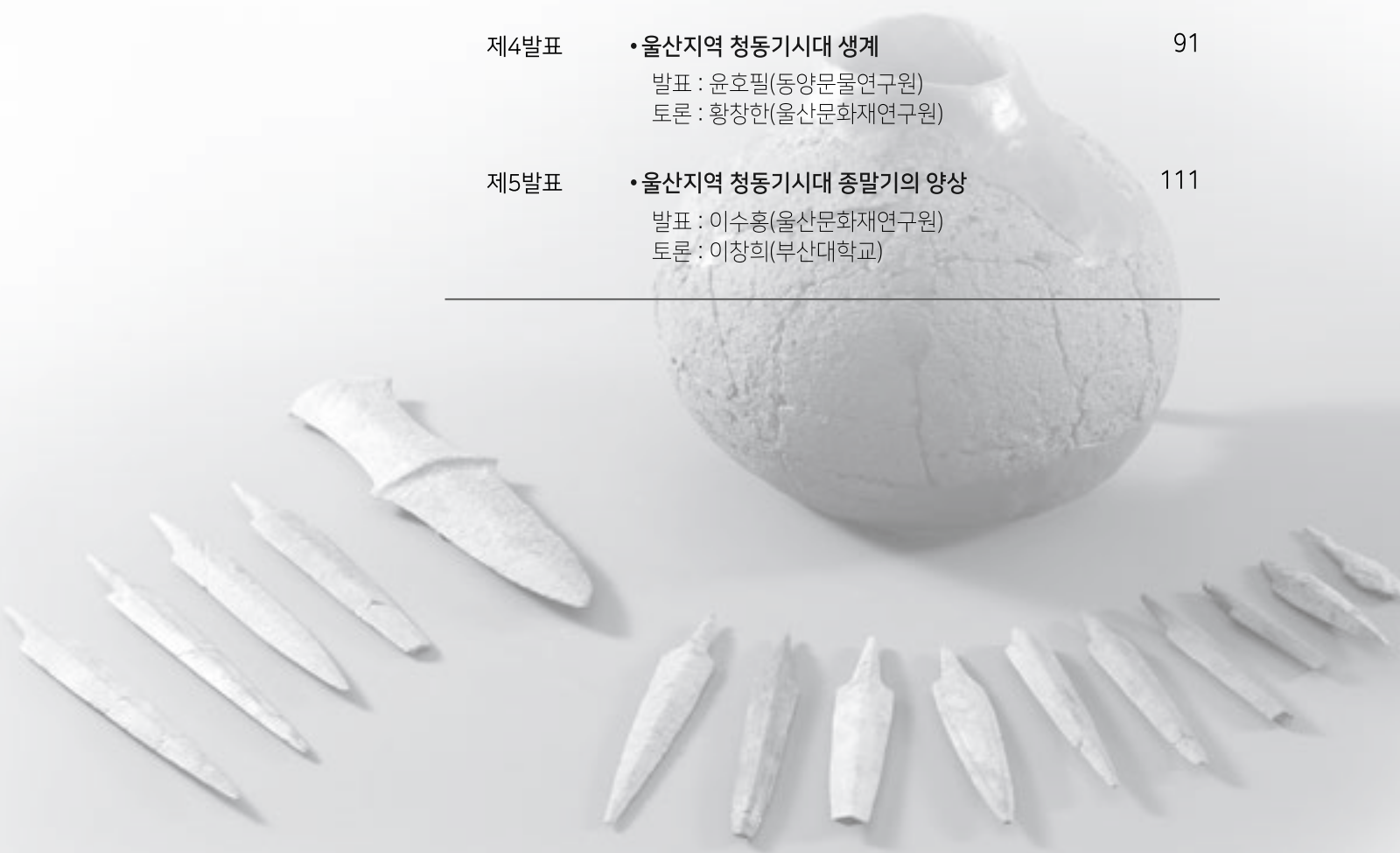
총 회 17:40 ~ 18:0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contents

기조강연	• 울산의 청동기시대문화와 그 역할 안재호(동국대학교)	07
제1발표	•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중심취락 발표 : 정대봉(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21
제2발표	•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토기의 변화상과 그 의미 발표 : 김현식(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배진성(부산대학교)	51
제3발표	•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 발표 : 배군열(성림문화재연구원) 토론 : 유병록(세종문화재연구원)	69
제4발표	•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 발표 : 윤호필(동양문물연구원) 토론 : 황창한(울산문화재연구원)	91
제5발표	•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양상 발표 :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이창희(부산대학교)	111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기조강연

울산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그 역할

안재호(동국대학교)





울산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그 역할

안재호(동국대학교)

I. 청동기시대 남한의 지역문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초기에는 중국 동북지역으로부터 田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농경문화가 시작되었으며, 후기에는 중국 산둥반도로 부터 水田경작이 전파되어 농경사회를 형성한 시기이다. 특히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대규모취락이 형성되면서 각 지역에서 수장이 등장하여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크게는 3개의 문화권역을 만들었는데, 한강유역의 천전리문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송국리문화 그리고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해안권에는 검단리문화가 그것이다.

검단리문화는 천전리문화와 관계가 깊고, 송국리문화와는 다소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검단리문화가 청동기시대 전기문화를 계승한 것이라면, 송국리문화는 중국의 서주 문명의 영향으로 신농법인 수전농경을 수용하여 농경사회화 한 까닭이다. 따라서 천전리문화와 함께 검단리문화는 전기의 수렵채집문화가 가미된 농경문화의 성향이다.

한편 낙동강유역의 사행천으로 충적지가 발달한 영남내륙지역은 전기문화와 송국리문화가 절충된 반면 영남의 남해안지역권은 송국리문화와 영남내륙문화 그리고 검단리문화가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 남한 각 지역 후기문화의 색채

수도작, 농경	전작, 수렵채집
송국리문화(후기)	전기문화계통
호서권—호남권—반송리문화권—남강유역권—영남내륙권—검단리문화권—천전리문화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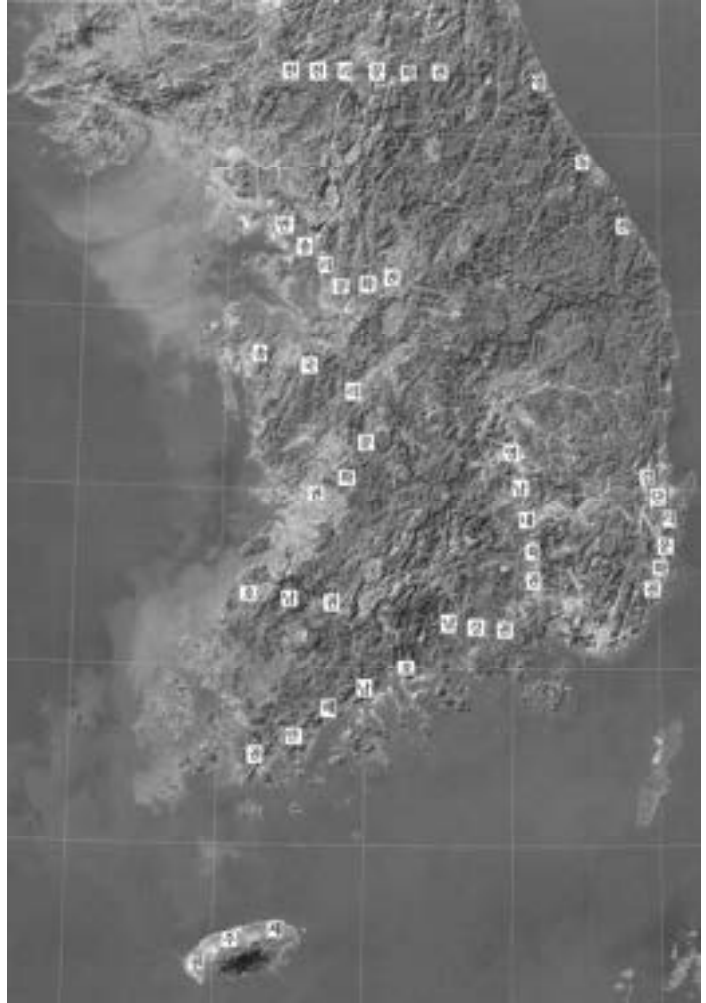
남한지역의 이러한 문화는 토착문화를 기반으로 중국 산둥반도와 요동반도 그리고 요동산지 외에도 길림지역과 연해주의 문화도 혼재한다.

II. 울산의 청동기시대 문화

울산은 동해안을 끼고 있어서 선사시대에서 연해주와 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 발원한 수렵어로채집문화라고 하는 환동해문화권의 성향(강인욱 2009:436-437)도 존재하지만, 포항 이북지역과는 달리 태백산맥에 의해 동서가 단절된 지역이 아니라 태화강과 동천강, 회야강 등의 하천이 발달하여 다소 넓은 평지를 형성하며, 기후도 온화할 뿐만 아니라 해안권적 문화만이 아니라 내륙적인 환경도 겸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강원도에서 유입된 문화가 울산지역에서 변성하고 대규모취락이 형성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술할 어로활동에서 연어잡이의 남한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수렵, 어로, 채집 집단들이 군집하게 된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울산의 청동기시대문화의 특질은 지형과 환경이 유사한 경주와 포항까지 북으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양산의 북부에 한정되고 이 지역을 묶어서 동남해안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동남해안권의 문화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경주를 통하여 대구와도 연결되어 있고, 전기에는 남해안을 따라 진주까지도 문화가 도달하고 있다. 가장 변성했던 때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고, 전기에는 취락의 수도 그 인구수도 적었지만, 후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마을들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울산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 남한지역의 지역문화권

III. 검단리문화의 특질

검단리문화(배진성 2005; 李秀鴻 2005)의 성격은 송국리문화와의 대비를 통하여 잘 나타난다. 구고(安在皓·金賢敬 2015)에서 검단리문화를 중심으로 한 수렵채집문화의 요소로서 돼지형의기(부리형석기)·동북형석도·함정·주구식구·획묘·환호를 제시한 바 있었다. 본고에서는 수렵채집문화만이 아니라 검단리문화의 요소도 추가하면, 파수부심발·장식(2단병식)석검·구형 혹은 원통형의 어망추 등의 유물과 가옥장·연암동형주거지·구획식주구·대형노지·소형석관묘 등의 유구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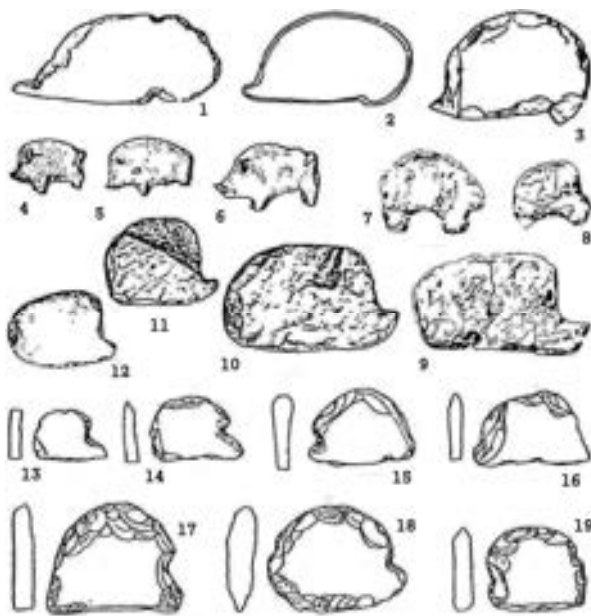
1. 수렵채집용의 유물·유구

수렵채집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물은 멧돼지형의기, 동북형석도, 어망추 등이다.

1) 멧돼지형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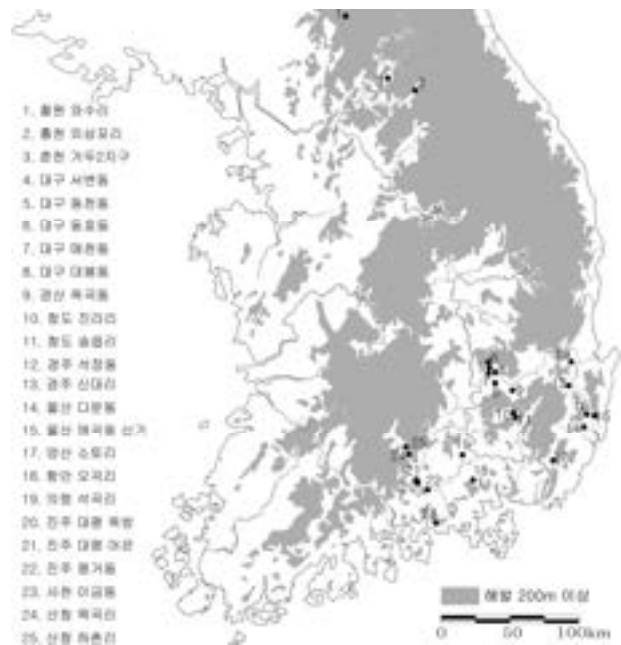
멧돼지형의기(부리형석기)는 석제품으로서도 중국의 산둥 용산문화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렵채집문화의 요소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청동기시대에는 두만강유역권에서 주로 출토되고 이것이 영서지역을 통과하여 영남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초에는 중국 산둥지역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농경문화의 의례관련 유물이었으나 청동기시대 중국 북방으로 전파되면서는 오히려 사실적인 돼지형의 소조품으로 제작되면서 수렵채집문화의 요소로 변천해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뒤 주로 산지 루트를 통하여 남쪽으로 전파되면서 형식화하여 다시 석제품으로 퇴화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파된 농경문화로서, 일본의 초기 야요이 농경관련 유적에서 멧돼지의 하악골을 현수한 농경의례의 사례(春成秀爾 1990:86-89)가 있다. 이를 통하여 유추하면 돼지형의기라는 것은 단순한 수렵채집문화라기 보다는 농경문화의 소산으로서 한반도에서는 수렵채집문화가 짙게 잔존한 지역에서 사냥풍습과 관련하여 그 멧돼지 제사 의례가 잔존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멧돼지형 토제품·석제품

1~3 : 산둥 용산문화, 4~6 : 앵가령 상층, 7~9 : 무산 호곡,
10~12 : 회령 오동, 13·14·19 :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15~16 : 산청 묵곡리, 17·18 :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그림 3] 멧돼지형의기 분포도

2) 동북형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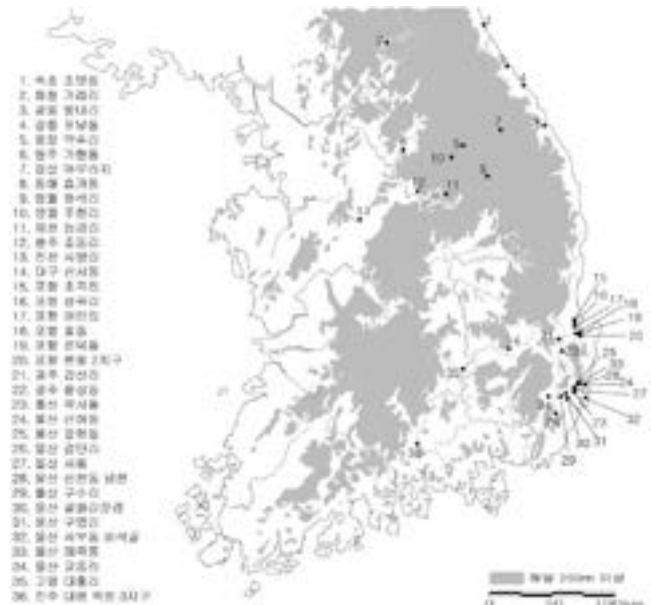
동북형석도는 연해주지역(데.엘.브로단스키 · 鄭燾培譯 1996)을 포함하여 환동해권에 분포하며, 일본 죠몬시대 동북지방에서 출토하는 청룡도형석기도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연어·송어 잡이의 도구(戶澤充則 編 1994:110)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는 울산이 남한계선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5). 환동해안권의 이러한 동북형석도의 분포는 회귀성어류인 연어의 회귀지역과 거의 일치하며, 침엽수림대와 연어 회귀지역과의 관계가 깊다(佐木高明 1991:215).

이 석도는 연어나 송어를 잡아 다듬는 일종의 칼이지만 동물의 가죽이나 살을 자르는 데에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 석도는 영동지역에서도 출토되고 있으므로 아마도 연해주에서 동해안과 또는 산지를 따라 남으로 전파된 것을 <그림 5>에서 추정할 수 있고, 이런 양상은 앞서 멧돼지형의기와는 전파경로의 차이를 보인다. 출토수량은 울산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4] 동북형석도

1·14 원주, 2 대구, 3·9 경주, 4 울산 구영리 10호주, 5 서부동 비석골 23호주, 7 서동 E-27호주, 10 산하동 B-36호주, 6 고령, 8 경선, 11 동해, 12·13 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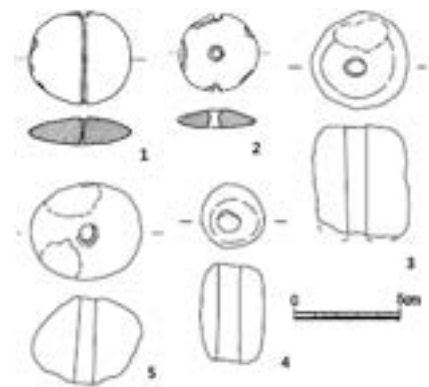


[그림 5] 동북형석도의 분포도

3) 원통형어망추

어망추는 통상 방형, 원반형(그림 6-1·2), 구형(그림 6-5), 원통형(그림 6-3·4)으로 시기에 따라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원통형이 가장 무거운 형태이다. 원통형과 동시기에는 구형과 원반형이 있지만 구형과 원통형은 그 무게가 30~160g에 이르고 10g이내의 원판상 어망추에 비하면 압도적인 중량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형어류를 잡기위한 그물추임이 분명하고, 하천이나 내천에서 사용한 어로구로서 전술한 연어나 송어 잡이용 그물의 추일 것이라고 추정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울산의 방추차

1~2 : 검단리 31호 주거지
3~5 : 장현동 53호 주거지

이러한 중량의 그물추가 출토되는 유적의 입지가 하천의 어느 유역에 집중하는지에 대한 분포조사가 필요하다. 연어의 산란 장소는 주로 강 상류이므로 상류에서의 포획은 자원보존을 위해서 금기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지류와 본류의 상류역보다는 중·하류역의 취락에서 주된 분포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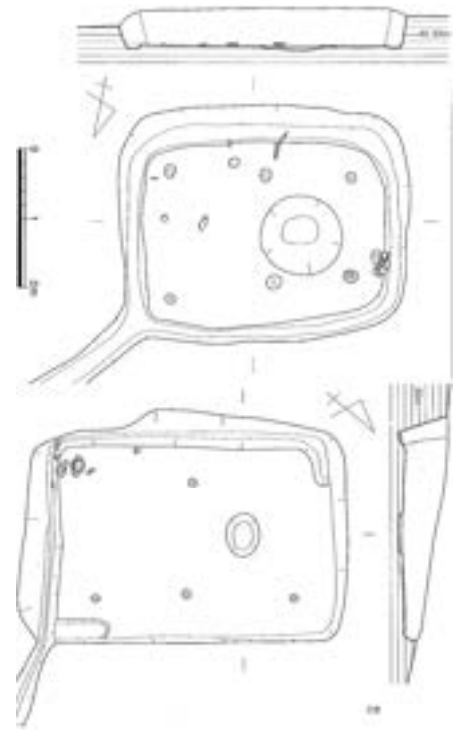
4) 대형노지

대형노지는 직경이 1m이상 되는 규모의 토광식노지로서 일반적인 노지가 50cm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큰 편이다. 대형노지의 분포가 수렵어로문화권과 일치할지는 알 수 없으나, 검단리문화권에서는 종종 발견된다. 대형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는 오히려 중·소형이 많고, 취락단위 당 그 수도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대형노지의 용도는 상위계층의 생활과는 무관하고 또 일반가옥의 일상적인 생활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일시에 대량으로 잡은 연어와 송어는 겨울철 식료에 대비하여 염장 훈연 건조 냉동하여 보관된다. 대형노지는 훈연시설이 아닐까 추정한다.

5) 함정

함정유구는 단면이 Y자상의 장방형 수혈로서 취락이나 경작지의 외곽이나 또는 물가에 설치된 예가 많다. 멧돼지나 사슴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한 시설로서 토광에 몸이 끼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목창을 바닥에 꽂아 잡기도 한다. 주로 열상으로 구획하듯 배치된다. 시간적으로는 청동기시대 말을 전후한 시점에 많다.



[그림 7] 2종의 노지

천곡동 가재골Ⅲ유적
상 : 3호 주거지, 하 : 16호주거지



[그림 8] 함정의 분포

2. 수렵채집문화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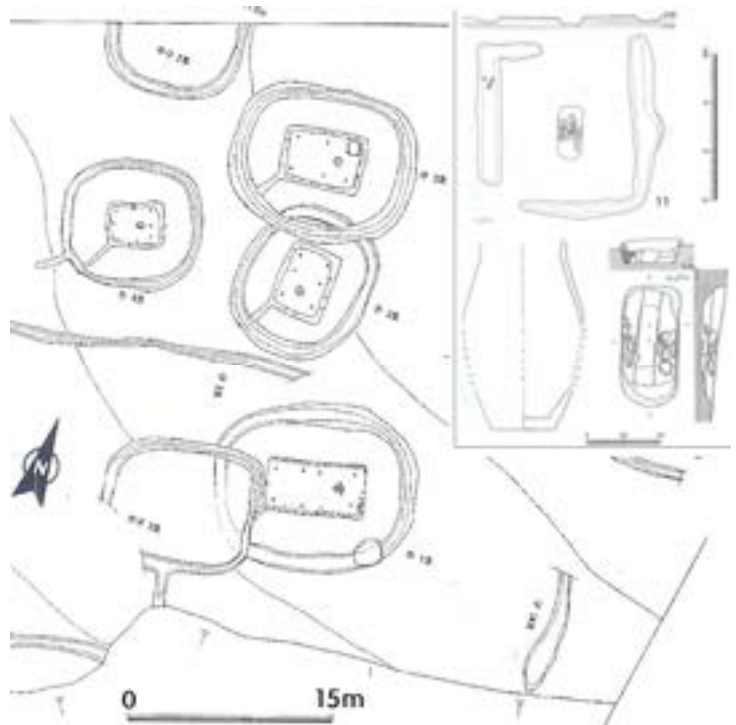
송국리문화가 분포하는 지역과 비교하면 검단리문화에서만 찾을 수 있는 요소로서 가옥묘, 주구식구획묘, 소형석관묘 등이 있다.

1) 가옥묘

주거지에서 매장한 인골이 출토된 예는 포항 호동유적과 경주 천군동유적이 있다. 불난 주거지에서 성인 인골 2구가 출토되었는데, 주거지는 중형주거지에 해당한다.

가옥묘는 환동해권에서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된다(유병록 2010) 그리고 현재도 어로가 성한 일본의 오키나와지역에는 집모양의 남골당을 가옥묘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목축이 주생계인 내몽고지역에서도 무덤은 가옥형을 띤다. 이것은 선사시대의 수렵채집사회에는 가옥을 무덤으로 사용한 증거의 흔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농경사회와는 달리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주거역과 묘역이 분리되지 않고 혼재하는 이유도 이 가옥장의 전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연암동형주거지가 많이 분포하는 반면에 이 당시 무덤의 발견 예는 매우 드물다. 연암동형주거지는 주거가 폐기되고 난 뒤에 무덤으로 재사용하면서 그 묘역으로서 원형 또는 방형의 주구를 돌린 것이다. 이것은 후술할 주구식구획묘의 이미지와도 같은 것이다(安在皓 2013).



[그림 9] 연암동주거지와 주구식구획묘

좌 : 울산 연암동유적, 우상 : 동천동유적 24호묘

2) 주구식구획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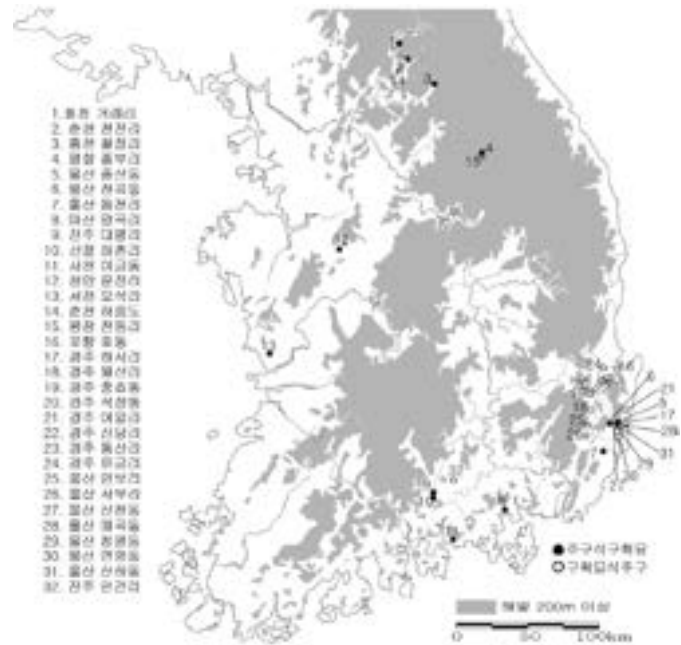
주구식구획묘의 분포는 영서의 산지에서 차령산맥과 태백산맥의 산지를 따라 이어지고 다시 남해안을 따라 나타나고 있다. 춘천 천전리유적에서 초대형의 주구식구획묘가 기획성있게 밀집 배치된 것은 누세대에 걸쳐 규범에 따라 조상묘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군장사회와 같은 상당한 사회발전을 이룬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주구식구획묘의 수와 규모 그리고 분포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한반도 최고의 취락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구식구획묘는 개인묘역을 주구로써 구획하고 그 내부를 성토하여 묘를 조성한 것인데, 구획묘의 대부분이 석축 혹은 석렬로써 구획하는 소위 묘역식지석묘와는 다른 점이다. 묘역식지석묘가 주로 농경이 우세한 지역이라면 주구식구획묘는 수렵채집이 우세한 지역이다.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산신제의 규범에는 산을 훼손하지 못하는 금기가 있듯이, 수렵채집민에게 있어서 산은 식료를 얻을 수 있는 텃밭과 같은 존재에 해당하므로 무덤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굴을 금함으로써 산을 보호하려고 한 의도가 잠재한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축적지의 농경을 중시하는 묘역식지석묘집단들은 그들의 선조와 수장의 무덤을 조성함에 산을 허물어 석재를 캐는 행위가 용인되었을 것이다. 주구식구획묘나 묘역식지

석묘로 조영된 대형묘는 청동기시대 후기 수장사회의 상징물일 것이다(安在皓 2012).

검단리문화권에서 특히 울산지역에서 주구식구획묘의 구조에 매장주체부가 보이지 않고 방형상으로 주구만 나타난 예가 많다. 이것은 굳이 울산만의 현상이 아니라, 진천리문화권인 북한강유역에서도 존재한다. 즉 이것은 주구식구획묘에서 매장주체부가 묘역내의 성토과정에서 지상에 설치되었던 까닭에 후세에 삭평 유실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구는 취락의 중앙광장에서도 나타나고 기존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되기도 한다(李秀鴻 2010).

주구식구획묘와 연암동형주거지 즉 가옥묘와의 관계는 위계관계로 보고자 한다. 입지에서 주구식구획묘는 취락의 중앙부에 주로 조영되는 반면에, 가옥묘는 규모가 중형급 주거지로서 주변부에 혹은 일반 주거와 혼재한다는 점에서 고려하면 주구식구획묘가 상위계층의 피장자묘이고 가옥묘는 중위계층의 묘일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安재호 2013).



[그림 10] 주구식구획묘의 분포

3) 소형석관

석관은 내부 한 변이 0.5m 전후 한 작은 규모로서 정방형을 띤다. 이 석관은 신전장을 할 수 없는 크기이므로, 유아용 혹은 이차장 등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최근 화장장이 아닌가 라는 의견(黃昌漢 2010)이 유력하다. 그것은 경주 덕천리 1호 석관묘에서처럼 내부에서 탄화된 뼈가 출토되기도 하고 석관 자체가 불에 굽힌 흔적이 발견된 까닭이다. 최초의 사례는 춘천 중도유적의 석관묘에서 탄화된 뼈가 발견된 것이었다. 따라서 영서지역에서 울산으로 전파된 여러 요소와 마찬가지로 화장묘로서 소형석관이 분포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애초에 유아묘라고 보았던 것은 단순히 소형이기 때문에 추정한 것이었는데, 정상적인 무덤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검단리문화권에서 소아묘의 분포가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소아묘의 존재는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송국리문화권의 웅관묘처럼 귀속적 신분이 인정되는 계층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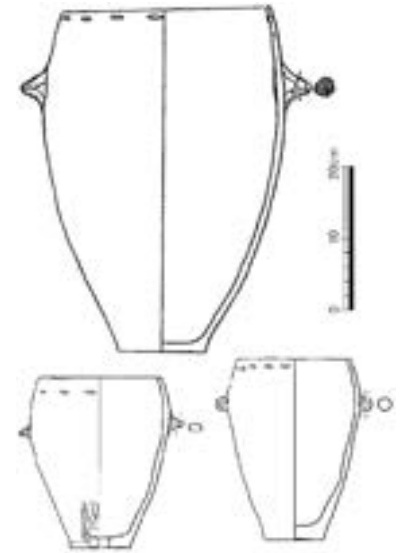
화장묘는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대석개묘가 유행하는 석관묘에서도 확인되는 장법으로서 구획묘와 관련하여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에서는 석장동유적에서 화장묘가 구획묘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전촌리유적과 도계리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8)의 경우에는 석곽식구획묘의 내부 공간에서 화장한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 도계리유적은 무덤의 형태는 묘표식지석묘를 띠고 있으나, 중앙의 주피장자를 안치한 부석식구획묘에 연결하여 많은 석곽식구획묘가 설치되었는데 그 내부의 얇은 토광속에서 화장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대구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송국리문화의 부석식구획묘 즉 묘역식지석묘와 화장풍습의 검단리문화가 절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동남해안권의 요소

동남해안권에서 주로 후기에 찾을 수 있는 특질은 파수부심발, 장식석검, 환호와 더불어 무문토기의 문양이나 적색마연직립경호 등이 지역색을 띤다.

1) 파수부심발

심발형무문토기에 꼭지가 한 쌍 부착된 것인데, 그 기원은 돌대문토기의 퇴화형인지(삼한문화재연구원 2018:118) 한반도 동북지역의 토기 영향인지 알 수 없다. 이 시기에는 심발의 구연부가 내경하여 심발은 옹형을 띠게 되는데, 전기의 심발-호의 기종구성에서 옹-호의 새로운 기종구성의 출현과 상관을 가지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토기는 시기적으로 북방으로부터 새로운 점토대토기문화가 전파되는 시점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검단리식토기 중에서도 비교적 늦은 단계의 토기로서 문양은 주로 날알문이 시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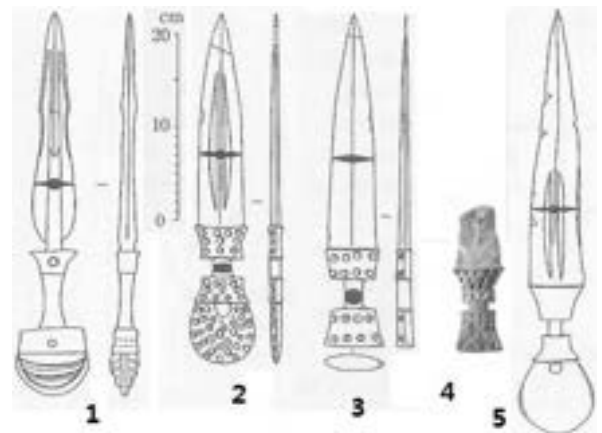
[그림 11] 울산의 파수부심발
상 : 검단리유적, 하 : 입암리유적

2) 장식석검

장식석검은 전기의 지표가 되는 이단병식석검의 손잡이 한쪽 면에 작고 둥근 홈을 열지여 장식하거나, 손잡이 끝에 반원상의 검파두식을 만든 형식의 석검을 말한다. 후자의 검파두식장식석검은 중국 요서지역의 청동검을 모방하였다고 하여 석검의 기원을 “비파형동검 모방설”(近藤喬一 2000)의 근거로 삼기도 한 것이며 그 시기 또한 기원전 9세기 이후라는 설을 야기시킨 석검이었다. 그러나 석검은 탄소14연대에 의거하면 기원전 12세기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요서나 요동지역에서는 유병식석검이 출토되지 않고 그 분포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된 유물이기도 한다.

한반도에서 기원전 12세기 초 즉 전기 초에 제작되어 후기에 일본열도로 전파된 마제석검은 한반도 기원이 분명하다. 이것이 무기형석검으로서 이 이전의 중국북방이나 연해주 등의 무기에서 발전된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전기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취락간의 사회화가 일어나면서 階序 혹은 계층이 발생하면서 특징인을 위해 제작된 것임은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장식석검은 디자인상으로는 분명한 요서의 소흑석구유적의 동검과 유사성이 높다. 이 장식석검이 기존의 석검과는 계통을 달리하지는 않지만, 파생한 것으로서 비파형동검의 검파두식을 모방하여 반원상의 검파두식을 부착한 형태의 이단병식석검을 창안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석검은 기존의 전기석검에서 원상홈으로써 장식을 가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싶다(배진성 2007; 황창한 2008; 안재호 2014; 송영진 2017).

이 장식석검은 편측에만 구멍장식이 있기 때문에 몸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이고 무기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식석검은 소지자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위세품으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에서 그 당시 한반도에서는 청동검 제작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과 중국요령지역과의 새로운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비단 장식석검만의 출토만이 아니라 이 시점에 동반 출현하는 중국 북방계라고 할 수 있는 구획묘(적석총), 화장묘, 가지문토기 등이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림 12] 청동검과 장식석검

1 : 중국 요서 소흑석구유적, 2·3 : 창원 평성리
4 : 울산 장현동유적, 5 : 울산 동부리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 당시 청동기시대 사회는 기존의 지석묘에서 새로운 묘제인 구획묘를 수장묘로서 채택하여 신분사회로 발전하고자 기도하였을 것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수장의 상징으로서 장식석검을 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3) 적색마연직립경호

수장의 등장과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지역색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수장을 중심으로 지역권역이 결집되고 지역정체성을 갖추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 특히 남한의 청동기시대 지역수장은 경제력이나 무력 또는 정치력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 즉 정신적 혹은 사상적으로 통합하려 하였다. 그 중요한 수단이 시조신 또는 조상신을 모시는 것이었다. 이 적색마연호는 의례용기로서 혹은 부장용기로서 제작되었다.

검단리문화권에서의 적색마연호는 목이 직립하는 것이 특징인데, 목은 점차 길어지는 경향을 띤다.



[그림 13] 적색마연호
중앙 : 울산 검단리, 좌우 : 함안계, 전 : 남강계

4) 환호

한반도에서 1990년 검단리유적에서 최초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환호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거점취락의 중요한 시설물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를 검토하면 대체로 짧은 시간에 조영되었다가 폐기해버린 것으로 확인되어 한반도 남한 고유의 기능과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환호는 내부의 시설물이나 환호의 多重性 또는 규모에 따라서 성격과 시간성을 나누어져 왔다. 먼저 내부에 다수의 주거지가 있는 것과 단 1기나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취락의 경계 혹은 방어적 기능의 環濠, 후자를 제의적인 기능의 環溝로 분류한다. 환호는 규모가 큰 반면 환구는 소규모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에는 환호의 구가 한 겹이지만, 점토대토기시기의 것은 대체로 多重인 것이 많다. 그래서 환호의 경우라도 다중인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일 수가 많고, 다중의 환구도 점토대토기문화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 후기의 환호 분포를 보면 앞서 수렵채집문화의 분포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환호는 일본 야요이사회처럼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아마도 산지를 통하여 남하한 수렵채집문화의 소산이든지 아니면, 주구식구획묘나 연암동형주거지처럼 1동의 주거나 1기의 묘를 둘러싸는 주구의 개념이 취락으로 확대된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안재호·김현경 2015).



[그림 14] 청동기시대 후기의 환호 분포

IV. 검단리문화의 영남지역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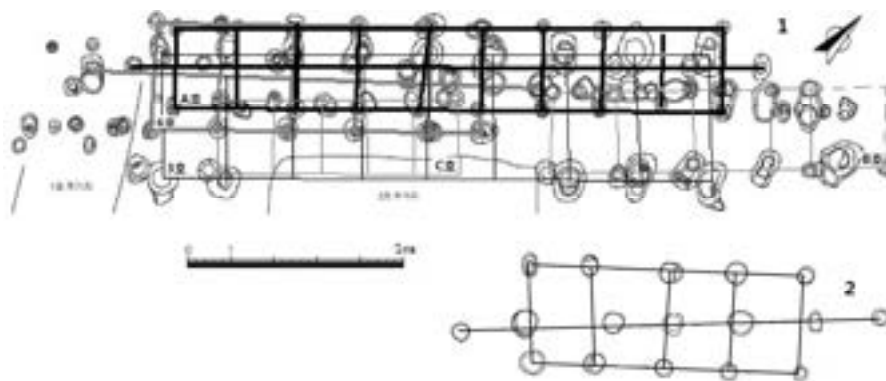
송국리문화가 전기의 수렵채집우위의 문화 속에서 돌출하여 농경우위의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은 중국 산둥반도로부터의 신문명을 접촉하면서이다. 이 신문명은 수전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단계의 발달된 정치체였다(안재호 2018). 이에 반하여 검단리문화는 천전리문화처럼 여전히 전기문화를 계승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사회발달과정상으로 보면 송국리문화보다 이미 한 단계 이상의 지체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 남한 청동기시대 후기의 지역색

대비	검단리문화 ----- 송국리문화					
토기	심발 >> 직립경호 ----- 심발 << 타날문 외반구연호					
석기	장식석검 ----- 단어형석도 ----- 일단병식석검 ----- 삼각형석도					
수렵	함정					
의례	저형 석기 · 토기			독립동지주고상가옥		
가마	노천가마			밀폐식토기가마		
어망추	원통형어망추		원반형어망추			
주거지	천상리형	송국리유형주거지				
묘제	가옥묘 · 주구식구획묘 ----- 묘역식지석묘 ----- 석개토광묘 · 옹관묘					
지역	동남해안권	영남내륙권	남강권	경기남부권	호남권	호서권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문화는 이 두 문화의 대립과 융합이다. 융합의 경우도 그 정도의 차이로써 가름된다.

<표 2>에서처럼 각 지역의 문화상이 나타나는데, 검단리문화와 송국리문화가 양 극단에 위치한다. 검단리문화는 전통적 재지계문화라고 한다면, 송국리문화는 외래계문화 혹은 혁신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독립동지주고상가옥 (1 : 부여 송국리유적, 2 : 보령 관창리유적)

송국리문화요소 중에서 타날기법 · 외반구연의 토기나 의례용 건물로 인식되는 독립동지주고상가옥 · 덮개형토기가마 등은 중국 산둥반도로부터 유입된 남방문화의 요소(深澤芳樹 · 李弘鍾 2004;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편 2007; 안재호 2018)이다. 그리고 삼각형석도는 개량된 수확구로서 수전경작을 통한 농경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주거지에서 천상리형주거지는 전기의 취락이 소형화된 구조이지만, 송국리형주거지는 전기에서 파생하여 변혁을 일으켜 생성된 구조의 신개념의 가옥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묘제에서도 송국리문화의 옹관묘는 사회의 변혁에서 신분이 귀속신분제가 도입된 것을 의미하고, 획득신분제 사회에서 한 단계 도약한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형태로 본다면 후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장사회로 나아가지만, 송국리문화권이 보다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중간지역에 속하는 영남내륙권이나 남강권은 양 문화를 모두 수용한 형태이지만 송국리문화의 영향을 더욱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시간적으로도 남강권에서는 전기의 동남해안권문화라고 할 수 있는 선검단리문화¹⁾에서 송국리문화로의 전환을 진주 대평리유적 등지에서 유구의 중첩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검단리문화권과 인접한 영천-대구권에서는 늦은 시기의 검단리문화가 유입한 흔적도 발견된다.

그런 영남내륙권과 남강권은 독자적으로 소위 묘역식석묘라는 묘제를 채택하여 송국리문화나 검단리문화권에서 찾을 수 없는 거대한 조상묘를 조영함으로써 기념물적 사회자산으로 삼고 있고,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결집을 도모하여 강력한 수장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영남내륙권과 남강권이 발달한 충적지에서의 농경활동

으로 잉여생산물의 증대를 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검단리문화권에서는 타지역문화권보다 많은 수전유적이 발견되고 있지만, 대체로 소규모에 해당하고 비옥하고 넓은 사행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가 없다. 그리고 송국리문화권에는 모든 취락과 묘역이 구릉지에 입지하며 현재의 충적지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그 당시 금강유역의 충적지는 농경지로 활용될 수 없었던 여건이었다고 추정된다. 호남의 영산강유역도 동일한 현상이다. 이런 환경은 구획묘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남으로 전파되어 왔지만, 호서와 호남지역에서는 그다지 조상묘로서 채택할 수 없었던 것은 산동반도의 문화 영향 탓도 있겠으나 넓은 묘역을 필요로 하는 구획묘의 수용이 토지이용면에서 불가능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문화적 사회적으로는 송국리문화 발생지역인 호서지역이 선진지역이었겠지만, 그것을 발전시킬 동력 즉 농업생산성에서는 영남내륙권과 남강권을 추월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열세였을 것이다. 그래서 송국리문화를 수용한 영남권에서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오히려 사회적 성장은 앞섰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단리문화권에서는 후기가 되면 태화강과 동천강유역에 인구가 과밀해지면서, 기존의 수렵채집주도의 경제에서 수전을 도입 경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림 16] 덮개형토기가마의 재현

1) 전기에 속하는 주구식구획묘를 중심으로 하는 제 요소들을 선검단리문화라고 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개념설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인옥, 2009, 「환동해선사문화권의 설정과 분기」, 『동북아문화연구』 제19집.
- 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에 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第76號.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8, 「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년 특별전.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8,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Ⅱ유적」, 『海峽을 통한 文化交流』,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13회 합동고고학대회.
- 배진성, 2005,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48.
- 裴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 송영진, 2017, 「영남해안지역의 반원형검과두식석검의 출현과 전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 안재호, 2012, 「墓域式支石墓의 出現과 社會相」, 『湖西考古學』 26, 호서고고학회.
- 安在皓, 2013, 「韓半島 東南海岸圈 青銅器時代의 家屋葬」, 『韓日聚落研究』, 서경문화사.
- 安在皓, 2014, 「青銅器時代 遺物과 社會의 變遷」, 『청동기시대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한국청동기학회.
- 안재호, 2018, 「송국리문화의 기원과 지역상」, 『청동기시대 송국리유적, 왜 중요한가?』, 서울대학교박물관·중부고고학회 공동 학술대회.
- 安在皓·金賢敬, 2015, 「青銅器時代 狩獵採集文化의 動向」, 『牛行 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진인진.
- 유병록, 2010, 「豎穴建物 廢棄行爲 研究 1-家屋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創設20周年紀念論文集』,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의 視空間的 位置와 性格에 對한 一考察」, 『嶺南考古學』 36.
- 이수홍, 2010,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周溝形 遺構에 대하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立 20周年 記念論文集』,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편, 2007, 『土器燒成의 考古學』, 서경문화사.
- 黃昌漢, 2008, 「青銅器時代 裝飾石劍의 檢討」, 『科技考古研究』 14號, 아주대학교박물관.
- 黃昌漢, 2010,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墓制의 特徵」, 『青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蔚山文化財研究院.
- 近藤喬一, 2000, 「東アジア의 銅劍文化と向津具의 銅劍」, 『山口県史』 資料編考古1, 山口県史編さん室.
- 深澤芳樹·李弘鍾, 2004, 「松菊里式土器におけるタタキ技法の検討」, 『2002年度 共同研究成果報告書』 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
- 佐々木高明, 1991, 『日本史誕生』, 集英社.
- 春成秀爾, 1990, 『弥生時代の始まり』 UP考古學選書11, 東京大學出版會.
- 戶澤充則 編, 1994, 『縄文時代研究事典』, 東京堂出版.
- 데.엘.브로단스키(鄭焄培 譯), 1996, 『沿海州의 考古學』, 學研文化社.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제1발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중심취락

발표 : 정대봉(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중심취락

정대봉(울산문화재연구원)

1. 머리말

한국 고고학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구제발굴의 결과로 인해 얻어진 수많은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그 깊이와 시각이 넓혀져 왔는데 울산지역의 고고자료, 특히 청동기시대 자료는 그 중심에 서 있다. 고고자료의 양적 수량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유적의 寶庫로 불리울 만큼 실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수많은 연구에 의한 질적 성장 또한 괄목할 수준인데 초창기 광역적 연구시각에서 출발한 유구나 유물의 연구가 1990년대 초, 울산점단리마을유적(부산대박물관 1996)의 발굴성과에 힘입어 지역적·다각적 연구경향으로 이어져 현재는 당시 사회의 복원을 위한 다양하고 깊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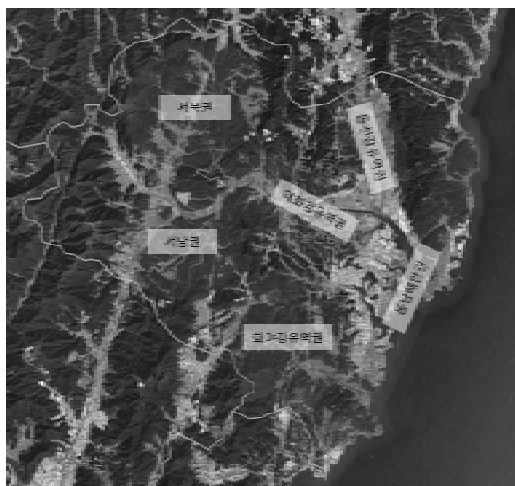
요컨대, 울산지역은 단위면적 당 최대의 청동기시대 유적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취락을 복원하여 그 성격을 연구한다는 것은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총체적 지식과 시각을 요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이 양질의 유적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 청동기시대의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어느 정도의 체계를 이루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유구나 유물이 등장하면, 해당 대상의 계통이나 단편적 편년에만 의존하던 연구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거시적 안목의 객관적 편년체계, 인접지역이나 국가 간의 유사자료와 계통관계 및 물질문화의 방향성, 나아가 경관고고학(Landscape Archaeology)이나 인지과정고고학(Cognitive-processual Archaeology)의 관점에서도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났다. 따라서 바야흐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재까지 축적된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고자료를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총체적 시각의 연구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의 궁극적 목적은 상기 언급한 요구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다수의 청동기시대 고고자료를 시기별·권역별·입지별로 분석하여 유적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울산지역의 중심취락의 성격과 기능을 엿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II. 대상과 방법론

1. 대상



[그림 1] 울산지역 권역도

울산지역은 전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된다. 이는 울산의 입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울산은 동해로 유입되는 太和江, 東川江, 回夜江, 外煌江 등의 수계가 잘 발달하여 있고 산계 또한 포항·경주·울산·양산으로 이어지는 구조곡의 발달로 인해 주변에는 지형적으로 얇은 구릉성 산지가 넓게 포진되어 있어 인간이 생존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이점과 2000년대 이후 활발한 개발정책에 기인한 폭발적 구제발굴에 힘입어 2018년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약 150여 개소에 이르며 여기에서 발굴조사된 주거지 수는 약 3,500棟 이상이다. 본 발표의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유적 가운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10棟 이상을 보유한 유적을 기본 대상으로 했는데¹⁾ 이 숫자도 약 3,300棟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산계와 수계를 기준으로 본문에서는 이를 6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였다.

본문에서는 집계된 주거지를 바탕으로 객관화된 편년의 틀을 제시하여 전체 편년을 시도하고 이를 입지별·권역별·시기별로 나누어 취락의 형성과정 및 중심취락의 성격과 기능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2. 연구사 및 방법론

먼저 ‘聚落’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 한국고고학에서는 주거고고학(崔夢龍 1983)·주거지고고학(이선복 1988)·취락고고학(秋淵植 1993)·마을고고학(權鶴洙 1994)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오다가(추연식 1997:49)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聚落考古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고고학용어가 그러하듯이 ‘정착’, ‘정주’를 뜻하는 개념인 영어의 ‘Settlement’가 ‘취락’, ‘마을’ 등의 우리말 혹은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혼란에 지나지 않을 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또한 이 단어는 지리학 등과 같은 인접학문에서 자주 쓰이는 것으로서 먼저 고고학에서 주로 통용되는 ‘취락’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취락’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형원(2009)은 이에 대해 ‘한 지역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세운 건조물이며 공동생활의 단위인 가옥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고학에서 일컫는 취락의 의미란 우선 ‘개별주거지 집단’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개별주거지 집단이 취락으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同時性이 담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개별 주거 집단 간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이상의 개념이 취락에 대한 협의의 정의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는 주로 지금까지 개별 유구 및 유물의 편년이나 계통추적 등 물질적 자료 자체에 국한되었던 느낌이 강하다.

반면, 개별 주거집단 간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 취락 내의 구조적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개념의 취락연구는 앞서 살펴본 취락의 개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당시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전반의 총체적 문화복원을 추구하는 개

1) 울산지역은 2000년대 이후 구제발굴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및 삼국시대 고분유적이 압도적이다. 다만 그 중에서 소규모 발굴에서 조사된 주거지 10동 미만의 유적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취락연구의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료의 대상에서는 일차적으로 제외하였고 필요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다.

념이다. 최근 이러한 개념의 취락연구는 고고학 뿐 아니라, 인접 학문과 학제 간 협업을 통해서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주거공간, 분묘공간, 저장공간, 생산공간 등 고고학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넓은 시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서 문화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어쩌면 고고학의 궁극적 목적에 수렴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²⁾ 요컨대, 한국고고학에서의 취락연구에 대한 동향은 협의의 개념에서 누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광의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는 추세이다.³⁾

이러한 개념을 견지하면서 발표자가 취락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同時期性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이는 취락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조건이며-주지하는 바와 같이-모든 취락연구의 출발은 동시기성의 담보에서부터 출발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유적은 대부분累世代적으로 중첩된 현상이므로 같은 청동기시대라 할지라도 이를 시기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수의 개별주거지가 모인 유적이라 하더라도 동시기별로 분리하여 놓고 보면 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동시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객관화-지역화된 편년의 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잘못된 편년에 의한 개별주거지의 분리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때로는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한반도 남부지역은 물질문화의 흐름상 다소 지역화된 편년틀에서 출발하여 광역의 편년틀과 대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객관화된 편년작업에 의한 동시기성이 확보된 취락은 지역 내에서 수계 및 산계에 따른 권역별 분포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시기별 취락의 이동성 및 발전단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기대되는 것은 지역 내 ‘중심취락’의 존재 및 등장시점이다. ‘중심취락’의 개념은 안재호(2006)가 강조한 ‘거점취락’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취락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취락의 구성요건으로는 대표적으로 개별주거군, 매장시설, 생산시설, 방 어시설, 저장시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개별주거(군)를 제외하고 해당 요건은 물론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지역에 따라 매장시설의 발견이 현저히 드문 지역색을 나타내는 곳도 있고, 환호나 무덤과 같은 경우는 쏠시기 취락의 공통 구성요소라기 보다 사회 발전 정도에 발맞추어 주로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유구이기 때문이다. 즉, 개별주거(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청동기시대 내 사회발전 정도나 지역에 따라 부가되는 요소일 뿐, 취락의 결정적 구성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취락의 구성요건 가운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개별주거(군)이 된다. 취락을 논의할 때, 개별주거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취락의 단위가 결정되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한국고고학에서는 소공동체, 세대공동체(都出比呂志 1989; 안재호 1996; 김승옥 2006; 김현식 2007, 2010)의 개념이 대두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안재호(1996, 2006)는 共同體論을 처음으로 제창하고 정립하였는데 요는 청동기시대의 가족체가 大家族體-世帶共同體-核家族體로 분화한다는 것이고 주거지가 3~5동 군집을 이루는 것을 世帶共同體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김현식(2007)은 新진화주의적 입장에서 앵겔스의 이론을 본질적으로 적용한 김승옥(2006)의 의견에 찬동하면서 세대공동체를 인식하였다. 氏는 최종적으로 세대공동체의 이론적 구조에 대해 고대사회는 원시공동체(수렵·채집단계)에서 농업공동체(농업기반단계)로 이행하는데 농업공동체는 여러 개의 소공동체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소공동체가 이른바 ‘세대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김현식 2007, 2010).

초기의 쟁점은 이렇듯 연구자마다의 세대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다. 주지하다시피 복수의 노지를 갖춘 전기의 세장방형 주거지에는 여러 세대가 공존가능하다. 이는 특정 시기, 특정 주거형태에서만 가능한 현상이지만 현재 대부분 연구자들은 이를 세대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⁴⁾ 세대공동체가 취락의 단위로 산정된다면, 여러 세대가 거주 가능한 전기 복수의

2) 현재 몇몇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광의의 개념에 부합하는 총체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고고학의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논의는 협의의 취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3) 그렇다고 취락에 대한 협의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취락 연구의 출발점은 개별 주거집단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개별 주거집단의 이해 없이 광의의 취락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할 것이다.

4) 안재호(1996)는 주거지 내 分室에 대해 논의 하면서 규모가 가장 큰 공간을 세대공동체의 家長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았고, 김승옥(2006)은

노지를 갖춘 세장방형 주거지 1棟도 취락의 단위가 될 것이다. 반면, 급격한 핵가족화가 주거형태에 반영된 후기의 경우는 어떠한가? 동시기를 영위한 소규모의 주거군 자체가 세대공동체로 인식될 것이고 사회적 약속에 의해 모인 이들의 집합을 취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대공동체라는 용어는 취락에 있어서 그 自體로 절대적 단위의 용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고고학에서 ‘世帶共同體’라는 용어를 적용할 때에는 ‘생산과 분배와 같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동시대 거주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Ⅲ. 자료의 검토

본 장에서는 권역별 유적의 자료를 소개하겠다. 권역은 수계에 따라 서북권, 서남권, 태화강유역권, 동천강유역권, 회야강유역권, 동남해안권 등 총 6개 권역으로 분류하였다.

1. 태화강유역권

[표 1] 태화강유역권 자료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연도)	주거지 (棟)	입지	유구/유물	비고	권역
1	울산신정동	울문연 (2003)	14	구릉사면 군집배치 (정상부공지)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무문, 환상석부		태화강 중류
2	울산교동리456	울문연 (2004)	14	구릉사면 군집배치 (3~4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단사선문, 무문 단도마연토기(11호)		태화강 상류
3	울산굴화리장검Ⅱ	울문연 (2006)	25	구릉전체 방사상배치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단사선문+구순각목 공열문+단사선(남알문), 공열문+구순각목문 단사선문+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공열문 단도마연토기	적석, 동북형 석도	태화강 중류
4	울산반연리가막뚝	울문연 (2010)	22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단사선문, 횡선문, 공열문, 무문		태화강상류 AMS
5	울산다운동새각단	울문연 (2011)	38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세)장방형 중·소형, 울산식주거지 (퇴)이중구연+단사선 공열문, 횡선문(남알문), 단사선문 단도마연토기, 검단리식토기		태화강중류 AMS
6	울산선암동	울문연 (2011)	19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신)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신)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단사 선문 (신)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단도마연토기	적석	태화강 하류

복수의 爐를 세대 구성원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이리한 거주형태를 ‘공동주거방식’이면서 거주단위로서는 ‘세대공동체’로 인식하였다. 발표자 또한 過稿(정대봉 2016)에서 주거지 내 단수의 爐가 분화되는 과정을 구성원의 증가 및 정착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 바 있다.

7	울산약사동평산 I·II	울문연 (2012) 울문연 (2013)	21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중·소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날알문, 공열문, 날알문	적석 석관묘	태화강중류 AMS
8	울산교동리 I	울문연 (2013)	137	구릉사면 군집배치 (중복심함)	세장방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신)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단사 선문 (신)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날알문, X자문 단도마연토기, 이단병식석검(장식)	환호	태화강상류 AMS
9	울산중산동약수IV	울문연 (2017)	27	능선따라 2~3동군집	중·소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X자문, 공열문, 날알문	연암동형 주구	태화강 중류
10	울산 구영리	경남대 (2004)	13	능선따라 2~3동군집	울산식주거지 무문/돌유		태화강 상류
11	울주 신화리	경문연 (2009)	25	사면 능선따라 열상배치	세장방형·장방형(B), 울산식주거지(A) 공존 공열문+단사선문	주거지 내부 적석	태화강 상류
12	울산신화리	동아대 (2010)	151	구릉사면 열상배치	울산식주거지 우세 (세)장방형주거지 혼재 공공건물의 성격 가진 주거형태有 이단병식석검(장식) 구순각목문+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단사선문, 파수	주거지 내부 적석, I ~ III지구 간 위계有	태화강 상류 AMS
13	울산 무거동 옥현 C지구	경남대· 부산대 (2015)	79	구릉사면 열상배치 (정상부 공지)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단사선문, 무문 공열+단사선문	수전	태화강 중류
14	울산 천상리취락유적 (중심취락?)	영문연 (2002)	43	구릉사면 열상군집, 10동 내외 개별주거군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돌유문+사선문(날알문) 돌유문, 횡선문, 날알문	환호 광장(?)	태화강 상류
15	울산 약사동	우리문 (2012)	22	구릉사면 군집배치	울산식주거지, 연암동형주구 적색마연토기 돌유문+단사선문(날알) 단사선문(날알), 공열문	적석	태화강 중류
16	울주 구수리	울발연 (2004)	28	구릉사면 열상배치	(장)방형, 중·소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공열문+단사선문 이단병식석검(장식)		태화강 상류
17	울산 구영리 (IV·V지구)	울발연 (2007)	87	IV지구 구릉사면 군집배치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날알문, 무문, X자문(호형) 이단병식석검(장식)	적석	태화강 상류 AMS
				V지구 구릉평탄면, 구릉사면 열상배치 (중복)	위석식노지를 갖춘 대형방형 장방형 (고)이중구연, 절상돌대문(V1-28호) 마연토기 (신)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 (신)이중구연+단사선문(X자문) 공열문+단사선문 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V1-28호	
18	울주 반연리	울발연 (2010)	16	구릉사면 군집배치	울산식주거지, 날알문		태화강 상류 AMS

19	울주 신화리	울발연 (2012)	61	구릉사면 열상배치	복수의 노지를 갖춘 세장방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신)이중구연+단사선문+공 열문 공열문+단사선문, (신)이중구연+공열문 공열문+구순각목, 공열문+날알문 구순각목, 공열문, 날알문	적석	태화강 상류
20	울주 굴화리 백천들	울발연 (2012)	35	구릉사면 군집·개별배치 (2~3동)	대형 세장방형,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문+공열문+날알문 공열문+X자문, 단사선문		태화강 중류 AMS
21	울주 입암리	울발연 (2015)	16	구릉완사면 산재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검단리식토기	함정	태화강 상류 AMS
22	울산 굴화리·율리	중문연 (2006)	24	구릉사면 군집·개별배치	세장방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날알문 공열문, 검단리식토기 이단병식석검(장식, 토광묘)	토광묘	태화강 중류 AMS
23	울산 구영리	중문연 (2005)	78	구릉사면 군집배치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단사선문(날알문), 공열문		태화강 상류 AMS
24	울산 굴화리·다운동	중문연 (2013)	25	구릉사면 군집배치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날알문, 검단리식토기	석관묘	태화강 중류 AMS
25	언양 신화리2	한국문물 (2012)	103				태화강 상류 AMS
주거지 합계			1,123棟				

2. 동천강유역권

[표 2] 동천강유역권 자료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연도)	주거지 (棟)	입지	유구/유물	비고	권역
1	울산효문동죽전곡	울문연(2004)	18	구릉사면 군집배치 (3~4동)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단사(침)선 공열문+날알문, 날알문, 공열문	동북형 석도	동천강 하류
2	울산연암동산성	울문연(2004)	10	구릉사면 군집배치 (4~5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단사선문, 횡선문 단도마연토기		동천강 하류
3	울산매곡동Ⅰ	울문연(2005)	9	구릉사면 열상배치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날알문, 무문 단도마연토기		동천강하류 AMS
4	울산매곡동Ⅱ	울문연(2005)	23	구릉사면 열상배치 (정상부공지)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날알문	적석	동천강하류 AMS
5	울산효문동울동	울문연(2006)	25	구릉사면 군집배치 (정상부공지)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단사선문, 횡선문, 무문 단도마연토기		동천강하류 AMS
6	울산매곡동신기Ⅰ	울문연(2006)	25	구릉사면 군집배치 (5~10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퇴)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공열문, 날알문, 횡선문	연암동형 주구	동천강 하류
7	울산매곡동신기Ⅲ	울문연(2007)	11	구릉사면 군집·산재 (정상부공지)	(세)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 구순각목+단사선 공열문+단사선(날알문) 공열문, 날알문		
8	울산매곡동Ⅳ	울문연(2006)	22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날알문, 공열문, 날알문	연암동형 주구	동천강하류 AMS
9	울산천곡동가재골Ⅰ	울문연(2007)	23	구릉사면 군집배치 (3~4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신→퇴)이중구연+단사선문 (신→퇴)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문 (신→퇴)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 +공열문	적석	동천강 하류 AMS
10	울산천곡동가재골Ⅱ	울문연(2008)	16		(세)장방형,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신)이중구연+공열문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A’자문 (퇴)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날알문, 단사선문		
11	울산천곡동가재골Ⅳ	울문연(2010)	19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대형 (세)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단사선문(날알문) 공열문, 날알문, 단사선문, 거치문		
12	울산중산동약수	울문연(2007)	10	구릉사면 열상배치 (정상부 구상유구)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단사선, 단사선, 공열문 이단병식석검(장식)	적석, 정상부 구상유구	동천강하류 AMS
13	울산중산동약수Ⅱ	울문연(2009)	35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단사선문+구순각목문, 단사선+공열문 공열문+날알문, 날알문, 공열문	능선부 구상유구	

14	울산매곡동 III-2·V 지구	울문연(2007)	23	구릉사면 열상배치 (정상부공지)	중·소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단사선문, 단도마연토기	동북형 적석	동천강하류
15	울산상안동	울문연(2010)	34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중·소형 (세)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단사선문, 단사선문, 공열문	동북형 적석	동천강하류 AMS
16	울산상연암	울문연(2010)	32	구릉사면 열상배치 (정상부공지)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연암동형주거지 공열문+단사선문+횡침선문 날알문, 파수, 단도마연	함정(20) 토광묘	동천강하류 AMS
17	울산약사동393 장현동53	울문연(2013)	35	구릉사면 군집배치 (3~4동)	세장방형, 중·소형 울산식주거지 (퇴)이중구연+단사선 공열문, 날알문		동천강하류 AMS
18	울산장현동 I ~IV	울문연(2013)	80	구릉사면 군집배치	대형 세장방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신)이중구연+X자문+공열문 (신)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공열문+단사선문 구순각목문+공열문+횡침선문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날알문 공열문, 날알문		동천강하류 AMS
19	울산효문동산68-1	대동(2011)	29	구릉사면 병렬배치	대부분 장방형 중형 돌류문+단사선문 돌류문단독 이단병식석검(장식)	주거지 내부 적석 토광묘	동천강 하류 AMS
20	울산 천곡동 산173-1	동서(2011)	91	구릉 정상부부터 방사상 배치	방형>장방형>세장방형 (말단부 중복심함) 공열문·단사선문·X자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문 구순각목+횡침선+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횡침선문+단사선문	주거지 내부 적석	동천강 상류 AMS
21	울산 호계·매곡동 (나·다지구)	동아세아(2011)	92	구릉사면 기획배치 (정상부공지)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우세 방형<장방형 (후행할수록 벽주형 강화) (신)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단사선문, X자문, 횡침선문, 무문 이단병식석검(장식/무장식)	연암동형 주구	동천강 하류 AMS
22	울산 창평동	영문연(2003)	14	완사면 산재	(장)방형우세 (대형 포함) (고)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문, 공열문+단사선문 횡침선문+파수부토기	5호 주거지	동천강 하류
23	울산 연암·화봉동	우리문(2012)	23	구릉사면 군집배치 (3~4동)	울산식주거지(적석) 날알문, 무문		동천강 하류
24	울산 천곡동 가·나지구	울발연(2005)	23	구릉사면 열상배치 (정상부 공지)	가지구 : (장)방형 중·소형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공열문 단사선문, 거치문, 횡침선문, 공열문 단도마연	적석	동천강 하류 AMS
					나지구 : 중·대형 장방형 (신·구)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 문 (신·구)이중구연+단사선문+거치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문 공열+단사선문, 단사선문, 공열문 단도마연토기	적석	

25	울산 천곡동 II	울발연(2007)	29	구릉사면 군집배치 (5~6동)	중형장방형·소형방형 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적석	동천강 하류 AMS
26	울산 매곡동 508	울발연(2007)	43	구릉사면 군집배치 (5~6동)	(세)장방형, 방형 (퇴)이중구연+단사선문(남알문) 구순각목+공열문 공열문+단사선(남알문) 공열문, 단사선문(남알문) 단도마연토기		동천강 하류
27	울산 신천동 공원부지	울발연(2007)	12	구릉 정상부 완사면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남알문 공열문, 남알문	냉천 유적 결합	동천강 하류
28	울산 신천동 냉천	울발연(2008)	45	구릉사면 열상배치	중·대형 장방형(2~3개의 복수노지 有) 울산식주거지 (퇴)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단 사선 (퇴)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 (퇴)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남알문, 구순각목+단사선문 (퇴)이중구연+단사선문	는	
29	울산 화봉동	울발연(2008)	17	구릉사면 군집배치	(장)방형 울산식주거 (고)이중구연, 타제돌보습	는	동천강 하류
30	울산 신천동 냉천 II	울발연(2009)	40	구릉사면·정상부 군집배치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퇴)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단사선문 단도마연토기		동천강 하류
31	울산 신천동585-6	울발연(2009)	15	구릉사면·정상부 군집배치	중형 (장)방형 공열문+남알문 남알문+공열문+X자문		동천강 하류
32	울산 서동	울발연(2013)	196	구릉사면 군집·개별배치 (3~5동)	세장방형,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남알문 공열문, 남알문, 거치문		동천강 하류 AMS
33	울산 천곡동 600-5	울발연(2013)	18	구릉사면 군집·개별배치 (2~3동)	중·소형 울산식주거지 (신)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남알문, (신)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문, 남알문		동천강 하류
34	울산 천곡동 달천동가대동	한겨레(2017)	23	구릉사면 군집배치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검단리식토기		동천강 하류
35	울산 약사동 원약	한겨레(2013)	46	구릉사면 열상배치 (정상부공지)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단사선문(남알문), 공열문 적색마연토기		동천강 하류
주거지 합계			1,206棟				

3. 회야강유역권

[표 3] 회야강유역권 자료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연도)	주거지 (棟)	입지	유구/유물	비고	권역
1	울산동천리	울문연(2006)	14	구릉사면 군집배치 (정상부공지)	소형~중·대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구순각목, 공열문+X자문 공열문, 단도마연토기	주구 토광묘	회야강상류 AMS
2	울산망양리· 덕신리오산	울문연(2009)	32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중·대형(세)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공열문 (퇴)이중구연+공열문, (퇴)이중구연+단사선문, (퇴)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단사선문+공열문 단사선문, 공열문		회야강유역 AMS
3	울산외광리귀지	울문연(2010)	57	구릉사면 군집배치 (2~3동)	(신)이중구연+단사선 거치문(△)+공열문 거치문(△)+구순각목+횡선문 공열문		회야강유역 AMS
4	울산검단리 마을유적	부산대(1995)	103	환호 前	본문검토	환호	회야강 상류
				환호시기			
				환호 後			
5	울산 남창·합수	울발연(2006)	22	구릉사면 군집배치 (5~8동)	(세)장방형, 울산식주거지 무문		회야강 하류
6	울산 외광리 취락유적	울발연(2007)	37	구릉전체 (사면+정상부)	대형 세장방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문+공열문(14) (신)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24) 무문	위석식노 지	회야강 하류 AMS
주거지 합계			265棟				

4. 동남해안권

[표 4] 동남해안권자료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연도)	주거지 (棟)	입지	유구/유물	비고	권역
1	울산신현동황토전	울문연(2003)	34	구룡사면 군집배치 (정상부공지)	소형~대형, 울산식주거지 무문	석관묘	동남해안
2	울산산하동산음	울문연(2005)	16	구룡사면 군집배치 (2~3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적석	동남해안
3	울산명산리	울문연(2011)	17	구룡사면 군집배치 (2~3동)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단사선문, 날알문	환호	동남해안 AMS
4	울산산하동 IV·V	울문연(2014)	102	구룡사면 열상군집배치	대형 세장방형,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문+공열문, X자문+공열문 단사선문+공열문, 단사선문, 날알문, X자문, 공열문	연암동형 주구	동남해안 AMS
5	울산 산하동37번지	우리문(2011)	36	완사면 열상배치	(세)(장)방형, 연암동형주구 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공열+단사선문 공열문, 횡(침)선문	굴립주 24동	동남해안 AMS
6	울산 창평동 810번지	우리문(2012)	12	평지 산재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동남해안
7	울산 대안리유적	우리문(2017)	27	구룡사면 열상배치	세장방형(7·11·26)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공열문 단사선문+공열문 공열문, 단사선문 검단리식토기		동남해안 AMS
8	울산 정자·산하동	우리문(2013)	21	구룡사면 군집배치 (2~3동)	(세)장방형, 방형 (신)이중구연+단사선+돌유문(I-3호) 무문	적석	동남해안 AMS
9	울산 서부동 비석골	울발연(2009)	23	구룡사면 군집배치	복수의 노를 갖춘 대형 (세)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구순각목문+단사선문 (퇴)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날알문		태화강하류 동남해안 AMS
10	울산 정자동	울발연(2009)	48	구룡사면 군집배치 (3~5동)	중·대형 (장)방형주거지,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날알문+침선문 날알문+침선문, 공열문+날알문 날알문, 공열문, 단도마연토기		동남해안 AMS
11	울산 산하동	울발연(2010)	19	구룡사면 군집배치 (2~3동)	소~대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단사선문	환구	동남해안 AMS
12	울산 산하동 화암	울발연(2011)	15	구룡사면 열상배치	울산식주거지, 환구, 구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 단사선문	환구	동남해안 AMS
주거지 합계			370棟				

5. 서북권

[표 5] 서북권자료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연도)	주거지 (棟)	입지	유구/유물	비고	권역
1	울산인보리번담들	울문연(2008)	30	구룡사면 열상배치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공열문, 단사선문+공열문 구순각목, 단사선문, 공열문, 남알문, 단도마연토기		서북권
2	울주 구미리 709-3	울발연(2014)	15	구룡사면 열상배치	중·소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검단리식토기		서북권
3	울산 두산리 I·II	중문연(2013)	31	구룡사면 군집개별배치 (2~3동)	중·소형 울산식주거지 공열문		서북권 AMS
주거지 합계			76棟				

6. 서남권

[표 6] 서남권자료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연도)	주거지 (棟)	입지	유구/유물	비고	권역
1	울산조일리1071-2	울문연(2012)	11	구룡사면 군집배치 (3~4동)	중·소형 원형,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X자문, 공열문+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사격자문, 남알문	송국리형 주거	서남권
2	울산보은리	울문연(2017)	26	구룡사면 군집배치 (정상부공지)	세장방형, (장)방형, 울산식주거지 (퇴)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 (퇴)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문 (퇴)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구순각목+공열문, 공열문	적석	서남권
3	울산 방기리 청동기시대취락	창원대(2003)	49	완사면 능선 및 구룡정상부	환호1 : (장)방형 소형 환호2 : (세)장방형 중형 공열문, 구순각목+공열문, 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문 단사선문, 횡선문, 무문	환호 광장	서남권
주거지 합계			86棟				

IV. 중심취락과 거점취락

1. 편년

1) 개요

한반도 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 편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실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학계의 연구는 먼저 초기의 미사리·가락동유형, 전기의 가락동·혼암리·역삼동유형, 후기의 송국리·검단리유형이라는 큰 틀이 확립되었고⁵⁾, 현재는 광역 편년을 기반으로 하여 각 지역마다 물질문화가 유입되는 시간차나 지역차에 따른 지역편년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지역도 이러한 연구경향에 발맞추어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지역편년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이수홍 2015; 박영구 2015 등).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물질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타 지역에 비해 미사리유형으로 대변되는 초기 유적의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고(鄭大鳳 2012), 무덤자료 또한 전 시기에 걸쳐 그 수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일찍이 이수홍(2008)이 지적했듯이 ‘울산지역에 과연 전형 가락동유형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고고자료의 특징을 그대로 대변하는 핵심적인 의문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후기의 검단리유형과 대별되는 송국리유형의 부재는 널리 알려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 취락의 편년은 이러한 특정 유형의 부재를 인지하여 지역편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존의 광역편년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한반도 남부지역 광역편년에 있어서 早期는 (석상) 위석식노지를 갖춘 대형 방형주거지와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를 반출하는 이른바 ‘미사리유형’으로 대변되고 이러한 물질문화의 계통은 농경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서북주민의 직·간접적인 이주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千羨幸 2014, 2015). 다만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 반출하는 토기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돌대문토기의 형식변화상(김재운 2003)을 차치하더라도 이와 공반하는 이중구연토기의 계통에 따라 前期 가락동식토기가 초기로 소급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 대표적인데⁶⁾ 발표자는 이러한 논란에 관해 이중구연토기의 외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한 誤解에서 비롯된 것이라 인식하고 이중구연토기를 新式·古式으로 구분하여 편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정대봉 2015).⁷⁾

前期는 이른바 가락동·역삼동·혼암리유형이 유입되어 다소 시간차를 두거나 병존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형원(2009)은 중서부지역을 연구하면서 전기 세 유형을 정의하였다. 가락동유형은 둔산식(I·II)주거지→용암식(I·II)주거지의 주거형태에 이중구연+단사선문(거치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문, 단사선문, 구순각목문 등의 문양이 새겨진 심발형, 호형토기를 반출하는 유형이다. 역삼동·혼암리유형은 혼암리식주거지 또는 관산리식주거지 형태에 여러 가지 문양이 복합되다가 최종적으로 가락동식토기의 주된 요소인 이중구연이나 단사선문이 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⁸⁾ 前期 각 유형의 병존관계에 있어서는 초기 가락동유형이 다소 이르고 역삼동·혼암리유형의 늦은 형태가 후기 어느 시점까지 잔존할 뿐, 중심시기는 전기 세 유형이 병존했다고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5) 최근 점토대토기와 송국리식토기의 병존관계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다시 송국리단계를 중기,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후기로 구분하는 4분기案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본 발표문에서 시기구분은 안재호(2006)의 新3분기안을 수용하며 송국리·검단리유형 단계를 후기로 구분하는 초기-전기-후기로 지칭한다.

6) 발표자는 過稿(정대봉 2015)에서 가락동식토기가 그 외형적 특징상 단순히 ‘이중구연+단사선문’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양식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김병섭 2003; 김현식 2008a 등)에 의해 그 상한이 초기까지 소급된 토기양식이고 이러한 의미의 이른 시기 가락동식토기는 심한 지역차를 동반하기 때문에 급기야 ‘가락동식토기가 과연 초기까지 소급되는가?’라는 의문을 야기한 것이라 파악하였다.

7) 이른 시기 이중구연토기 구분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김병섭(2003), 김현식(2008), 안재호(2010), 배진성(2012)등에 의해서도 제기되어 왔다.

8) 이형원(2009)은 기존의 역삼동유형 및 혼암리유형에 대해 공열문·적색마연토기의 역삼동식토기, 공열문+이중구연+단사선문의 혼암리식토기의 차이를 보일 뿐, 양 유형이 동일주거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간주한 바 있다. 발표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며 본 발표에서 다루는 울산지역 또한 이러한 논의를 대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이수홍(2015)와 김현식(2010)의 대표 편년안

	이수홍(2015)	김현식(2010)	
1기 (조기)	위석식노지를 갖춘 평면방형주거지 이중구연토기, 돌대문토기	Ⅰ 期	세장방형주거지 장방형 대형주거지 위석식노지 초석식주혈
2기 (전기전엽)	복수의 무시설식노지를 갖춘 대형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문) 구릉의 능선에 따라 병렬배치 1~2군의 주거군		
3기 (전기 중엽)	복수의 무시설식노지를 갖춘 대형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 이중구연+구순각목문 이중구연B+단사선문(X자문) 구순각목+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문		
4기 (전기후엽)	울산식주거지 퇴화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Ⅱ 期	울산식주거지 · 혼암리계토기 검단리식토기
5기 (후기전엽)	울산식주거지 돌류문, 난알문		
6기 (후기중엽)	울산식주거지(우열주거군 등장) 검단리식토기		
7기 (후기후엽)	(소형)울산식주거지 주거형태의 소형화·규격화 토기문양의 무문화	Ⅲ 期	울산식주거지 검단리식토기

한편 울산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에 나타나는 유형으로서의 典型은 나타나지 않고 토기의 경우 문양요소로서 잔존하기 때문에 기존에 편년된 전기의 세 유형의 전형을 대입하여 일률적으로 편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령, 이수홍(2008·2010)이 自問했던 울산지역에 가락동유형이 존재하는가? 에 대한 해답도 이러한 문제를 방증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정연한 礎石과 (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대형)장방형주거형태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거치문+구순각목문이 반출되는 전형 가락동유형의 사례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기문양의 요소나 주거형태에 있어서 가락동식토기의 부분적 요소가 확인될 뿐이다.⁹⁾ 후술하겠지만 발표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반도 남부지역의 물질문화 흐름의 방향성과 울산지역이 가진 지정학상의 요건 등으로 물질문화 전파의 시간차에 기인한 현상으로 그 典型이 다소 왜곡 또는 지역화되어 유입된 결과라 생각한다.¹⁰⁾

後期는 송국리유형과 대별되는 검단리유형(배진성 2005; 이수홍 2005 등)으로 대변된다. 전기 후반에 출현한 울산식주거지가 기획화·안정화되고 여기에서 반출하는 검단리식토기를 대표적 물질문화로 인식한 결과이다. 상기의 광역편년을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연구자의 편년안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편년안을

9) 이수홍(2015)은 이전에 울산지역에서 보이는 이중구연A+단사선문이 시문된 토기를 가락동유형의 토기로 파악하였는데 이후에 이에 대해 호서 지역에서 보이는 전형 가락동유형의 토기와 차이가 있고 또한 울산지역에서 전형적인 둔산식주거지도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울산지역 내에 가락동유형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10) 또한 해안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징상 서북지역 물질문화 외에 동북지역의 그것도 다수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지민이 영위하던 생계방식과의 충돌이나 흡수·통합에 있어서의 갈등도 물질문화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시하고 있는데 김현식(2010)은 큰 틀의 광역편년, 이수홍(2015)은 비교적 세분화된 지역편년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을 막론하고 취락의 편년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주거형태와 반출하는 토기의 형태 및 문양일 것이다. 물론 양자의 조합상이나 취락의 입지 등과 같은 화학적·물리적 요소도 취락편년의 부가적 요건이 될 수 있다.

주거형태의 경우는 의외로 간단한 형태와 시간성을 반영하며 이는 지역에 따른 시간적 역전현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편년을 결정짓는 가장 일차적 요소라 생각한다. 주거형태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김현식(2008)의 도식화 자료가 이해하기 편하다(그림 2).

(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대형방형(미사리식)-(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세장방형(둔산식·용암식·관산리식)-장방형(혼암리식)-울산식주거지로 이어지는 순서이다. 울산지역 주거형태의 특징은 대부분 상기의 순서에 준하지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간취된다.

첫째는 ‘미사리식주거형태’가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 1동만으로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 점이다.¹¹⁾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학계에서는 울산지역 내 조기부정론이 우세한 형편이지만, 인접지역에서 조기자료가 확인되고 있고 여기에서 반출하는 이중구연형태나 누상돌대문토기는 충분히 조기의 자료로 인식해도 좋다고 판단한다(정대봉 2013).

둘째는 가락동유형의 주거형태인 전형적인 둔산식주거형태도 확인된 사례가 없다(이수홍 2015:67).¹²⁾ 위석식노지를 갖춘 상안동358-4·망양리·덕신리·외광리유적에서 보이는 주거형태도 복수의 위석식노지를 갖추었으나 내부시설 등에서 전형적인 둔산식주거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는 울산을 위시하여 영남내륙, 동남해안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지역색이 강한 주거형태인 ‘울산식주거지’의 존재이다. 전기 후반에 출현하여 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형태로 지역색이 강한 대표적 주거형태에 속한다.¹³⁾

미사리식	(유사)둔산식	관산리식	역삼동·혼암리식	울산식
				
구영리 V-1지구 28호	창평동 5호	교동리 192-37 9호	가재골 I 20호	상안동 II-6호
조기후반	조기후반·전기전반	전기전반	전기후반·후기전반	후기

[그림 2] 울산지역 주거지 편년안

11) 울산지역의 경우, 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형태에서 돌대문토기만을 반출하는 예는 현재 없으며 구영리유적 V-1지구 28호 주거지에서 절상 돌대문토기와 고식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는 양상이 가장 이른 형태이며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돌대문토기의 형태나 마 연토기를 공반하는 양상을 볼 때, 초기 내에서 이른 시기는 아니며 초기 후반으로 판단된다.

12) 발표자(鄭大鳳 2013)는 過稿에서 창평동 5호 주거지와 같은 주거형태를 ‘변형 둔산식’으로 지칭한 바도 있다.

13) 김현식(2006)에 의해 울산식주거지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을 때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벽구·외부돌출구, 노지의 위치 등 주로 주거지의 내부속성에 의해 인식하였던 바, 현재도 그러한 사조가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속성은 검단리유형 외의 지역에도 확인되는 추세이고 주거환경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가 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蔚山式住居址’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유물(토기)이다. 토기 또한 현재 어느 정도의 광역편년이 큰 틀을 잡은 상황이지만 지역마다 그 상·하한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고 조합상 또한 해당 지역의 고유한 identity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세심한 지역편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광역편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사리식토기-가락동식토기-혼암리-역삼동식토기의 순이 일반적이겠지만, 울산지역의 경우는 돌대문토기의 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후기로 가면 강한 지역색을 기반으로 등장한 검단리식토기가 출현하기 때문에 기타 문양과의 조합상을 고려하여 편년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울산지역에서 출토하는 토기의 문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單獨文→複合文→單獨文→無文化的의 경향을 나타낸다.¹⁴⁾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는 토기의 형태는 古式이중구연토기이고 이러한 이중구연부에 단사선문이 시문되거나 新式이중구연토기에 구순각목문이나 돌류문 등이 복합되다가 검단리식토기가 출현하여 기타문양 요소와 공반하는 양상이다. 즉, 조·전기에 출토되는 이중구연부의 형태나 이에 부가되는 문양에 주목하면 후기는 비교적 단순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울산지역 토기 편년안

2) 울산지역 편년

상기의 편년안을 토대로 대략적인 편년표를 작성하면 <표 8>과 같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부분의 유적이 공간적으로는 태화강·동천강유역, 시간적으로는 전기후반~후기전반에 집중하고 있고 초기~전기전반의 자료의 수는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14) 鄭大鳳, 2012, 『東南海岸地域 出現期 無文土器의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표 8]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편년표

편년 권역	조기		전기		후기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태화강 유역권		울산 구영리(울발연)	울산교동리 I 울산 구영리(울발연)	울산굴화리장검 II 울산다운동새각단 울산선암동 울산교동리 I 울산중산동약수Ⅳ 울주 신화리(경문) 울주 신화리(동) 울산 천상리(영) 울주 구수리 울산 구영리(울발연) 울주 신화리(울발연) 울주 굴화리 백천들 울산 굴화리·울리 언양 신화리2(한)	교동리456 울산굴화리장검 II 울산반연리가막못 울산다운동새각단 울산선암동 울산교동리 I 울산중산동약수Ⅳ 울주 신화리(경문) 울주 신화리(동) 울산 무거동 옥천 C지구 울산 천상리(영) 울산 약사동(우) 울주 구수리 울산 구영리(울발연) 울주 신화리(울발연) 울주 굴화리 백천들 울산 굴화리·울리 울산 구영리(중) 언양 신화리2(한)	신정동 울산약사동평산 I·II 울산중산동약수Ⅳ 울산 구영리(경) 울주 신화리(동) 울주 반연리 울주 입암리 울산 굴화리·다운동
동천강 유역권		울산 창평동	울산 창평동 울산 천곡동 나지구 울산 화봉동	울산연암동산성 울산매곡동신기Ⅲ 울산천곡동가재골 I 울산천곡동가재골Ⅱ 울산천곡동가재골Ⅳ 울산중산동약수Ⅱ 울산매곡동Ⅲ·2·V지구 울산상안동 울산상연암 울산약사동393· 장현동53 울산장현동 I~Ⅳ 울산효문동산68-1 울산 천곡동 산173-1 울산 천곡동 가지구 울산 천곡동Ⅱ 울산 매곡동 508 울산 신천동 냉천Ⅱ 울산 천곡동 600-5 울산 창평동 810번지	울산효문동죽전곡 울산연암동산성 울산매곡동 I 울산매곡동신기 I 울산매곡동신기Ⅲ 울산매곡동Ⅳ 울산천곡동가재골 I 울산천곡동가재골Ⅱ 울산천곡동가재골Ⅳ 울산중산동약수 울산중산동약수Ⅱ 울산매곡동 Ⅲ·2·V 지구 울산상안동 울산상연암 울산약사동393· 장현동53 울산장현동 I~Ⅳ 울산효문동산68-1 울산 천곡동 산173-1 울산 창평동 울산 천곡동 가지구 울산 천곡동Ⅱ 울산 매곡동 508 울산 신천동 냉천Ⅱ 울산 천곡동 600-5 울산 창평동 810번지	울산매곡동Ⅱ 울산효문동울동 울산매곡동신기Ⅲ 울산천곡동가재골Ⅱ 울산천곡동가재골Ⅳ 울산중산동약수 울산중산동약수Ⅱ 울산매곡동 Ⅲ·2·V 지구 울산상안동 울산상연암 울산장현동 I~Ⅳ 울산 창평동 울산 연암·화봉동 울산 신천동 냉천Ⅱ 울산 서동 울산 천곡동 600-5 울산 천곡동 달천동가대동 울산 약사동 원약
동남해안권				울산신현동황토전 울산산하동Ⅳ·V 울산 산하동37번지 울산 대안리유적 울산 정자·산하동 울산 서부동 비석골 울산 정자동	울산신현동황토전 울산명산리 울산산하동Ⅳ·V 울산 대안리유적 울산 서부동 비석골 울산 정자동 울산 산하동 울산 산하동 화암	울산신현동황토전 울산산하동산음 울산명산리 울산 대안리유적 울산 정자·산하동 울산 서부동 비석골 울산 산하동 울산 산하동 화암

회야강 유역권	.	.	울산 외광리 취락	울산동천리 울산망양리·덕신리오산 울산외광리귀지 울산 남창·합수 울산 외광리 취락	울산동천리 울산망양리·덕신리오산 울산외광리귀지	울산동천리 울산검단리 울산 남창·합수
서북권	.	.	.	울산인보리변답들	울산인보리변답들	울주 구미리 709-3 울산 두산리 I·II
서남권	.	.	.	울산조일리1071-2 울산보은리 울산 방기리	울산조일리1071-2 울산보은리 울산 방기리	울산조일리1071-2 울산보은리 울산 방기리

조기의 경우, 현재까지 전형 돌대문유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영리 V-1지구에서 보이는 미사리식 주거형태나 여기에서 반출하는 고식이중구연+절상돌대문토기의 조합으로 본다면 조기 후반으로 편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¹⁵⁾ 다만 창평동 5호 주거지의 경우 주거형태의 경우 평면형태나 면적 등에서 보면 일견 가락동식주거와 흡사한데 초석식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¹⁶⁾ 발표자가 과거 주목했던(鄭大鳳 2012) 이중구연토기 또한 고식의 형태에 이중구연 부 내에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어 가락동유형의 그것과 흡사하다. 울산지역 내에서는 이른 시기의 가락동유형에 가장 근접한 자료로 생각되지만, 지역편년상 대부분의 전기전반 자료보다 앞서는 유형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조기 후반으로 위치시켰지만 유사 자료가 증가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판단된다.

전기는 크게 전기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고 口脣刻目文의 등장을 기준으로 한다(鄭大鳳 2013 등). 주거형태 또한 전기 전반은 대형 세장방형과 장방형이 혼재하다가 전기 후반으로 가면 혼암리식주거가 성행하고 울산식주거지가 등장하는 양상이다. 즉, 울산지역의 경우 가락동유형의 존재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기 전반은 역삼동·혼암리유형, 후반은 역삼동·혼암리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단리유형이 등장하여 후기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前시기에 비해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후반의 諸 자료이다. 크게 본다면 편년상으로 큰 무리는 없지만 이를 세분하여 편년하면 시·공간적으로 취락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 후반에 대한 세부편년의 틀을 마련하면 <표 9>와 같다.

15)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의 경우 절상돌대문, 古式이중구연토기와 함께 마연토기 또한 공반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계통 및 편년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6) 과거 가락동유형의 주거형태의 특징인 초석식기둥·(석상)위석식노지에 이해부족으로 조사과정에서 石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창평동 5호 주거지의 경우 기둥은 주공형식이고 원고기술을 참고해 보면 애초에 위석식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표 9] 전기후반 세부편년안

	단계	주거형태	토기문양		대표유적
전기 후반	역삼동·혼암리유형단계	역삼동·혼암리식주거지	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문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단사선문 이중구연+공열문+단사선문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		울산천곡동 나지구 울산굴화리장검 II 울산선암동 울산교동리 I 신화리(울발연)
	역삼동·혼암리+검단리유형단계	역삼동·혼암리식주거지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공열문+ 단사선문(날알문) 이중구연+구순각목+ 공열문+단사선문 이중구연+공열문+ 단사선문	공열문+단사선문 공열문+날알문 공열문+X자문 공열문+구순각목	천상리취락유적 울주 굴화리 백천들 울산매곡동 I 울산천곡동가재골 I 울산장현동 I ~IV
	검단리유형단계	울산식주거지	공열문+날알문 공열문+X자문	공열문, 날알문, 횡선문	울산연암동산성 울산중산동약수 II 울산상연암 울산서동 울산명산리

2. 울산지역 취락의 형성

인간(집단)이 한 지역을 점유하여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지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입지의 선정은 당시 생계방식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며 생계방식은 변화하므로 입지의 선정이나 취락의 배치 또한 시간적 추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안재호(2000)에 따르면 충적대지에 위치한 하남미사리유적 등의 평지형취락은 주로 밭 경작이, 천안 백석동유적과 같은 산지형취락은 화전경작이, 이후 후기단계 일반적인 구릉형취락은 평지나 곡부에 수전조영을 중심으로 한 농경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형원 2009 再인용).

취락형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안재호(2006)의 경우 點(조기)→線→面→多面(전기)→點面聯立→球心(후기)로 파악하고 이형원(2007)또한 이와 같은 맥락인 점상취락→선상취락→면상취락 등으로 파악했다. 반면 이홍중(2007)의 경우 후기에 국한하여 보다 입체적인 차원에서 취락의 위계에 주목하여 塊村形, 列村形, 點村形, 廣場村形, 環村形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안재호(2006)와 이형원(2007)의 경우 시간의 추이에 따른 취락의 형태변화를, 이홍중(2007)의 경우 특정 시기 내 취락의 구조변화에 착안한 분류로 이해된다.

한편, 울산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태화강·동천강·회야강·외항강과 같은 수계가 東流하여 동해로 유입되고 포항·경주·울산·양산·부산으로 이어지는 구조곡이 발달하여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매우 유리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취락의 형태 또한 언급한 연구자들의 패턴과 軌를 같이 한다. 울산지역의 시기별 취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기의 경우 유적 내에서도 點狀의 형태를 보이나 울산의 경우 자료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태화강수계의 구영리나 동천강수계의 창평동에서 확인되는데 점상으로 존재하는 유적의 특성상 분포 패턴이 울산 전역에 점상으로 散在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양 유적 모두 평지에 입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기의 경우, 전반에 관산리식주거형태나 역삼동·혼암리식주거형태가 구릉의 상부에 단독 또는 근거리에서 2~3동 직렬상으로 형성된다. 태화강수계의 교동리나 구영리, 동천강수계의 창평동이나 천곡동 나지구, 회야강수계의 외광리 등에서 확인된다. 후반이 되면 역삼동·혼암리식주거형태와 울산식주거형태가 混在하는데 양 주거형태(군)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공간에서 3~5동 정도 군집을 이루어 취락이 형성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의 분포상으로만 본다면 이 시기에 울산전역에 취락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세부적으로 <표 9>의 전기후반 중간 단계 자료의 수가 가장 많다.

후기는 전기후반에 비해 양적 증가가 다소 떨어진다. 주로 울산식주거형태가 구릉의 말단부에 군집해서 취락을 이루

며 환호가 등장하거나 구릉 정상부에 空地(광장)를 두고 취락이 형성된다. 특히 후기의 경우는 구릉 말단부에서 짧은 시간차를 보이는 울산식주거지의 非시간차적 중복이 심한 양상과 구릉 정상부에 空地나 環溝와 같은 의례적 공간을 두고 방사상으로 중복 없이 취락이 형성된 二元的 양상을 보인다. 분포상 특징은 전기와 동일한 울산 전역이다. 신석기~청동기 전환기 자료가 거의 없는 울산의 경우, 한반도 남부지역을 경유한 서북농경민 혹은 그러한 물질문화를 이어 받은 차세대 집단의 유입에 의해 청동기사회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천선행 2014·2015 등) 그 공간적 시작은 대표 수계인 태화강유역이나 동천강유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기 전반 이전 자료가 없는 동남해안지역이나 서북·서남 내륙권은 이른 시기 태화강·동천강수계에서 형성된 취락이 시간에 따라 공간적 확장을 한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중심취락과 거점취락

[표 9] 청동기시대 후기 중심취락·거점취락에 대한 諸이론

연구자	이론
김범철 (2005·2006)	중서부지역의 정치체 존재에 대한 분석 금강 종류의 일부 정치체는 3단계의 위계(상위 중심지-하위중심지-일반부락)를 형성
송만영 (2006)	취락의 위계에 의한 분석 위계가 높은 취락일수록 다양한 기능을 수행
안재호 (2004)	취락의 분업화에 대한 분석 葬儀중심취락(오석리)+貯藏중심취락(대흥리)+耕作중심취락→분업적 복합형 취락(관창리)
김장석 (2008)	취락의 분화에 대한 분석 소비전문유적, 저장전문유적, 일반유적
이형원 (2009)	단위취락의 공간구조 분석 상위취락:주거공간+저장공간+분묘공간+생산공간+의례공간 중위취락:주거공간+저장공간+분묘공간 일반취락:주거공간/주거+저장공간/주거+분묘/주거+저장+少분묘
이수홍 (2015)	환호유적 검토를 통한 취락간 계층화 분석 거점취락의 존재 상정

중심취락과 거점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기 취락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표 9).

현재 취락고고학에서 이른바 ‘중심취락’이나 ‘거점취락’ 등의 계층화에 의한 기능적 취락의 연구는 비교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적은 없는 형편이다. 다만 그 간의 연구를 요약해 본다면, 일반취락에서 물리적 성장을 거쳐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취락’이 되고 이러한 중심취락이 모여 일정한 공간적 영역에 있어서 정치·사회적으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취락’으로 발전하는 양태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또한 중심취락과 거점취락의 등장은 해당 사회의 위계와 계층화에 따른 소산임은 自明하며 이러한 발전단계는 시간적 추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복잡화에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심취락과 거점취락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취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동기시대 취락 간 위계의 발전단계는-한반도 남부지역의 일반적인 경우-조기~전기전반 개별 주거 내 단독 세대공동체에서 주거지 간 군집현상이 간취되는 전기 후반에 발생하여 후기에 완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⁷⁾ 울산지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역 내 조기~전기전반의 경우 유적 간 위계의 발생에 대한 징후는 간취되지 않는다. 전기 후반이

되면 각 권역별로 취락의 양·질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시점이 위계화·계층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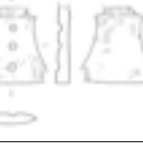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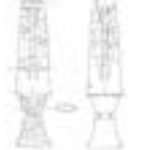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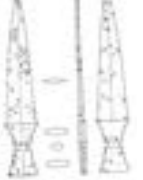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울산지역은 전기후반이 되면 각 권역별로 취락의 양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하지만 취락의 양적 변화가 일어난 현상 자체로 해당 유적을 중심취락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위계화·계층화된 물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덤·환호·(대형)굴립주·생산유구(경작) 등의 부속시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전기후반의 경우는 취락 내에 상기의 부속시설 확인이 거의 드문 편이다. 또한, 해당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위계 또는 계층화를 논할 수 있는 유물의 등장도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울산지역 전기후반 취락에서 그러한 유물로 상정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른바 ‘裝飾石劍(황창한 2008)’을 들고 싶다. 黃昌漢(2008)은 장식석검에 대해 주로 신분의 상징이나 의례와 관련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정 유물을 소유한 개인이 나타나고 그러한 유물이 의례와 관련이 깊은 것이라면 지역사회에서 계층화·위계화가 나타난 최초의 징후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다. 울산지역에서 장식석검의 출토에는 울산 교동리 I(울문연 2013), 울산 신화리(동

아대 2010), 울주 구수리(울발연 2004), 울산 구영리Ⅳ지구(울발연 2007), 울산 굴화리·울리(중문연 2006), 울산 중산동 약수(울문연 2007), 울산 효문동 산68-1(대동 2011), 울산 호계·매곡동(동아세아 2011) 등으로 모두 전기 후반~후기전반으로 편년되는 자료이다.¹⁸⁾

지역적으로는 주로 태화강(상류)·동천강유역권에 한 국한되는 특징을 보인다. 주로 주거지 혹은 무덤에서 출토되고 공반하는 토기는 역삼동·혼암리식토기로 점단리유형 등장 前단계이다. 따라서 울산지역 전기 후반은 해당 유적 단계부터 사회적 요구나 필요에 의한 계층화·위계화의 萌芽가 엿보이며 이러한 유적 단계부터 중심취락의 발생 시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장식석검의 분포가 영남지역 암각화 분포권과 동일한 점이라는 의견(黃昌漢 2008)을 반영한다면, 전기후반 상기 유적 간 특정 유물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유적에서 간취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장식석검이 확인되는 대부분의 유적에서 주거지 내 적석행위가 일어나고 단도마연토기의 출토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주거지 내 적석행위는 이수홍(2015)등에 의해서 연암동형 주구와 함께 의례행위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주로 태화강·동천강 유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요컨대, 지역 내 특화된 유물인 장식석검과 주거지 내 적석행위 그리고 단도마연토기의 존재는 의례를 표방하는 유력개인의 등장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유적	유구	장식석검
교동리 I (울문연 2013)		
신화리 (동아대 2010)		
구수리 (울발연 2004)		
구영리Ⅳ (울발연 2007)		
굴화리·울리 (중문연 2006)		
효문동 산68-1 (대동 2011)		

[그림 4] 울산지역 전기후반 장식석검 출토 주요 유적

17) 전기전반으로 편년되는 청원 대울리환호취락(中央文化財研究院 2005)의 경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환호취락으로서 상위집단과 일반집단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자료이나 이형원(2009)은 이에 대해 이 시기에 일반화할 수 없는 독특한 유적으로 간주하였다.

18) 沈奉謹(1999)에 의하면 신화리(동아대 2010)유적 출토품이 가장 古式에 속한다.

계층화-위계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적극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

이후 후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前시기 중심취락을 중심으로 잉여생산물의 증가와 사회 구조적 복잡화로 인해 여러 부속시설을 갖춘 이른바 ‘거점취락’이 등장한다. 다만 울산지역에서는 그러한 부속시설을 갖춘 대규모 취락의 확인 사례가 후기에도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환호시설에 주목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李秀鴻(2015)은 환호의 기능에 대해 제의적 시설로 인지하고 그 주변취락의 복합체를 거점취락으로 상정하였다. 울산의 신화리, 검단리, 봉계리, 천곡동일대(추정), 봉계리일대(추정), 천상리, 명산리, 신현동, 연암동 등 대체로 10km 거리에 하나씩의 거점취락이 존재했다고 분석했다.卓見이 아닐 수 없지만, 제시한 환호유적과 상정한 취락간의 동시기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취락 간 동시기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해당 취락의 사회적 유기성을 방증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는 점이 아쉽다.¹⁹⁾

그렇다면 울산지역의 거점취락의 존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측면에서 거점취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취락과 위계·계층적 분화현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례(무덤), 생산(논), 저장 등의 취락 내 부속시설로 반영되는데 울산지역의 경우, 의례(무덤)와 생산(논)의 흔적만 확인 될 뿐, 송국리취락과 같은 대규모 저장시설이 설치된 기능적 거점 취락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규모적인 측면에서 개별 주거지의 수가 100~200동 가량 확인된 대형 취락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한 지역 내 누세대적 수량일 뿐, 거점취락으로서의 사회적 의미는 없다.²⁰⁾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후기 거점취락의 상정에 주안점을 둘 요소는 현재까지 확인된 의례공간(환호·무덤 등)이나 자료적 차원에서 희소성을 가지는 생산시설(논) 등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후기 중서부지역에서 보이는 주거+저장+분묘+생산+의례 등이 복합된 기능적 최상위취락(이형원 2009)은 울산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울산지역 자료로 보는 한 주거+생산, 주거+의례 등의 기능만을 담당했던 중·하위 개념의 취락이 지역 내에서 기능적으로 상위취락의 개념에 가장 근접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은 태화강유역의 울산교동리 I (환호), 무거동 옥현C지구(논), 천상리취락유적(환호), 울산굴화리·다운동(석판묘), 동천강유역의 울산상연암(석판묘), 매곡동신기유적(연암동형주구), 울산호계·매곡동(연암동형주구), 울산신천동냉천(논), 울산화봉동(논), 회야강유역의 울산동천리(주구 토광묘), 울산검단리(환호, 석판묘), 덕신리(석판묘), 동남해안권의 울산명산리(환호), 울산산하동(석판묘), 울산신현동황토전(석판묘), 등이 있다.²¹⁾

울산지역에서 거점취락이라 할 만큼 복잡화·심층화된 취락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영위했던 생계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은 많은 주거지 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취락입지가 늦은 시기로 갈수록 구릉 사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개별주거 간 동시기 중복현상도 매우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은 잦은 이동에 의한 ‘한시적 공간점유’를 의미하고 그로 인해 복잡화·전문화된 취락에 대한 당시 사회적 요구가 결여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울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을 대상으로 취락의 의미와 편년, 중심취락과 거점취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울산지역은 단위면적 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동기시대 유적을 보유한 곳이고 검단리마을유적이라는 학사적 발굴조사를 통해 환호취락의 존재가 최초로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울산지역의 자료를 망라하여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편년을 시도 한 다음, 각 시기별 취락의 의미를 살피

19) 물론 현 시점에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 안재호(2009) 또한 거점 취락에 대해 단순히 취락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무덤이나 제사유구 등이 확인되고 주거의 배치에서 구심적 구조가 보이며 수장 또는 수장층이 거주하는 공간이 확보되는 취락을 거점취락으로 정의한 바 있다.

21) 이 외에 울산 방기리 취락유적(창원대학교 박물관 2003)의 환호는 조성 시기에 대한 뉘앙스가 있어 논외로 한다.

고자 하였다. 전기후반 ~ 후기전반까지 취락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의미한 현상을 간취하였고 특정 유물을 통해 취락의 계층화가 일어나는 가정도 상정해 보았지만, 많은 부분 정리수준에 그쳤음을 자인한다. 결과 또한 전국의 취락유적에 비해 사회 구조적 복잡화·심층화가 두드러지지 않아 미완의 분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 향후 보다 발전된 접근법을 통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문헌〉

-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 大學院 碩士 學位論文.
- 金承玉,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第60號. 韓國考古學會.
- 金鐘一, 2006, 「景觀考古學의 理論的 特徵과 適用의 可能性」, 『韓國考古學報』第58號. 韓國考古學會.
- 金賢植, 2006, 『蔚山式住居址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 출현배경」, 『韓國上古史學報』第54號. 韓國上古史學會.
- , 2006, 「無文土器시대 住居址 內部的 積石現狀과 意味 -울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嶺南考古學報』第37號. 嶺南考古學會.
- , 2007, 「세대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고찰」, 『東亞文化』2·3 號合輯.
- , 2008, 「蔚山式住居址의 復元」, 『韓國青銅器學報』第2號. 韓國青銅器學會.
- , 2010,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聚落과 共同體」, 『青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 蔚山文化財研究院開院10週年 紀念論文集.
- 배덕환, 2005, 「先史·古代의 地上式建物」, 『東亞文化』創刊號.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 裴眞晟, 2005,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第48號. 韓國上古史學會.
- , 2007,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第40號. 嶺南考古學會.
- , 2007, 「전기무문토기속의 횡대구획문토기」, 『考古廣場』創刊號. 釜山考古學研究會.
- , 2010, 「청동기시대의 울산과 두만강유역」, 『青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 (財)蔚山 文化財研究院 10週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 宋滿榮, 2006,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韓國考古學會.
- 安在皓,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報』第11號. 嶺南考古學會.
- , 1995, 「V. 考察」,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 , 2000, 「韓國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第34號. 韓國考古學會.
- , 2001, 「中期 無文土器시대의 聚落 構造의 轉移」, 『嶺南考古學報』第29號. 嶺南考古學會.
- ,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논문.
- , 2011, 「屬性配列法에 따른 東南海岸圈 文樣의 檢討」, 『韓國上古史學報』第73號. 韓國上古史學會.
- 엄윤정, 2000, 『울산지역 무문토기시대 취락과 죽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蔚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俞炳琿, 2008, 「蔚山檢丹里마을遺蹟의 再檢討」, 『韓國青銅器學報』第2號. 韓國青銅器學會.
-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秀鴻, 2008,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聚落構造의 變化」, 『韓國青銅器學報』第2號. 韓國青銅器學會.
- 李秀鴻, 2010a, 「울산 청동기시대 문화의 성격」, 『青銅器時代 蔚山 太和江文化』, (財)蔚山 文化財研究院 10週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 李秀鴻, 2010b,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周溝形 遺構에 대하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 20週年 記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李秀鴻, 2015, 『檢丹里類型의 研究』, 含春苑. 蔚山文化財研究院 學術叢書 1.
- 李亨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李亨源, 2010,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쟁점」,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쟁점』,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특별전 학술심포지움, 국립중앙박물관.
- 李弘鐘, 1996, 『청동기시대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鄭大鳳, 2012, 『東南海岸地域 出現期 無文土器의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13, 「東南海岸地域 轉換期 無文土器의 系統과 特性」, 『韓國上古史學報』第80號. 韓國上古史學會.
- , 2015, 「青銅器時代 早期 二重口緣土器의 觀察」, 『韓國上古史學報』第89號. 韓國上古史學會.
- , 2016, 「청동기시대 초기 移住와 定着의 고고학적 현상과 의미」, 『考古廣場』第18號. 釜山考古學研究會.
- 千羨行, 2014,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기의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 『湖南考古學報』48輯. 湖南考古學會.
- , 2015, 「청동기시대 초기설정 재고」, 『湖南考古學報』51輯. 湖南考古學會.
- 추연식, 1997,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 학연문화사.
- 黃昌漢, 2008, 「青銅器時代 裝飾石劍의 檢討」, 『科技考古研究』14號. 亞洲大學校 博物館.

*보고서 생략.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중심취락”에 대한 토론문

이형원(한신대학교박물관)

한국청동기학회는 2008년 2월 22일에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와 울산”이라는 주제로 취락분과 제1회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10년전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담당 운영위원으로 워크숍을 기획했던 토론자를 포함하여 당시 학계는 검단리유적 등 환호취락의 존재와 더불어 전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분포 밀도가 가장 높은 울산지역을 주목하고 있었다. 당시 워크숍에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던 이수홍(2008)은 울산지역 취락연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① 정밀한 편년작업의 선행으로 동시성의 확보
- ② 취락간의 위계화문제(중심취락 혹은 거점취락 등)
- ③ 다양한 시기의 유구가 존재하는 구릉에서의 시기별 취락구조 변화
- ④ 무덤자료와 병행할 필요
- ⑤ 저장공, 수혈유구, 굴립주건물과의 관계
- ⑥ 용어의 문제

위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토로자는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10년 만에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해서 보고서와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할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상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 점은 후회막심이다. 어쨌든 2008년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워크숍에 이어서 10년이 흐른 뒤에 울산지역 취락연구의 진전된 성과를 접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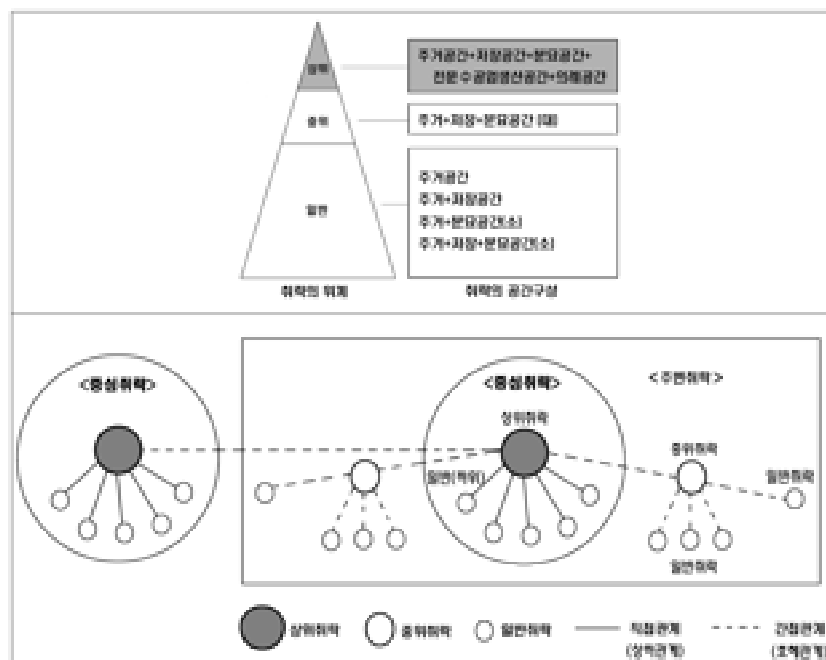
Ⅰ. 중심취락과 거점취락

발표자인 정대봉 선생은 중심취락과 거점취락의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다. 발표문에 의하면 “일반취락에서 물리적 성장을 거쳐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취락’이 되고 이러한 중심취락이 모여 일정한 공간적 영역에 있어서 정치·사회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취락’으로 발전하는 양태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심취락은 거점취락, 대형취락, 대규모취락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취락의 규모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기준으로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중심취락과 주변 취락은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취락의 위계를 대형취락-중형취락-소형취락으로 나누거나(송만영 2006), 최상위중심지-하위중심지-일반부락(김범철 2005), 거점취락-대취락-소취락(안재호 2006), 상위취락-중위취락-일반취락(이형원 2009)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토론자가 상정하는 중심취락은 상위취락과 일반(하위)취락으로 구성되며, 그 관계는 직접적인 종속(상하)관계로 보지만 주변취락과는 간접적인 호혜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림 1>은 호서지역의 중심취락인 부여 송국리 유적과 보령 관창리유적, 그리고 그 주변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취락의 위계와 취락 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발표자가 언급한 거점취락은 일본고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토론자가 보기에 중심취락이나 거점 취락은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발표자처럼 두 용어를 굳이 구분한다면, 거점취락은 유통이나 생산, 저장, 의례 등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취락으로, 중심취락은 이와 같은 특정 기능 취락들을 포괄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위 개념의 취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심취락과 거점취락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자와 토론자는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그림 1] 호서지역 송국리문화 시기 취락의 위계와 취락간 관계 모델(이형원 2014)

II. 전기후반 중심취락의 구성 요소는 장식석검, 주거 내 적석, 적색마연토기인가?

발표자는 울산 교동리 I, 신화리, 구수리, 구영리IV지구, 굴화리, 중산동 약수, 효문동 산68-1, 호계·매곡동유적 등 전기 후반에서 후기전반으로 편년되는 유적에서 장식석검이 출토된 점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취락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장식석검은 신분의 상징이나 의례와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태화강(상류)·동천강유역권에 만 국한되는 특징이라고 한다(황창한 견해 수용). 이어서 “따라서 울산지역 전기후반은 해당 유적 단계부터 사회적 요구나 필요에 의한 계층화·위계화의 맹아가 엿보이며 이를 **중심취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남지역에서 장식석검의 분포와 암각화의 분포권이 동일하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그 분포권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으며, 주거 내 적

석행위(의례행위)와 적색마연토기가 부각되는 현상을 유력개인의 등장과 계층화·위계화 발생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상기 유적들을 모두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적의 사례를 들어 중심과 주변의 관점에서 중심취락의 양상을 설명해주기를 부탁한다.

III. 검단리유형 시기의 거점취락

발표자의 후기, 즉 검단리유형 시기의 거점취락에 대한 것이다. 울산지역의 환호는 제의적 시설이며 그 주변 취락의 복합체를 거점취락으로 상정하고 신화리, 검단리, 봉계리, 천곡동, 봉계리, 천상리, 명산리, 신현동, 연암동 등 대체로 10km 거리를 두고 거점취락이 존재한 것으로 본 이수홍의 견해를 타견이라고 하면서도, 취락간의 동시기성과 사회적 유기성을 방증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았다.

그런데 뒤에서는 “울산지역에서 거점취락이라 할 만큼 복잡화·심층화된 취락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영위했던 생계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은 많은 주거지 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취락입지가 늦은 시기로 갈수록 구릉 사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개별주거 간 동시기 중복현상도 매우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은 잦은 이동에 의한 ‘한시적 공간점유’를 의미하고 그로 인해 복잡화·전문화된 취락에 대한 당시 사회적 요구가 결여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발표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발표자가 언급한대로 울산 전역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3,500기 이상이며, 특히 신화리·교동리유적 일대만 해도 거의 1,000기를 넘는 숫자의 주거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교한 편년 연구에 의한 시간성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양의 주거지의 존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의 마을 규모나 사회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흥미로운 검토대상이다. 다만, 취락의 장기존속성을 반영하는 대규모 무덤군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나 주거와 관련된 부대시설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체의 위상이 높은 대규모의 중심취락(거점취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보다는 생계경제와 관련한 취락의 이동, 즉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집단의 빈번한 거주역 이동 현상으로 추정하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 연구자들이 중심취락(거점취락)으로 분류하고 있는 환호취락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울산지역에서 송국리문화 중심분포권과 같은 거대 무덤을 포함한 대규모 분묘군이나 의례공간, 저장공간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곧 중심취락의 부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발표자가 비판적으로 보았던 환호취락과 주변 취락 간의 동시기성과 사회적 유기성에 대해서 천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심취락(거점취락)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취락의 규모(인구집중), 방어 또는 구획시설(환호,목책), 수장의 거관, 공방의 존재, 창고(저장시설), 신전(의례공간,종교시설물), 장거리 교역과 시장, 지배계층의 거대분묘 등을 들 수 있는데(이상길 2011), 발굴조사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요소가 적절하게 복수로 나타나는 유적이 있는가 하면, 특정 요소만 확인된 유적도 중심취락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울산지역의 경우 현재로서는 제의적이거나 방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호 취락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하여 취락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중심취락의 모습을 그려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중심취락은 자연생태적 환경과 인문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다른 취락구성과 사회조직을 나타낼 것이다. 청동기시대문화의 지역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중심취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수홍, 2008,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와 울산』,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워크숍(1회) 발표
요지, 한국청동기학회.
- 이상길, 2011, 「남부지방 무문토기시대 거점취락과 그 주변」, 『고고학에서의 중심과 주변』, 제20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자료집, 영남고고학회
- 이형원, 2014, 「취락과 사회구조」,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聚落』, 서경문화사.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제2발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토기의
변화상과 의미

발표 : 김현식(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배진성(부산대학교)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토기의 변화상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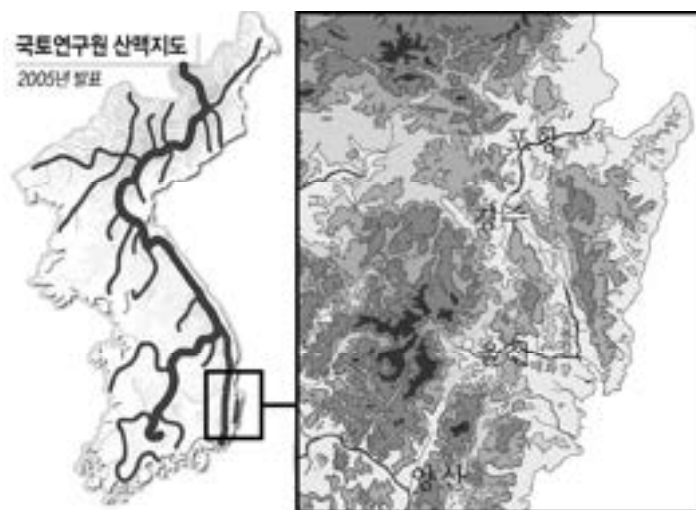
김현식(울산문화재연구원)

1. 머리말

이번 발표에서 발표자가 맡은 주제는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토기의 전개양상’이다. 발표에서 다룰 내용이 울산지역 무문토기의 전개양상이므로 울산지역 무문토기의 변화상을 통해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검단리유형’이라는 문화유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검단리유형의 분포권은 태백산맥 동쪽의 포항-경주-울산-양산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비교적 넓은 분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지역이 울산지역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의 문화상을 파악하면, 검단리유형의 문화상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검단리유형은 검단리식토기와 울산식주거지를 표지로 하는 문화유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울산지역 무문토기의 전체적인 변화상과 더불어 검단리식토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출현했는지도 살펴보겠다. 아울러 울산지역의 무문토기의 변화상이 남한 무문토기의 변화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림 1] 검단리유형의 분포범위(김현식 2006에서)

II. 울산지역 무문토기의 변화상

울산지역 무문토기의 변화상은 사실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기존연구들도 서로 견해차이가 크지 않아 이미 어느 정도 정설로 굳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발표자 역시 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적 있으며(김현식 2013), 발표자의 견해 역시 기존의 통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이 무문토기의 편년에서 중요한 속성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기종보다 토기의 문양이다. 물론 기종의 변화도 중요한 속성이지만, 기종의 변화폭보다 문양의 변화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무문토기의 변화상은 무문토기 문양의 변화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토기문양의 편년을 통해 울산지역 무문토기의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년방법의 방법은 발생순서배열법을 기본으로 하고 방사성탄소연대(AMS)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1. 분류

편년대상이 되는 무문토기 문양을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토기문양은 크게 복합문양과 단독문양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복합문양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문양, 구순각목공열문, 단사선+문양, 날알공열문으로 구분하였다. 단독문양은 이중구연문, 돌대문,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날알문, 공열문으로 세분하였다. 각 문양의 세부적인 형태나 묘사는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표 1] 토기문양의 분류

	분류	비고
복 합 문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문양	이중구연단사선+공열or구순각목or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문과 공열문이 함께 시문
	단사선+문양	단사선+공열or구순각목or구순각목공열
	날알공열	날알문과 공열문이 함께 시문
단 독 문	이중구연	
	돌대문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유상돌대문을 포괄함
	구순각목	
	단사선	시문도구를 그어서 시문
	날알문	시문도구를 찍어서 시문
	공열	돌유문을 포괄함

2. 변화상

무문토기문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별문양 자체의 차이보다는 개별문양의 조합에 의한 차이가 훨씬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무문토기문양의 변천이 문양 자체보다는 문양의 조합이 변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합문양을 중심으로 순서배열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2>이다.

[표 2] 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순서배열

	복합문					단독문						탄소연대 (B.P)	시기구분
	이중 구연 단 사 선	이중 구연 단사 선+ 문양	구순 각목 공열	단 사 선 + 문양	날알 공열	이중 구연	돌 대 문	구순 각목	단 사 선	공열	날알		
구영리 V-1 28호						●	●			●		3010±60	초기
달천5		?				●				●		2865±21	
천곡나3	●	●								●			
교동(무학)9	●	●						●		●		2835±20	전기 I
천곡나1	●	●											
가재골 I 1	●	●		●									
신화리 E-1,15	●		●										
호계매곡동25호	●									●			
교동리유적14호		●											
장검 II 14		●	●	●					●				
교동리유적9호		●							●			2780±20	전기 II
가재골 I 16		●		●									
호계매곡동13호		●											
굴화리백천들32호		●											
비석골1		●								●		2910±50	
교동리유적3호		●											
가재골 III 19			●							●			
신화리 E-1,45			●							●			
신화리 III 48호			●	●						●			
방기48			●							●			
외광리8			●							●		2430±50	
가재골 III 26				●						●			후기 I
가재골 I 29				●						●			
산하동4				●						●		2240±60	
가재골 I 17				●						●			
가재골 II 6				●						●			
매곡동508 II 13				●	●					●			
무거옥현 C22호				●						●	●		
호계매곡동42호				●					●				
호계매곡동38호				●					●			2816±24	
호계매곡동84호				●					●				
호계매곡동83호				●					●				
호계매곡동71호				●						●			
굴화리백천들34호				●								2840±50	
호계매곡동46호				●						●			

호계매곡동44호				●					●			
교동리유적73호				●					●			
호계매곡동33호				●							2808±25	
호계매곡동32호				●						●		
호계매곡동19호				●	●						●	
호계매곡동8호				●								
호계매곡동7호				●								
호계매곡동4호				●					●	●		
교동리유적75호				?							●	
가재골Ⅲ24					●					●	●	
매곡동508Ⅲ11					●					●		
신화리Ⅲ6호					●							
매곡동508Ⅱ2					●						●	
매곡동508Ⅰ1					●						●	
매곡동330-2,17					●					●	●	
가재골Ⅱ9					●					●	●	
중산동약수Ⅱ30					●						●	
무거옥현C46호									●	●		
호계매곡동64호									●			2843±27
호계매곡동6호									●	●		
교동리유적7호									●			
방기24										●	●	
정자동32										●	●	
검단리36										●	●	
신화리E32										●	●	
가재골Ⅲ3										●	●	
교동456-11										●	●	
장검Ⅱ7										●	●	
중산동약수Ⅱ10										●	●	
정자동19										●	●	
가재골Ⅲ16										●	●	
검단리69										●	●	
호계매곡동43호										●	●	
호계매곡동29호										●	●	
매곡동508Ⅰ3										●	●	
검단리44										●	●	
교동리유적105호										●	●	2670±20
교동456-12										●	●	
신화리E22										●	●	
정자동26										●	●	
연암2										●	●	
신화리Ⅲ30호										●		
무거옥현B4호										●		
신화리Ⅲ22호										●		
신화리Ⅰ45호										●		
무거옥현C26호										●		
신화리Ⅲ19호										●		
신화리Ⅲ8호										●		

후기Ⅱ

신화리 I 25호											●		
무거옥현C9호											●		
신화리 II 10호											●		
신화리 II 21호											●		
무거옥현C4호											●		
무거옥현C5호											●		
신화리 III 49호											●		
무거옥현C13호											●		
호계매곡동76호											●		
신화리 I 8호											●		
신화리 III 42호											●		
호계매곡동81호											●		
무거옥현C35호											●		
호계매곡동18호											●		
무거옥현A2호											●		
무거옥현C51호											●		
신화리 II 50호											●		
호계매곡동90호											●		
무거옥현C14호											●		
교동리유적32호											●		
교동리유적108호											●		
무거옥현C67호											●		
교동리유적110호											●		
호계매곡동26호											●		
신화리 I 10호											●		
신화리 I 36호											●		
신화리 III 29호											●		
호계매곡동52호											●	2617±25	
호계매곡동53호											●		
교동리유적83호											●		
무거옥현C55호											●		
신화리 I 29호											●		
굴화리백천들5호											●		
호계매곡동60호											●		
무거옥현C57호											●		
무거옥현C38호											●		
호계매곡동16호											●		
교동리유적113호											●		
교동리유적65호											●		
굴화리백천들20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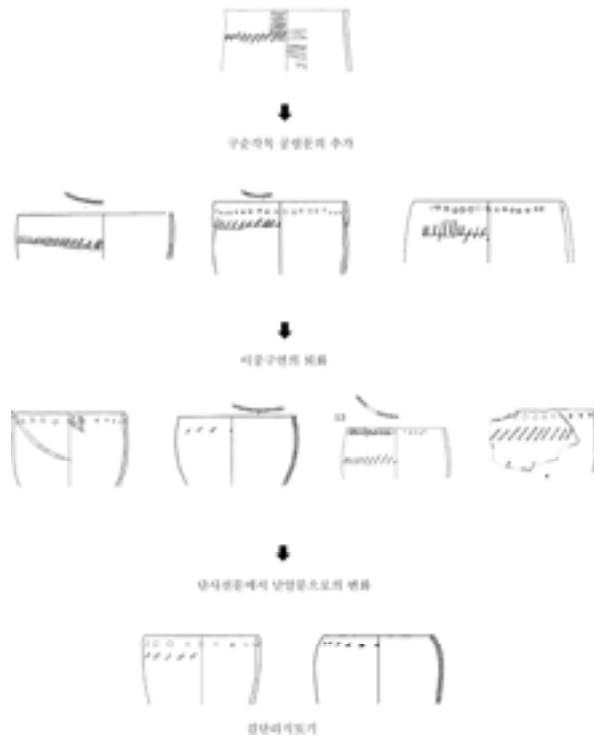
교동리유적71호											●			
굴화리백천들24호											●			
교동리유적67호											●			
임암리(울발)12호												●	2330±40	후기Ⅲ
굴화리백천들3호												●		
굴화리백천들8호												●		
신화리Ⅰ 31호												●		
교동리유적127호												●		
임암리(울발)8호												●		
무거옥현C36호												●		
굴화리백천들7호												●		
신화리Ⅱ 24호												●		
교동리유적54호												●		
입암리18(울문)												●		
호계매곡동27호												●		
입암리11(울문)												●	2396±24	
굴화리백천들4호												●		
교동리유적119호												●		
호계매곡동62호												●		
신화리Ⅱ 13호												●	2640±60	
호계매곡동39호												●		
임암리(울발)7호												●	2420±40	
입암리15(울문)												●		
입암리19(울문)												●		

토기문양에서 돌대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양들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문양의 소멸순서는 이중구연과 구순각목문이 가장 먼저 소멸하고 단사선 문은 점차 퇴화되어 난알문으로 변이한다. 공열문은 가장 늦게까지 존속하여 난알문과 공존기간을 거치다 소멸한다.

[표 3] 울산지역 무문토기 문양의 공반관계

가락동식, 혼암리식, 역삼동식의 공반관계			가락동식, 혼암리식, 검단리식토기의 공반관계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문양	구순각목공열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문양	단사선+문양	난알공열
●			●			
●	●		●	●		
●	●	●	●	●	●	
	●	●		●	●	
		●			●	
					●	●
						●

날알문은 단사선문에서 변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국 날알문이 가장 늦게 출현하고 끝까지 남아 있는 토기문양이다. 날알문이 시문된 토기가 이른바 ‘검단리식토기’라 불리는 토기이다.



[그림 2] 검단리식 토기의 출현과정

울산지역 뿐 아니라 동남해안지역 전체에서 돌대문토기는 출토량이 많지 않고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동남해안지역에서 돌대문토기의 유행기간과 문화적 파급력이 매우 짧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서는 탄소연대이외에 동남해안지방에서 돌대문토기의 시간적 위치를 확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일단 탄소연대가 BP.3000을 전후한 시점에 분포한다는 점과 울산지역은 아니지만 경주 금장리유적에서 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가 다른 전기의 주거지들보다 중복관계에서 빠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이중구연단사선문보다는 다소 이른 시점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이는 잠정적인 것이며, 향후 돌대문토기의 출토예가 많아진다면 돌대문토기의 시간적 위치가 보다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상을 기존의 토기양식 개념으로 설명하면 혼암리식→검단리식'의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울산지역 혼암리식토기에서 비교적 이른 문양은 이중구연계토기(가락동계)이고 구순각목이 다음으로 소멸하고 공열문이 가장 늦게까지 존속한다. 이러한 토기문양의 변화상은 남한 전체의 무문토기 변화양상과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III. 시기구분 및 단계설정

이번 발표에서는 울산지역을 초기-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 전기-가락동식·혼암리식, 후기-역삼동식·검단리식으로 구분하였다. 사실 초기는 확인 예가 적기 때문에 전기에 포함 시켜도 무방하지만, 전기의 문양구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초기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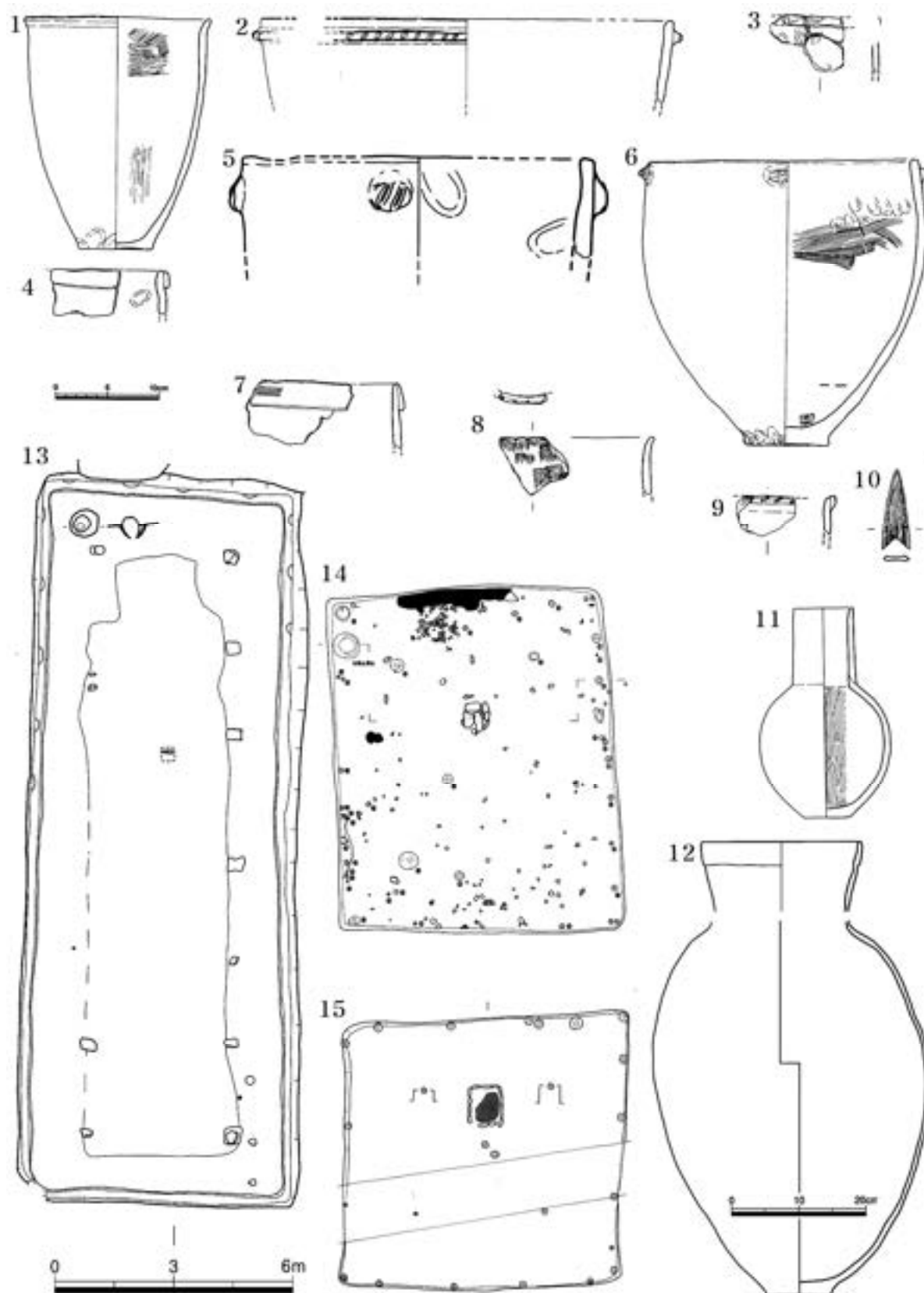
그리고 다시 전기와 후기는 토기양식의 유행에 따라 전기 I·II단계, 후기 I~III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별 특징을 요약한 것이 <표 4>이다.

울산지역 전기와 후기는 토기문양의 형태와 공반관계에서 볼 때 계통성이 인정된다(이수홍 2005; 천선행 2006). 그러나 울산지역의 초기(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는 울산 전기의 토기문양과 형식학적 연결고리가 없다. 따라서 울산지역 초기의 토기문양은 전기의 토기문양은 계통관계에 있지 않다.

울산지역에서 초기는 간헐적이고 제한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포지역을 확정하기 어렵다. 전기~후기II단계까지는 울산지역 전역에서 고루 확인되지만, 날알문만 시문되는 후기 III단계는 주로 태화강 일대의 충적지에 밀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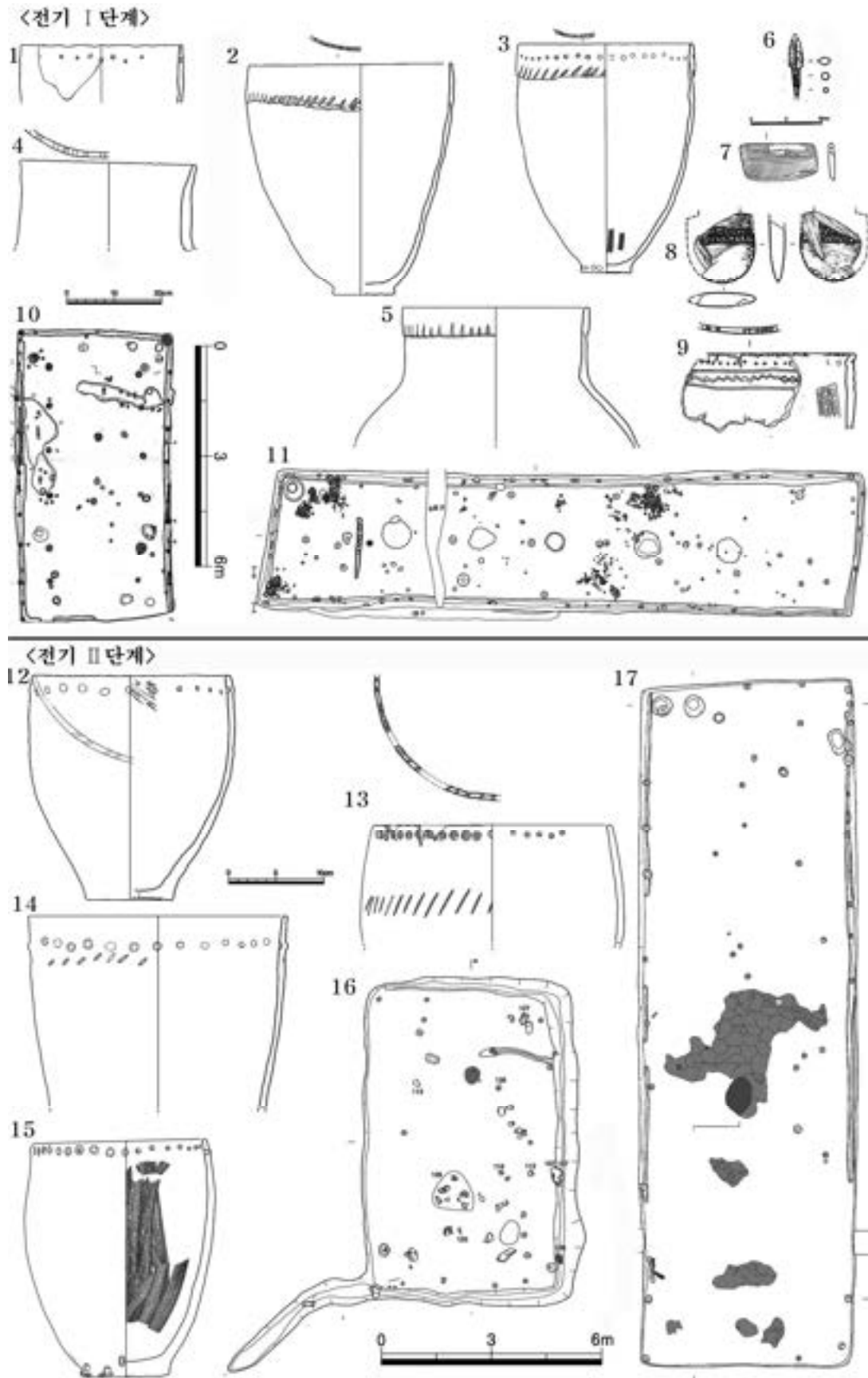
[표 4] 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편년

	시기		토기문양	석기상	주거지	취락
BP.3000	초기	I	돌대문토기	무경식석촉 방형, 어형, 주형석도 공존 주상편인석부 출현	둔산식	초기는 충적지 중심 취락의 규모 작음. 대형 중소형 주거지 공존
BP.2900		전기	가락동식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유행		혼암리식, 관산리식, 울산식 공존	
BP.2500	전기	II	혼암리식토기 유행	무경식, 일단경식 공존 주형석도 급증	울산식주거지 비율 증가함	취락의 규모 커짐 구릉 중심 대형 중소형 주거지 공존
		I	역삼동식토기와 검단리식토기 공존기	일단경식석촉 유행 주형석도 유행	울산식주거지	환호출현 대규모 취락 충적지로 취락이 확대 주거지규모가 작아짐
	후기	II	검단리식토기 유행			
		III	검단리식토기 유행 공열문의 소멸 날알문(횡선문)만 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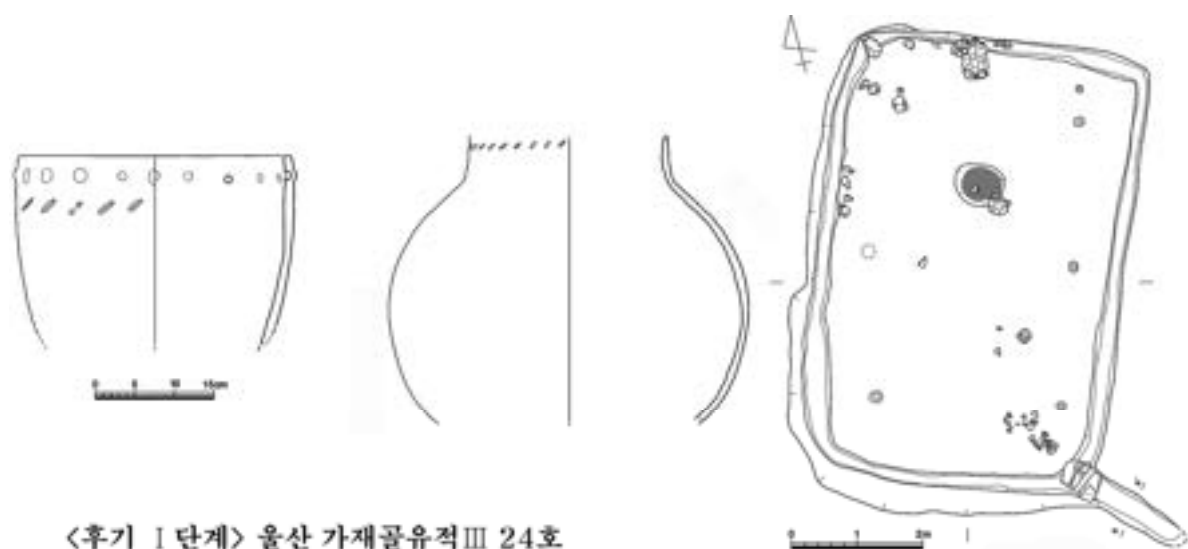
[그림 3] 동남해안지역 초기

(경주 충효동 2호-1·2·3·5·9·10·14, 경주 충효동 3호-6, 경주 금장리 8호-8, 울산 구영리V-1지구 28호-4·7·11·15, 울산 달천3차 5호-12·13)



[그림 4] 울산(동남해안지역)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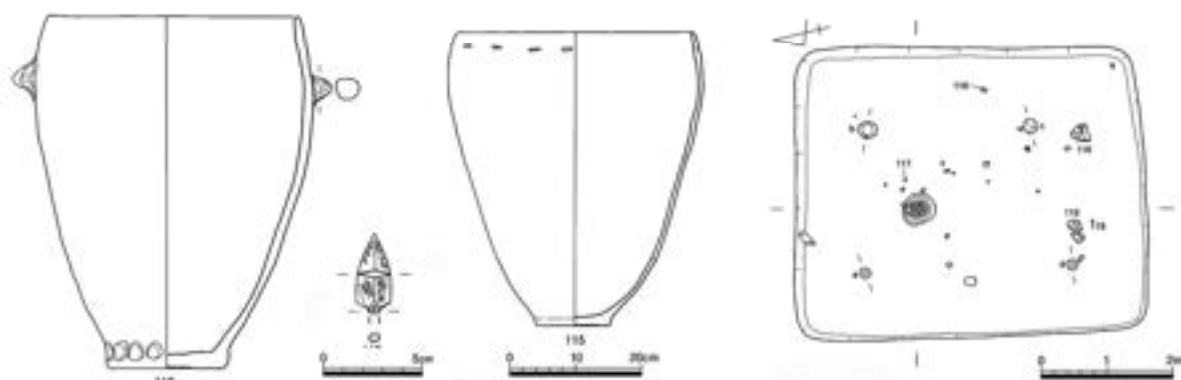
(울산 교동리192-37 9호-1~5·11, 울산 천곡동나지구-6·8·10, 경주 갑산리 1호-7·9, 경주 덕천리 11호-13·15·17, 울산 가재골 I 16호-14·16, 울산 가재골 III 19호-12)



〈후기 I 단계〉 울산 가재골유적Ⅲ 24호



〈후기 II 단계〉 울산 가재골유적Ⅲ 16호



〈후기 III 단계〉 울산 입암리유적 18호

[그림 5] 동남해안지역 후기

III. 병행관계

전술하였듯 울산지역 전기 무문토기 문화는 재지의 조기(돌대문토기)를 계승한 문화가 아니다. 인접한 영남내륙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는 <표 5> 와 같이 편년할 수 있는데(김현식 2011), 대략 영남내륙지역 전기 I 단계말 II 단계초에 해당되는 시기가 동남해안지역 II 단계와 양상이 유사하다. 따라서 영남내륙지역 전기 I 단계 말 정도에 동남해안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남내륙지역 I 단계는 호서지방 가락동II단계(이형원 2002)와 토기문양, 주거지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영남내륙지역 전기 문화는 호서지방 가락동유형II단계 문화가 확산되어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현식 2008a-b).

[표 5] 영남내륙지역 편년(김현식 2001에서 일부수정)

	복합문					단독문					탄소연대 (B.P)	단계
	이중구연, 단사선	이중구연, 단사선,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 구순각목	구순각목, 구순각목	구순각목	구순각목	구순각목	구순각목	구순각목	구순각목		
경산옥곡리A42	●					●						I
서변동46	●					●						
대봉동10	●					●						
대구상동(정화Ⅱ)4	●					●						
대구상동(정화Ⅰ)12	●					●						
대구상동(정화Ⅰ)5	●	●										
대구상동(수성초)14	●	●										
대구대봉동16	●	●				●						
대구상인동7		●				●						
대구상인동5		●				●				3140±50		
대구서변동48		●					●					II
대구대봉동23		●				●						
청도진라71		●				●				2980±60		
대구상동(수성초)16			●			●						
대구상동(수성초)15			●			●						
영천청정3				●		●	●					III
경산옥곡리A46				●		●						
대구대봉동19						●	●					
대구월성1						●	●					
대구서변동42						●	●					
영천청정4						●	●					
청도진라3						●	●			2830±40		

[표 6] 병행관계

		호서지역	영남내륙	동남해안지역
BP.3300-	조기	가락동 I 단계	돌대문토기, 상촌리식토기	
BP.3000-				
BP.2900-	전기	가락동 II 단계	전기 I 단계	
BP.2700-		가락동 III 단계	전기 II 단계	전기 I 단계
BP.2500-	후기		전기 III 단계	전기 II 단계
		송국리유형		후기 I 단계
				후기 II 단계
				후기 III 단계

IV. 맺음말

발표자의 편년은 기존의 동남해안지역 편년(동진숙 2003; 황현진 2004; 이수홍 2005; 천선행 2005; 김현식 2006; 안재호 2007)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물질문화의 변화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약간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영남지역 무문토기 문화는 호서지역의 무문토기가 문화가 확산되어 형성된 문화이고 영남지방의 무문토기문화가 동남해안지방으로 확산되면서 검단리식토기가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현식,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 『한국상고사학보』54.
- , 2008a, 「호서지방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 『嶺南考古學』44호.
- , 2008b, 「남한 초기-전기 문화사적 의미」, 『고고광장』2호, 부산고고학연구회.
- , 2011, 「영남지방 무문토기 양식의 시공간적 의미」, 『동아문화』10,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 , 2013, 「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편년」,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한국청동기학회.
- 董眞淑, 2003, 『嶺南地方 青銅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34, 韓國考古學會.
- , 2007, 「編年을 위한 屬性配列法」, 『고고광장』창간호, 부산고고학연구회.
-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秀鴻, 2008,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 『한국청동기학보』2, 한국청동기학회.
-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鄭元喆, 2012, 「中部地域 突帶文土器의 編年 研究」, 『韓國青銅器學報』11.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57, 한국고고학회.
- , 2006, 「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紀念論』.
- 黃炫眞, 2004, 『嶺南地域 無文土器의 地域性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토기의 변화상과 의미”에 대한 토론편

배진성(부산대)

1. 편년을 위한 분류인 <표 1>을 보면, 이중구연·구순각목·공렬·단사선·날알문 등의 대표적인 문양 및 그 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2>의 공반상으로 보아 전체적인 변천상은 공감된다. 그러나 이 문양들은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의 문양 내에서도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중구연이라고 해도 두께나 상하폭 및 동체와의 접합부분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공렬문도 최소 3~4가지로 대별될 수 있으며, 여타의 문양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런 다양성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대별된 문양과 그 조합으로 작성된 편년은 대략적인 경향성만을 보여주는데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점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2. 그리고 위의 대표 문양 외에 동남해안지역에서는 ‘+자문’·‘×자문’·‘거치문’·‘횡침선문’·‘횡대구획문’ 등의 문양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문양들의 편년적 위치와 공간적 범위 등은 어떠한가? 타지역과의 비교 및 해당 집단의 계통성 파악 등을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3. 머리말에서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의 문화상을 파악하면, 검단리유형의 문화상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검단리유형은 이른바 검단리식토기와 울산식주거지를 표지로 하여 이와 공반되는 고고학적 자료로 설정된 개념인데, 이러한 자료들로 대표되는 ‘문화상’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다소 추상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여타의 유형이나 타 지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구체화 할 수는 없는가?
4. 발표문에서는 문양을 통한 무문토기의 변화상을 검토하였는데, 그러한 문양의 변화에 따른 기종구성의 변화도 함께 살펴본다면 ‘문화상’의 파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표 2>의 편년에 따른 기종의 출현·소멸·조합상의 변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5. 발표문은 제목과 머리말에 표현되었듯이 울산지역 무문토기의 변화상·의미·전개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토기편년이다. 토기의 변화상이 단지 편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종구성의 변천과 이에 따른 생활상의 변천 유추, 편년에 따른 지역권의 범위나 성격의 변화 여부, 지역색의 변화, 전체적인 토기문화상의 변천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 등등 토기 변천을 통해 검토될 부분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맺음말 말미에 간단히 언급된 지역적 계통성 외에 발표자께서 그리고 있는 동남해안지역의 문화상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다.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제3발표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

발표 : 배군열(성림문화재연구원)

토론 : 유병록(세종문화재연구원)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

배군열(성림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고고학문화는 “토기, 도구, 장신구, 매장의례, 가옥형태와 같은 잔류물들의 형식이 거듭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규칙적으로 조합되는 그러한 하나의 복합체를 간단히 ‘문화’라고 부를수 있다”라고 보았고(childe 1929: v-vi; 고든차일드·이성주 번역 2012), 지금의 통용되고 있는 유형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 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특징적인 문화인 검단리유형을 검토하여 그 시간성과 공간성을 파악하였다.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다양하기에 왜? 그리고 어떻게? 검단리유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에 대한 해답을 검단리형의 주거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II. ‘유형론’속의 검단리유형

1. 유형에 대한 諸논의

‘유형’이란 개념은 선사시대 그 중에서도 청동기시대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역사시대의 ‘양식’과 일면 유사하다. ‘양식(style)’은 한국고고학계에서 암묵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형태적 특징(의 조합)’을 말한다. 따라서 양식적 특징을 통해 제작(사용)집단과 시기를 판별 할 수 있다.’라고 동의가 있어왔다(김장석 2008:15). 유형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나 최초로 사용한 이청규는 “일정지역의 공통된 특성을 갖춘 유적 유물 갖추새 전체를 가리키는 문화의 ‘유형’보다는 좁은 의미의 임의적 개념”으로 정의한 후, 남한지방의 무문토기 문화를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 송국리유형, 수석리-연암동유형, 군곡리-늑도유형 등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이청규 1988:90).

그 후 이 ‘유형’의 개념은 박순발에 의해 고고학 문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즉, 그는 ‘하나의 고고학적 문화는 동일한 시간 범주에 드는 여러 유물형식들(assemblage)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박순발 1999:80).’고 하면서, 유물복합체를 ‘유형’이라고 칭하며, ‘동일한 제작사용집단에 의한 제작사용 행위의 산물(박순발 1989:11)’로 규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유형’을 동질적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고학적 동시간대로 포괄될 수 있는 제작·사용집단에 의해 제작·사용된 일련의 유구 및 유물군(박순발 1999:80-81)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고고학문화를 “토기, 도구, 장신구, 매장의례, 가옥형태와 같은 잔류물들의 형식이 거듭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규칙적으

로 조합되는 그러한 하나의 복합체를 간단히 ‘문화’라고 부를수 있다’라고 한 고든 차일드(childe 1929: v-vi; 고든차일드·이성주 번역 2012)의 문화사고고학의 사조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유형론은 청동기시대 문화의 시기적·지역적 변동을 서술해 내기 위해 고고학자의 편의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유물복합체를 인식하기 위한 문화사 편년 작업에서 그쳐야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형을 채택하여 반복 생산한 인간집단의 존재를 전제하거나 유형을 마치 유기체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생성, 지역적인 확장, 그리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이 청동기시대 변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질문화의 유형화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유형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는 규범화된 문화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집단, 그 집단의 이동과 확산, 이웃 유형 집단과의 접촉, 교류, 거리둠으로 묘사할 뿐 적절한 변동의 요인이나 과정의 설명방식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었다(李盛周 2006).

또한 유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유구와 유물을 시간적으로 배열하고 공간적인 문화권을 설정하거나 문화권의 기원지를 추정하는데 천착하였을 뿐, 왜 개별유물이나 유구의 공통적인 양식을 토대로 유형이 설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현상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장석 2008). 본고에서는 ‘유형론’의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2. 검단리유형 연구현황

검단리유적(釜山大學校博物館 1995)은 주거지 중복관계 및 유물의 형식편년을 토대로 환호 사용 이전인 검단리 1기, 환호 사용기인 검단리 2기, 환호 폐기 이후인 검단리 3기로 편년되었다(안재호 1995). 이는 이후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편년의 틀로서 유사성이 큰 양상 속에서의 편년에 적용되다보니 몇몇 개별 형식의 유사성만으로 유적의 시기가 검단리 몇기 등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에 울산지역 대부분의 유적이 전기말~중기 전반이라는 마치 과도기적인 시기에 집중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송국리단계 즉 중기 후반의 울산지역은 극소수의 유적들만이 존재하는 양상이 되어 버렸다(裴眞晟 2005:7).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배진성(2005)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출토 무문토기 구연부 문양의 편년을 실시하여, 전기의 혼암리단계와 중기 전반의 검단리단계로 나뉘는 확인하였다. 즉, 전기의 복합문은 말엽에 구순각목문·이중구연문이 순서대로 소멸하며, 중기 전반에는 복합문의 공열문과 단사선문이 단독으로 잔존하거나 ‘날알문’과 같은 문양으로 변화한다. 또한 ‘횡선문’이라는 새로운 문양이 출현하게 되며, 기존의 심발형토기 기형에 파수가 부착된 파수부심발형토기와 적색마연된 소형옹이 새롭게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토기양식을 ‘검단리식토기’로 설정한 후 그 하한을 중기 후반까지 내려보았다. 이와 함께 석창·동북형석도·단면 타원형 혹은 방형의 토제어망추 등의 특징적인 유물과 4·6주식의 방형·장방형주거지에 외부돌출구를 갖춘 ‘울산식주거지’와 4벽을 각 1매의 판석으로 조립한 평면 방형의 소형석곽묘를 지역적 특징이 결합된 고고학적 문화인 ‘검단리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이 지역문화는 무문토기시대 중기의 포항~경주~울산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주된 배경을 동북지역과의 교류관계에서 찾았다. 그의 연구는 ‘검단리유형’에 대한 연구의 시초로서 의의를 가지며, 검단리유형 연구의 기본 틀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이수홍(2005, 2012)은 검단리유형을 전기의 혼암리식 주거지가 소형화하면서 단수의 노지를 갖춘 소위 ‘울산식주거지’가 사용되고, 횡방향·사방향의 날알문이 새겨진 심발형토기인 ‘검단리식토기’를 표지적 유물로 설정하였다. 무덤은 소형 석관묘, 주구묘, 지상식지석묘가 축조되며 화장이나 세골장과 같은 이차장법이 유행하며, 삼각형석도나 흠이 각진 유구 석부의 출현 빈도가 낮은 반면 특징적 유물로 동북형석도와 원통형어망추가 출토된다고 하여 배진성의 견해와 세부적인 차이만 보일 뿐 거의 동일하였다.

김현식(2005, 2006a·b)도 검단리식토기와 울산식주거지를 검단리유형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하였다. 즉, 검단리식토기는 혼암리식토기의 퇴화된 형태이며, 울산식주거지는 혼암리유형의 관산리식·미사리식 대형주거지가 소형화·정형화된 것으로 보았다. 이 검단리유형의 출현은 후기의 사회변화와 궤를 같이하며, 혼암리유형에서 진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검단리유형을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나 토기의 편년을 토대로 ‘울산식주

거지'와 '검단리식토기'를 표지화하는 지역문화로 파악하였으며, 전기 혼암리유형의 전통이 유지·계승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물질문화의 분포에는 실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 집단의 분포, 상호작용 네트워크, 그리고 인구의 이동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어떤 특정한 물질적 양상을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물질문화의 분포 그 자체는 유물의 양식과 그 상징적 의미, 제작기술, 생산과 분배 등에 따라 복잡하게 중첩되며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집단이나 경계를 염두에 두고 문화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양상과 변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개인과 집단, 그리고 그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즉, 문화란 주어진, 고정된, 전체화된 규준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개체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되는 유동적인 것이다(李盛周 2006).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별 검단리유형 물질문화 구분 기준의 상이함이 참고된다. 즉, 검단리식토기를 정의함에 있어 사방향이나 횡방향의 난알문 출현에 주목(이수홍 2012)하기도 하며, 난알문의 형성 모식도를 통해 사선문계 단독문(3단계)부터를 검단리식토기로 인정하기도 하고(천선행 2005), 난알문 토기를 특징적인 요소로 보되 횡선문과 파수문이라는 새로운 요소의 출현에 주목(배진성 2005)하기도 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의 전통이 유지·계승되었기 때문에 물질문화의 구성이나 분포양상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검단리유형은 유구 또는 유적의 편년이나 문화권 설정에 있어서 하나의 단위로 이용될 뿐, 유형을 구성하는 물질문화에 내재된 인간의 행위와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되었다. 실제 이러한 양식 또는 유형의 성립과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나, 실제 청동기시대 연구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 행위의 원인이나 과정 보다는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단리유형의 출현과 분포양상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주거지의 구조적 속성과 내부 유물의 출토정황을 검토하여 당시의 생활양식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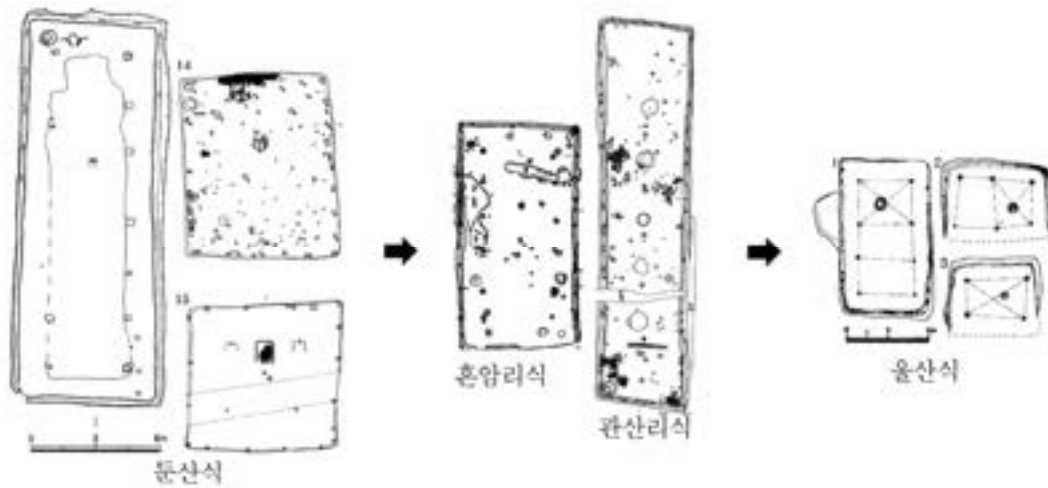
Ⅲ. 검단리유형의 시간성과 지역성

검단리유형은 전기의 혼암리유형 전통이 후기까지 유지·계승된 중·서부지역의 송국리유형과 대비되는 지역문화로 인식된 듯하다. 즉, <그림 1>과 같이 토기의 문양은 전기의 이중구연문계 복합문에서 이중구연문과 구순각목문이 순차적으로 소멸하여 결국에는 공열문과 단사선문만이 단독으로 남게되며, 검단리유형의 표지적 토기양식인 검단리식토기는 위의 단사선문이 압인에서 알날로 변화하고 구연부에 근접하여 짧게 시문된 것이다. 또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지 형태도 초기 또는 전기의 이른시기에는 둔산식의 방형·장방형계의 대형주거지가 전기에는 혼암리식의 장방형 및 관산리식의 세장방형의 중형주거지로 변화하며, 후기에는 방형 또는 장방형의 울산식주거지로 변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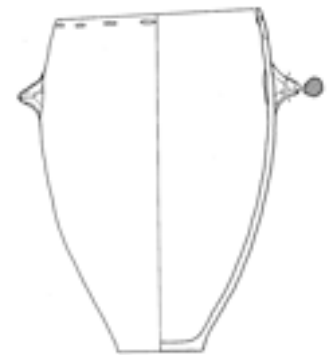
[그림 1] 동남해안지역 토기 문양의 변천과 계통(김현식 2013)

이상과 같이 검단리유형은 전술한바와 같이 대체로 구연부에 난알문(횡선문)이 시문된 ‘검단리식토기’와 방형·장방형의 평면형태에 단수의 노지와 4·6주식의 주혈 구조를 보이는 ‘울산식주거지’를 표지로 하는 지역문화로 보고 있다.



[그림 2] 동남해안지역 주거지의 변천(김현식 2013)

필자도 지금까지 논의된 검단리유형의 표지적 유구·유물에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검단리식토기의 ‘난알문’과 전기의 ‘사선문’과의 구분이 모호하며, 실제로 전기의 구순각목문계 복합문에 결합된 사선문 중에서도 구연부에 근접하여 짧게 눌러 세긴 듯한 예도 관찰된다. 그러므로 단독문인 사선문 중 구연부에 짧게 압날된 토기는 검단리식토기로 분류 가능하나 보고서의 그림이나 사진만으로 시문기법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진성의 의견과 같이 횡방향으로 짧게 압날된 ‘횡선문’과 ‘파수문’을 검단리식토기의 표지적 유물로 파악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3] 검단리식 토기
(검단리유적-36호)

1. 검단리유형의 시간성

검단리유형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후기로 설정하여, 송국리문화와 대별되는 지역문화로 인식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이수홍의 의견(이수홍 2011:42)처럼 울산식주거지에서 전기의 표지적 유물인 무경식석촉과 복합문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는 등 전기와 후기의 문화상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 단계의 분기에서 변화상이 나타난다. 즉, 취락 내 주거의 수가 급증하고, 중서부지방과 두만강유역의 문화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울산식주거지가 발생 및 확산하고, 취락의 구조가 점상취락에서 열상취락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검단리유형의 독자적인 지역성을 나타낸 것으로, 전기의 문화적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후기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검단리유형의 출현은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설정되기에 일률적이지 않고 유적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유형’의 개념 속에는 단순히 토기만이 아니라 도구, 장신구, 매장시설, 가옥형태와 같은 인류의 모든 잔류물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제 유형으로 정의되려면 위에서 언급한 문화요소들이 동일하여야 하나 전기의 문화적 전통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후기의 지역 내 독자적인 문화요소를 형성할 수도 있기에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전기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것은 사방향의 ‘난알문’이며, 후기에 들어 문화적 전통이 변용되어 새롭게 출현한 토기문

양은 ‘횡선문’과 ‘파수문’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동남해안지역의 편년은 대체로 사방향의 압날 사선문인 ‘난알문’과 횡방향의 난알문인 ‘횡선문’을 통칭하여 ‘난알문’으로 분류하여 편년이 이뤄졌다. 이에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와 후기의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단계가 서로 혼재되어 이수홍이 지적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남해안지역 전체 유적을 분석하여 횡선문토기¹⁾가 검출되는 주거지 중 평면형태가 부정확하거나 주거지 폐기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제외한 총 109동의 주거지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 중 주거지 내 단수의 문양요소만 확인되거나 문양요소가 1건만 나타나는 문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60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문양적 속성을 기준으로 순서배열하였다.

[표 1] 검단리식토기 편년표

(단1:사선,단2:공열,단3:횡선,단4:파수,단5:무문,복1:이중구문+사선문,복2:횡선+공열,복3:공열+파수,복4:횡선+파수, 축A:이단경식,축B:일단경식,검A:이단병식,검B:일단병식,도A:직인방형,도B:직인반원형,도C:호인어형,도D:호인선형,부A:양인,부B:편인유단,부C:편인유구,부D:평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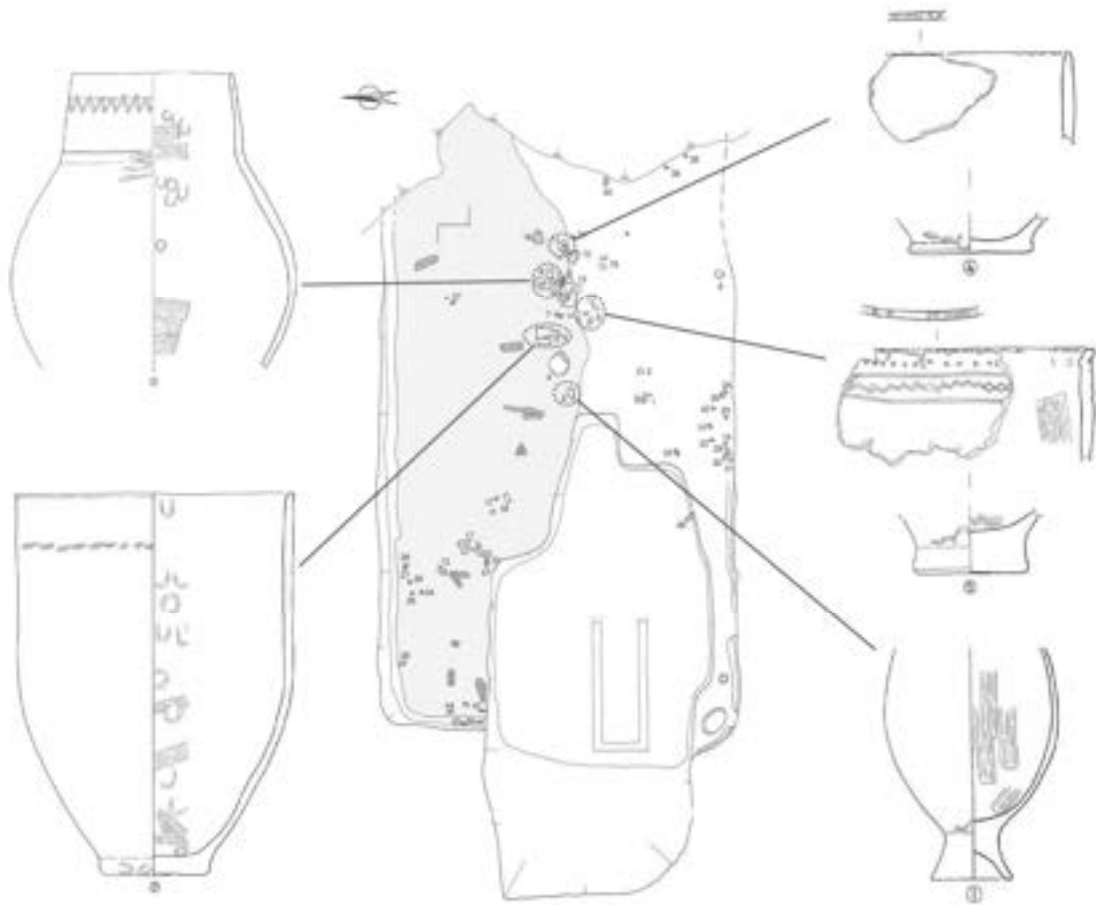
일련 번호	유구명	토기										석기												주거지 면적 (㎡)	절대연대 (BP)	
		단독문					복합문					석촉		석검		석도				석부						
		1	2	3	4	5	1	2	3	4	A	B	A	B	A	B	C	D	A	B	C	D				
1	경주 갑산라-1			■		■	■									■		■	■	■		■	■	58.4		
2	울산 약사동 861번지-4	■	■			■		■					■											31.1		
3	울주 신화리1 A4-Ⅰ 지구-1	■	■					■																29.5		
4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Ⅰ-25	■	■			■			■										■			■		25.2		
5	울산 교동리 192-37번지-4	■	■										■									■		30.1		
6	울산 구수리-2	■	■	■		■				■									■	■				19.6		
7	경주 천군취락Ⅰ-15호	■	■	■		■																■		28.2		
8	울산 교동리 192-37번지-10	■		■		■																		17.3		
9	울산 중산동 약수Ⅱ-20	■		■		■													■					36.5		
10	경주 문산리Ⅱ나-2	■			■																■			27		
11	울산 교동 456번지-12	■	■			■														■		■		12.5		
12	경주 충효도시(신라)-28		■	■	■	■																		25.4		
13	경주 화천리(영남07)-7		■	■		■			■											■				56.2	2780±50	
14	경주 금장리(성림)-下2		■		■	■							■											19.4		
15	경주 천군취락Ⅰ-1		■		■	■													■					15.4		
16	경주 구정동255-1번지-1		■							■							■							38.4	2440±30 2590±30	
17	울주 신화리1 A4-Ⅰ 지구-27	■	■																					20.2		
18	울산 매곡동Ⅲ-18		■			■		■					■											11.2		
19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 1	■				■														■				34.9		
20	울산 다운동 새각단Ⅲ지구-8	■			■	■																		27	2555±60	
21	울산 송정동A-6		■	■															■					30.2		
22	울산 입암리 48-10번지-3	■	■			■							■											21.7		
23	경주 광명동Ⅰ-3			■		■												■			■			14.8	2675±43	
24	포항 구만리-7			■	■					■										■				20.35		
25	포항 대련리 Ⅲ구역 -7			■	■																			33.2		
26	경주 조양동Ⅱ-19			■	■	■												■		■				37.3		
27	경주 죽동리-2			■	■															■				12.8		

1) 안재호는 횡선문토기의 시간적 속성을 구연부와의 거리와 횡선문 사이 시문 간격으로 삼아 검단리유적의 횡선문을 동체부에 시문된 것을 a식, 공열문이 시문되는 구연부에 시문된 것을 b식으로 설정하여 편년한바 있으며, a식이 b식보다는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28	울산 북구 연암동-1			■	■	■														16.7	
29	울산 다운동 대골유적 Ⅱ지구-2			■	■															16.9	
30	울산 서부동 비석골-7			■	■															16.8	
31	경주 광명동Ⅱ-3			■		■				■									■	26.6	
32	경주 산대리-6			■		■					■							■	■	29.1	
33	경주 산대리-12			■		■				■										21.3	
34	울산 호계리			■		■									■					43.2	
35	포항 대곡리-2			■		■					■								■	23.3	2520±60
36	울산 약사동유적 861번지-1			■		■						■				■			■	27.9	
37	울산 약사동유적 861번지-2			■						■										18.1	
38	울산 매곡동 508번지 Ⅲ지구-14			■		■														18.2	
39	울산 서부동 비석골-3			■						■										16.5	
40	울산 신천동 공원부지-4			■		■										■	■			29.6	
41	울주 굴화리 백천들유적-4			■		■														21.12	
42	울산 약사동 393유적 Ⅰ지구-3			■		■							■							37.9	2490±20 2475±20 2505±20
43	울산 호계,매곡동 복합유적-18			■		■														15.8	
44	울산 약사동 평산유적Ⅱ-Ⅱ지구 61			■		■												■		24.9	2680±20 2445±20
45	울산 입암리유적-18			■	■															23.3	
46	울산 입암리유적(울발연)-7			■	■										■					26.3	2420±40
47	울산 정자동 산36-4번지-3				■	■					■									26.2	2740±40
48	울주 굴화리 백천들유적-19				■	■														23.7	
49	울주 굴화리 백천들유적-8			■						■		■								17.3	
50	경주 문산리Ⅱ나-5				■					■		■		■						27	2520±50
51	울산 입암리유적-1				■	■				■									■	16.6	
52	울산 입암리유적-8				■					■										14.3	
53	울산 입암리유적-11				■					■										22.5	
54	울산 입암리유적-19				■					■										27.8	
55	울산 입암리유적(울발연)-14				■					■										26.5	2420±50
56	울산 입암리유적(울발연)-15				■	■														43.9	
57	울산 다운동 대골유적 Ⅱ지구-4					■				■										26.3	
58	울산 검단리-36					■				■										9.3	
59	포항 구만리-2					■				■										21	
60	울산 입암리유적-15					■				■					■					17.9	

그 결과, 전기의 사선문계 전통이 잔존한 ‘낱알문’은 공열문·횡선문의 단독문 및 횡선문+공열문·공열문+파수문·횡선문+파수문의 복합문과 한 주거지 내 동반되어 출토된다. 그러나 2650±50BP를 전후하여 사선문계 ‘낱알문’은 더 이상 횡선문과 공반되지 않고, 공열문·횡선문·파수문의 단독문 및 복합문이 후기 늦은시기까지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공열문·횡선문·파수문의 순서로 구연부 문양이 사라져 무문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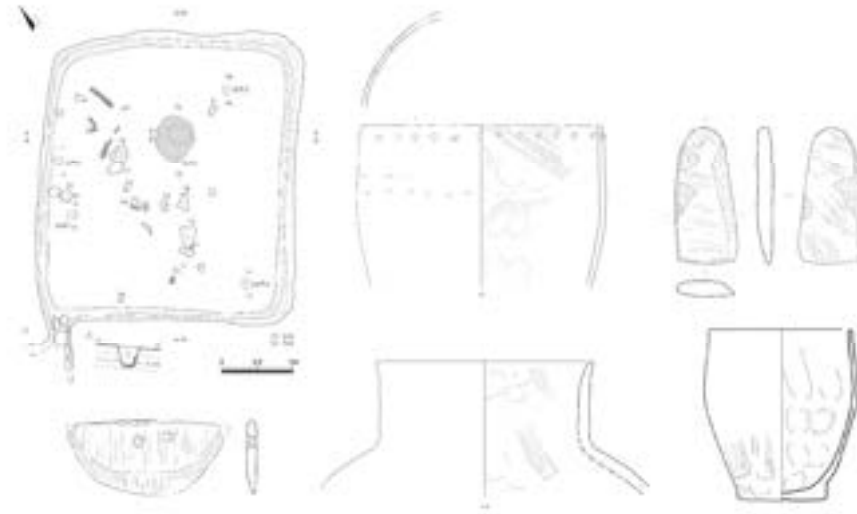
그렇다면 점단리식토기의 표지적 유물인 횡선문은 언제 어디서 출현한 것일까?



[그림 4] 경주 갑산리유적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필자는 전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경주 갑산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에 주목하고 싶다. 갑산리유적은 북쪽으로 기계천, 서쪽으로 칠평천, 동쪽과 남쪽으로 형산강과 통하는 교통로 상의 길목에 자리한다. 이에 어느 방향으로든 문화요소의 흐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며, 2호 주거지의 원통형어망추·4호 주거지의 혼암리계토기·7호 주거지의 동북형석도 등이 이를 대변한다. 그 중 1호 주거지(그림 4)의 횡선문발형토기는 화재로 인해 폐기되어 전기의 표지적 유물인 대부소호와 구순각목문·횡침선거치문의 문양이 시문된 토기들과 함께 공반되었다. 즉, 횡선문토기는 전기 후반의 어느 시점에 경주의 북쪽 외각지역에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 갑산리유적은 동·서의 모든 문화요소를 유입할 수 도, 전파할 수 도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었기에 어떻게 횡선문이 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갑산리유적에서 북동쪽으로 직선거리 6km(도보 1시간 30분)가량 이격된 경주 유금리유적 I-2호 주거지(성림문화재연구원 2013)에서 횡선문이 구순각목문+공열문의 복합문에 시문된 채로 확인되었다. 유구의 시기는 외부돌출구가 중복된 I-1호 주거지(복수의 노지)의 탄소연대측정치가 2650 ± 30 BP임을 참고 할 때 상한연대는 늦어도 청동기시대 후기이다. 따라서 갑산리유적과 유금리유적을 결론만 놓고 비교하면 갑산리유적에서 유금리유적으로 문양요소가 이동하였거나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산리유적에서 서북지역으로 통하는 칠평천유역, 동북지역으로 통하는 기계천 및 형산강상류역, 남쪽으로 통하는 형산강중류역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지만 좀 더 확증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경주 유금리유적 1-2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2. 검단리유형의 공간성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정한 검단리식토기의 문양적 속성과 편년을 토대로 토기 외에 유형을 구성하는 도구, 장신구, 매장 의례, 가옥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자. 유형의 공간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태별 기준, 즉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선행학들의 연구가 참고되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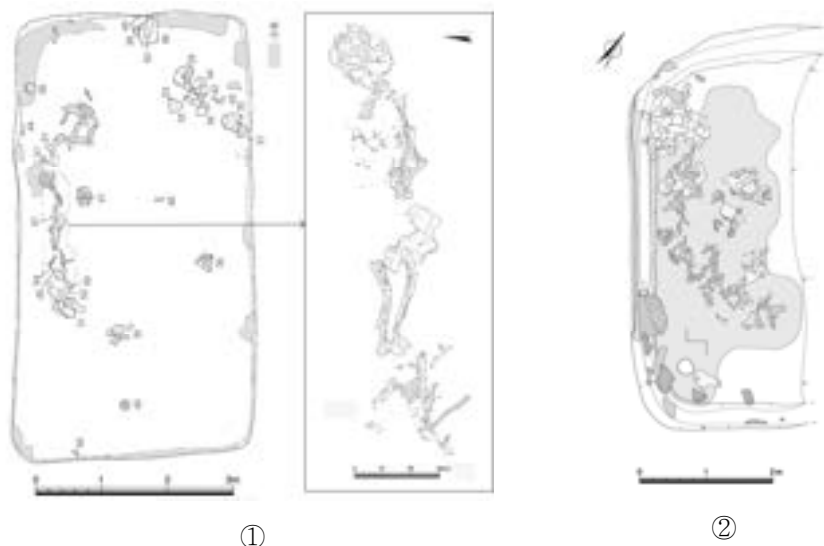
토기 : 날알문·횡선문·파수문이 시문된 발형토기, 적색마연소용

도구 : 동북형석도(남한강유역 가현동7호), 원통형어망추(북한강 천전리, 한강유역 혼암리11호, 익산 영등동)

장신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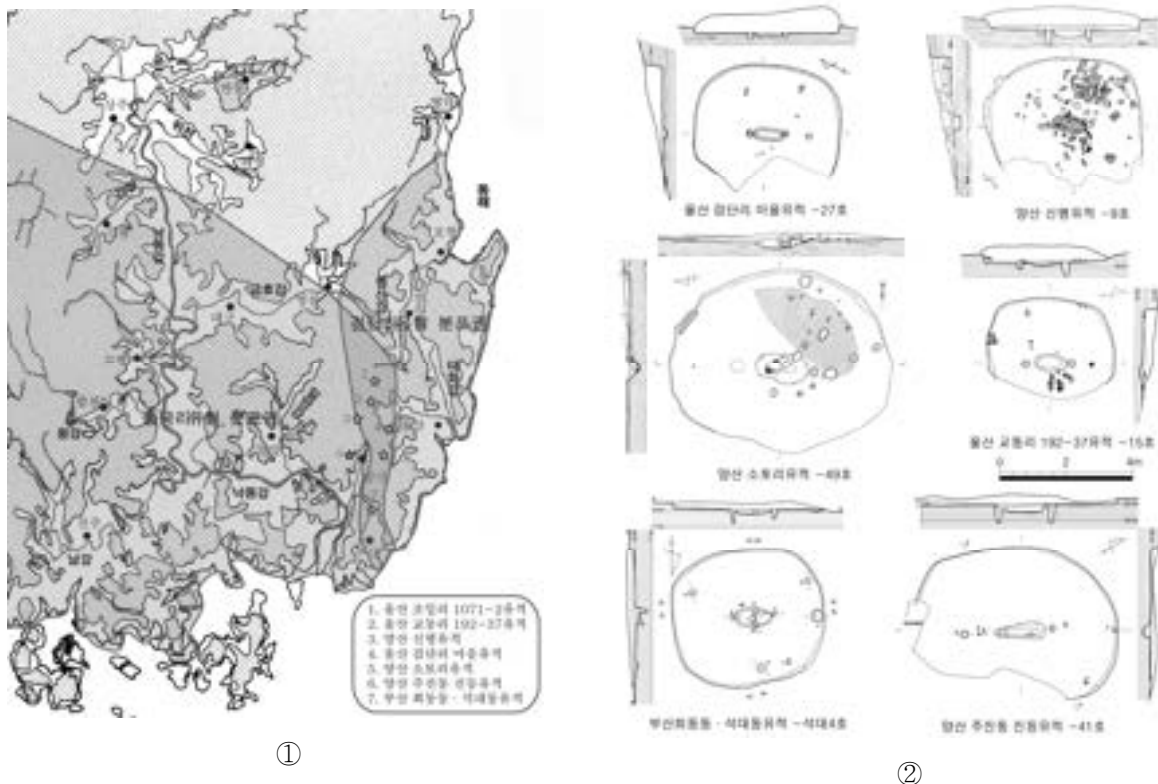
매장 의례 : 소형석관묘, 지상식지석묘, 주구묘, 가옥묘

가옥 : 4·6주식에 단수의 수혈식노지를 가지는 방형 또는 장방형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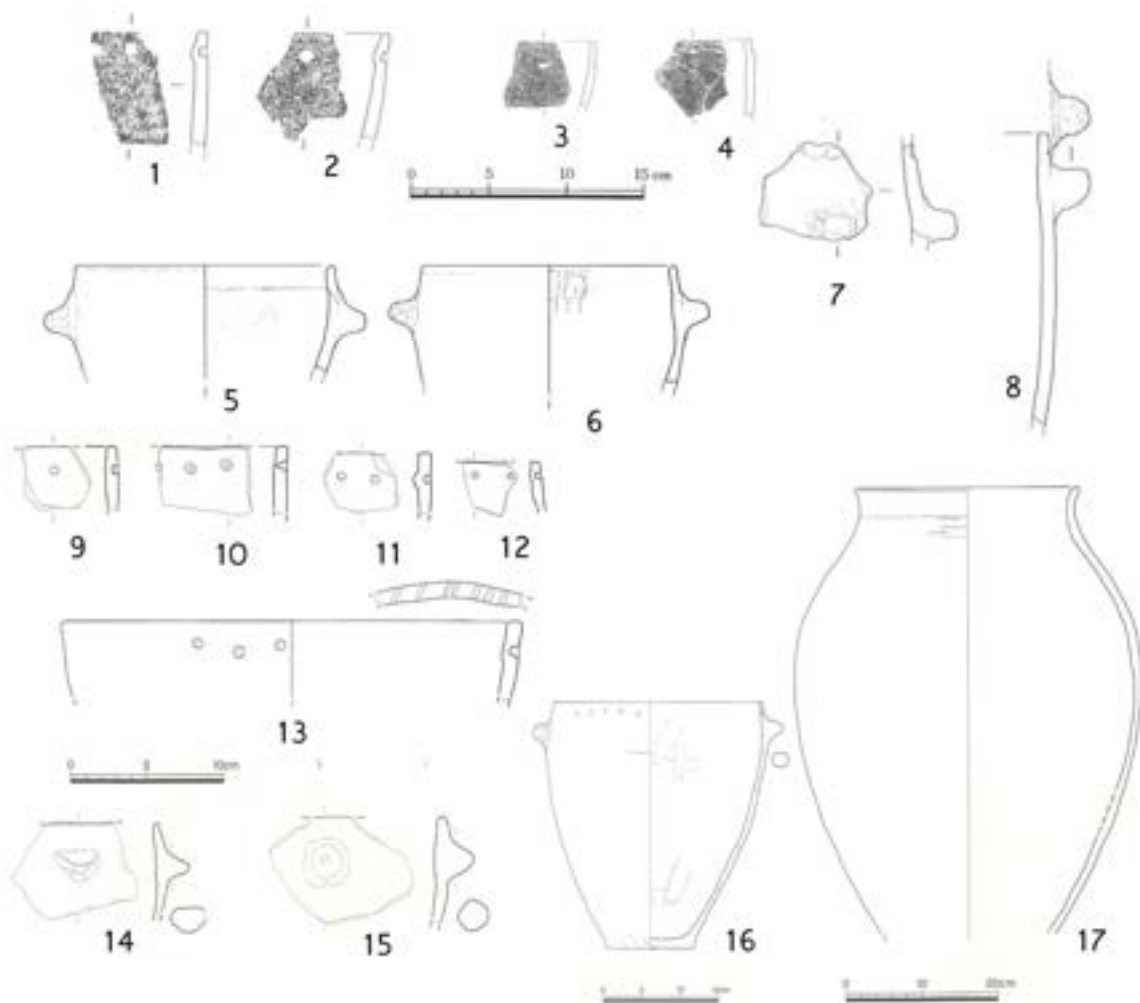
[그림 6] 검단리유형 家屋葬(①:경주 천군동 1-5호, ②:포항 호동Ⅱ-29호)

위의 검단리유형을 구성하는 요소 중 타지역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본 토기의 문양이며, 적색마연소용은 타 지역에서도 출토된다. 동북형석도(裴眞晟 2007)는 동해안지역과 남한강 및 남강유역권에서 확인되고 원통형어망추도 동해안지역 및 한강·북한강·금강유역권에서 나타난다. 주구묘(金權中 2008)도 강원영서지역을 비롯하여 금강유역 및 남강유역에서 나타나며, 소형석관묘 및 지상식지석묘도 다른 지역권에서 보이는 무덤형태이다. 하지만 가옥묘(俞炳瓌 2010)는 현재까지 포항 인덕동유적과 경주 천군동유적 2군데에서 확인된 사례로 검단리유형권의 특징적인 매장형태로 보인다. 호동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저부 1점 뿐이나 천군동유적에서는 공열문발형토기 및 다량의 무문토기가 남쪽 모서리 바닷면에서 출토되어 대략적인 시기는 후기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폐기 후 적석된 주거지(이수홍 2011)나 연암동식 주거지(安在皓 2010)의 가옥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림 7] 검단리유형·송국리유형의 분포권(①)과 송국리형 주거지(②)

마지막으로 가옥을 살펴보자. 검단리유형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지역문화로 인식되며, 호남지역의 송국리유형과 구분된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는 주거지 형태이다. 즉, 송국리유형은 원형의 평면형태를 채택하게되나 그 외의 비송국리유형권에 속하는 검단리유형은 전기의 평면형태를 계승한 방형계의 주거지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평면형태는 다르나 주거 내 공간구성이나 취락 내 면적분포가 거의 동일하며, 이를 청동기시대 후기 사회조직의 제일성으로서 가족형태는 동일하나 거주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현식 2006). 다른 한편에서는 후기에 들어 평면적이 줄어들기에 대가족제-세대공동체-핵가족으로 분화한 것으로 보며(安在皓 2006), 일각에서는 평면적의 소형화는 인정되나 주거지를 가족 구성원의 증감에 따른 가구발달주기에 따라 이해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金範哲 2011). 필자는 대체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기 보다는 앞 절에서도 편년하였듯 후기 내에서도 평면적이 2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는 주거지가 관찰되기에 가족의 발달과 쇠퇴에 따라 주거지 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안동 지례리 지석묘 주변 출토유물(1~8), 저전리 출토유물(9~17)(유병록 2017)

요컨대, 검단리유형만의 특징적인 요소는 ‘검단리식토기’와 ‘울산식주거지’이며, 이와 더불어 검단리유형 분포권에 서만 가옥장이라는 독특한 매장의례의 흔적이 확인된다. 이상의 표지적인 유물과 주거지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분포권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이 대체로 동남해안지역권으로 설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언양-양산구조곡이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의 경계지점으로서 문화요소가 서로 교차하며, 북쪽으로는 포항 월포리유적 E-1호 주거지에서 파수문토기가 출토되어 현재까지로는 상한선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영덕지역은 조사 예가 전무하나 후술할 안동지역의 검단리유형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지켜봐야할 지역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의 전파상 루트로서 영천지역이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검단리식토기가 확인된 바 없다.

한편, 예외적으로 안동 지례리의 지석묘 주변에서 수습된 파수문토기와 횡선문토기와 저전리유적에서 출토된 공



[그림 9] 원주 문막동유적 36호 수혈 및 출토유물

열에 파수문이 결합된 심발형토기와 파수문토기는 아마도 유병록(2017)의 지적과 같이 수계가 아닌 (포항-영천-의성-안동 혹은 영덕-안동) 태백산맥 사이의 낮은 고개와 횡곡을 통해 교류나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주 문막리유적 36호 수혈에서 확인된 파수문심발형토기는 당시 일상적인 문화교섭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문화요소 이동의 한 예로 추정된다.

IV. 검단리유형의 주거형태와 생활양식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검단리유형 내 주거형태와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거 내 예상 거주 인원을 산출하여 주거형태를 파악하고, 주거지 내부 출토유물의 위치를 토대로 생활패턴을 분석하였다.

선사시대 1인당 필요 주거면적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5㎡안(金正基 1974)과 3㎡안(都出比呂志 1975)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주거면적 산출에 있어 전체면적을 주거면적 산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작업공간과 수면공간의 분리를 주장한다(김현식 2006). 하지만 노동력의 희소성이 높은 선사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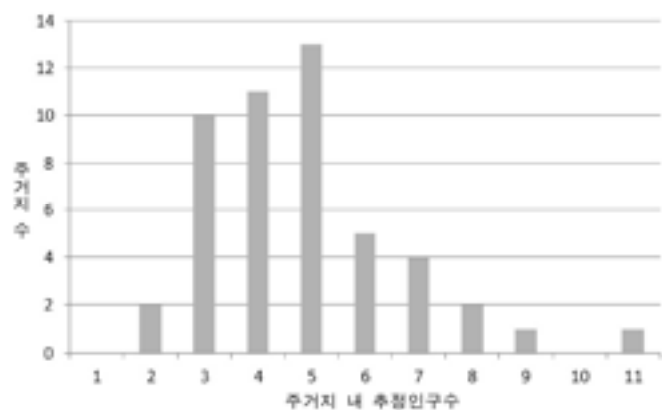
에는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작업공간과 수면공간의 구분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거지 내 저장공간과 취사공간은 고정적인 요소로서 수면공간에서 제외되기에 1인당 점유면적이 넓은 5㎡안을 채택하여 49동의 주거지 내 거주 인원을 산정해 보았다.

<표 2>를 참조하면 검단리유형 주거지의 바닥면적은 울산 검단리유적 36호가 추산인구 2명인 9.3㎡로 가장 좁고, 경주 화천리유적(영남) 7호 주거지가 추산인구 11명인 56.2㎡로 가장 넓으며, 1동의 주거지당 평균면적은 22.8㎡로 추산인구수는 4.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표 2)을 나타낸다. 주거 내 추산인구수로 본 검단리유형의 주거형태는 성인 부부 2인과 자녀 2~3명으로 구성된 단위세대로 추정되며, 추산인구수가 평균 이하이거나 이상인 것은 가족 내 출산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에, 당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군의 형성에 주목하여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종일 2004).

검단리유적 36호 주거지는 4주식으로 주혈 간 간격은 2m 가량이며, 서벽에 약간 치우쳐 노지가 위치한다. 가장자리 바닥면에는 완형에 가까운 천발형토기 2점·심발형토기 8점·단도마연호 1점과 석도 및 지석이 출토되었다. 한편, 화천리유적 7호 주거지는 6주식으로 추정되고 주혈 간 간격은 3m 가량이다. 유물은 남쪽 장벽 가장자리 중앙부에서 횡선문발형토기 1점·적색마연소용 2점·단도마연호 1점이 각각 출토되었고, 서쪽 단벽면에 위치한 노지 인근에서도 발형토기가 파편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추산인구수가 많은 주거지보다 추산인구수가 적은 주거지에서 완형의 유물이 비슷하거나 더 많이 확인되는 점은 흥미롭다. 거주인원 3~5명의 단위세대 주거지가 인위적으로 폐기되는 경우는 집단의 이주나 이동의 결과 효율성과 이동성이 낮은 물건은 그대로 방치되며, 급작스런 화재나 재해로 인해 자연적으로 폐기될 경우에는 주거 당시의 유물이 고스란히 주거지 내 잔존하게 된다. 한편, 거주인원이 8명 이상인 단위세대의 주거지는 가구발달주기에 따르면 보통 자녀세대가 결혼하게 되면 인근에 소규모의 주거지를 축조한 후 기존 부모세대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가재도구들을 챙겨 독립하게 된다. 이처럼 자녀세대가 분가하게 되면 주거지의 규모는 크나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는 자녀세대의 주거지와 비슷하거나 적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거지는 부모세대의 죽음으로 폐기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매몰되더라도 실제

[표 2] 검단리유형 주거지 내 추산인구수 점유도



토기와 도구의 수는 자녀세대의 주거지보다 적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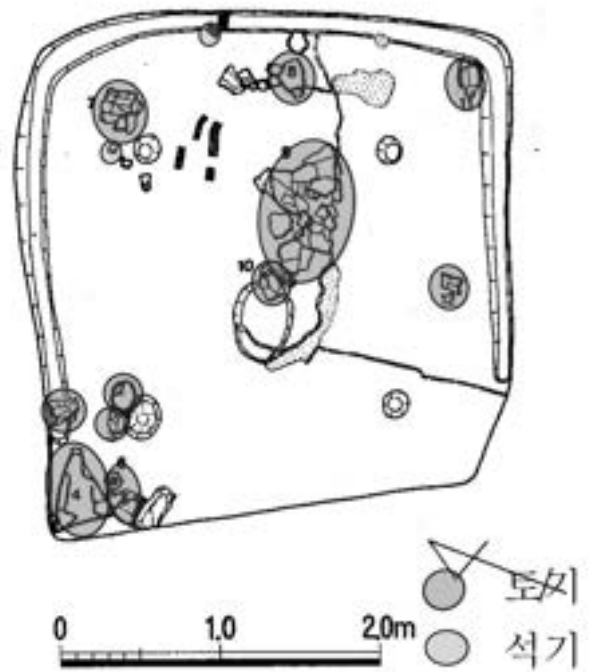
요전대, 검단리유형 주거 형태는 김현식의 의견과 같이 단수의 노지를 가지는 단위세대로 판단되며 주거지의 규모 차이는 세대 내 미출가한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 다운동 대골유적-II지구 4호 주거지와 울주 신화리 I-A4-1지구-1호 주거지의 복수 노지는 피엠틀의 범위가 좁고, 지면식인 경우로서 주된 기능을 하는 노지의 임시적이거나 보조적인 기능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주거 내 바닥유물의 분포양상을 분석하여 당시 주거 내 공간활용 양상과 행위패턴을 파악해보았다. 물론 바닥유물이라고 모두 주거 당시의 행위패턴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계획적으로 폐기된 주거지와 비계획적으로 폐기된 주거지는 유물의 출토위치·유물의 종류·유물의 수량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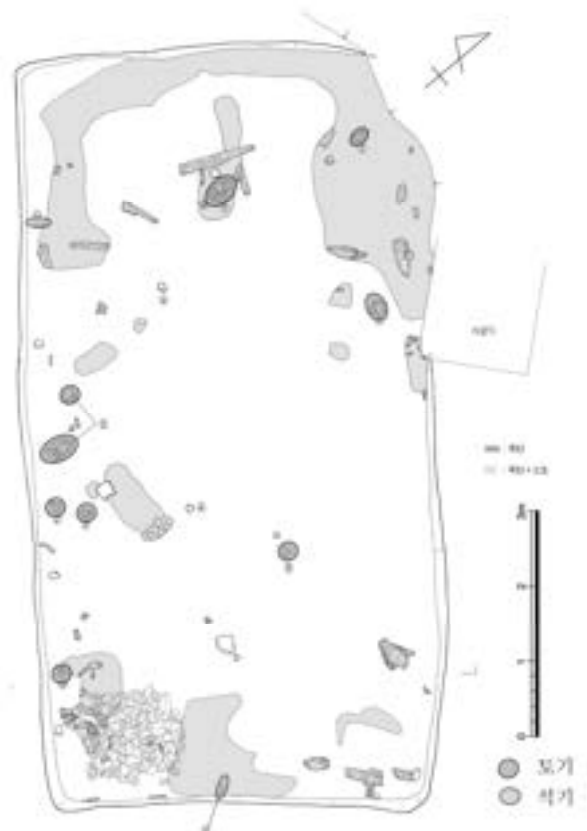
먼저 공간분석에 앞서 그림12와 같이 검단리유형 주거지의 공간을 크게 10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 중 평면형태가 온전하며, 주거지 바닥면에서 완형에 가까운 토기가 확인되는 주거지 33동을 선별하였다. 주거지의 면적, 주거 내 추산주거 인원, 기둥의 배치형태, 노지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도구류로 나누어 공간적 위치를 파악한 후 공간별 토기류와 도구류의 출토율을 살폈다.

<표 3>을 참고하면 전술하였듯 주거지 내 추산거주인원과 잔존유물의 수량간에는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자녀의 출가 및 폐기·후퇴적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주거지 내 물질자료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거지의 기둥배치형태는 대체로 평면적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대체적으로 6주식의 주거지가 4주식의 주거지보다 면적이 넓으며, 이는 주거 내 거주 인원이나 활동의 종류와 양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노지의 위치는 대체로 6주식에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정중앙에 위치하나 4주식에서는 모두 한쪽 기둥에 편재된다. 이는 주거지 내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유물의 공간별 출토율을 살펴보면 토기류는 $9 > 6 > 7 > 5 > 10 > 4 > 2 > 3 > 8 > 1$ 의 순으로 노지의 맞은편 벽가장자리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지의 전면부 공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노지의 전면부 공간에서의 유물 출토율이 낮음을 들어 수면공간이라는 주장도 있으나(김현식 2006) 노지 주변과 벽가장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여러 활동이 공유되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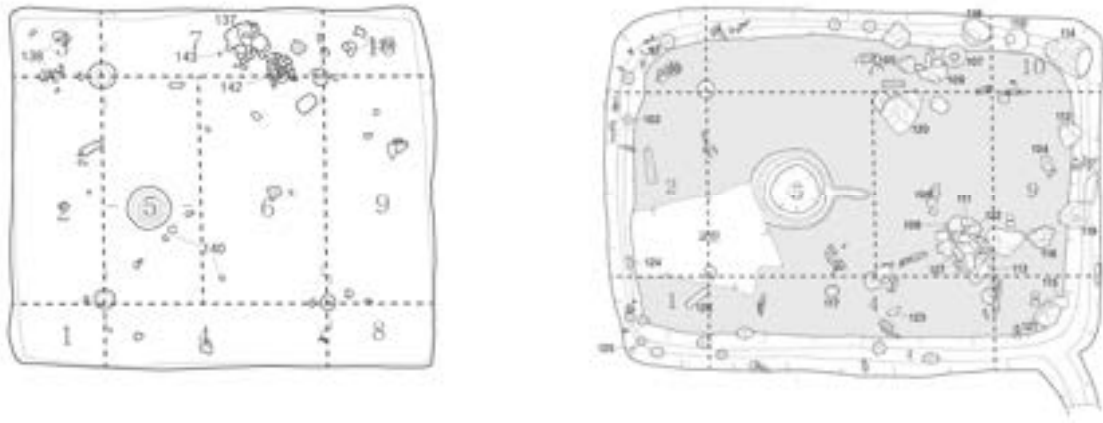


[그림 10] 울산 검단리 마을유적-36호 유물 분포도



[그림 11] 경주 화천리유적(영남07) 7호 유물 분포도

후면 좌측 모서리에서 토기류의 출토율이 가장 낮은 점을 미루어 보아 토기의 분포는 노지와 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저장용의 토기류가 대체로 노지와 거리를 둔 벽면 부근에 위치하는 점을 들어 저장물이 작물일 경우 열에 의한 호흡작용과 해충 및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여 변질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 것으로 이해된다(허의행 2008).



[그림 12] 검단리유형 주거지의 공간분할 안(左: 4주식, 右: 6주식)

[표 3] 검단리유형 주거지 내 유물분포양상(노A:편재, 노B:중앙, 토:토기류, 도:도구류)

속성 유구	주거지						주거 공간별 출토유물																				
	면적 (㎡)	인 원	주 형	노지			1		2		3		4		5		6		7		8		9		10		수량
				위	치	수	토	도	토	도	토	도	토	도	토	도	토	도	토	도	토	도	토	도	토	도	
포항 대곡리-2	23.3	5	6		■	1		1		1					1								1				4
경주 화천리-2	22.7	5	4	■		1			1		1						1		1								4
경주 월산리Ⅰ-2	18	4	4	■		1													3						1		4
경주 화천리 214-1번지-2	16.3	3	4	■		1																			1		1
경주 천군동Ⅰ-1	15.4	3	4	■		1	1	1				1	2						1				2				8
경주 문산리Ⅱ나-2	27	5	6		■	1				1			1				3				1	1	1				8
경주 문산리Ⅱ나-5	27	5	6	■		1	1		1		1				2	1		1	1	1			2				11
경주 광명동Ⅱ-3	26.6	5	6		■	1	1	1			1		1		1		2										7
경주 죽동리-2	12.8	3	4	■		1	1										3	2	3	1			2	1	1	1	15
경주 산대리-下6	29.1	6	6	■		1	1	1		1		1	2	2		1	2	2					1	9			23
경주 산대리-下12	21.7	4	4	■		1				1						1	4						4				10
울산 검단리-36	9.3	2	4	■		1					4		1				2				1		1		1		10
울산 교동 456-12	12.5	3	6		■	1		2		1	1	1	1	1				1	4	1	1		4		2		20
울산 약사동861-2	18.1	4	4	■		1								2					1		3					1	7
울산 매곡동 신기-7	18.1	4	6	■		1		2		1							1			1			3		1		9
울산 교동리 192-37유적-4	30.1	6	6	■		1			2						2		2						2				8
울산 중산동 약수Ⅱ-20	36.5	7	6	■		1			2	1									2	1				2			8
울산 서부동 비석골-3	16.5	3	4	■		1							1							1					2		4
울산 서부동 비석골-17	14.5	3	4	■		1											4						2				6
울산 입암리 上-1	16.6	3	4	■		1		1	2					1	3		4		1								12

울산 입암리 上-5	17.2	3	4	■		1										1	1							1	1	4	
울산 입암리 上-8	14.3	3	4	■		1						2					1				1					4	
울산 입암리 上-11	22.5	5	4	■		1	1		1			2	4	1	1		1	1		1		1				14	
울산 입암리 上-12	29.5	6	6		■	1						2							1		2					5	
울산 입암리 上-15	17.9	4	4	■		1			1	1			2	3				1						1		9	
울산 입암리 上-18	23.3	5	4	■		1						1						1			2	1				5	
울산 입암리 上-19	27.8	6	4	■		1				2				1		1	3				1					8	
울산 입암리 上-23	12.5	3	4	■		1								1								1	1			3	
울산 입암리 上-25	15.0	3	4	■		1				1						1		2	1					1		6	
울산 입암리 上-28	26.6	5	6		■	1						1							1							2	
울산 입암리 上-30	20.5	4	4	■		1			2			9							1		1			1	14		
울산 정자동 산36-4	26.5	5	6	■		1						1		2			1				1	1				6	
울산 굴화리·백천리-4	21.1	4	6	■		1								2								1				3	
울산 송정동 복합유적 A-6	30.3	6	6	■		1																		2		2	
토기류 비율(%)							3.6		7.2		5.4		7.8		12		18.1		13.3		4.8		18.7		9	100	
출토건수							6		8		6		10		11		13		13		6		17		12		
도구류 비율(%)								9.2		10.2		12.2		15.3		5.1		11.2		10.2		3.1		19.4		4.1	100
출토건수								7		9		4		8		5		7		10		3		9		4	
계							6	9	12	10	9	12	13	15	20	5	30	11	22	10	8	3	31	19	15	4	264

한편, 도구류는 울산 입암리 上30호와 경주 산대리-下9호의 사례와 같이 동일 장소에 복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실제 공간 활용의 패턴 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출토건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토건수는 $7>2=9>4>1=6>5>3=10>8$ 의 순으로 노지의 우측 장벽 가장자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지의 후벽 가장자리 및 노지의 전면 가장자리, 노지의 좌측 장벽 가장자리의 순으로 낮아지며, 대체로 벽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토기류는 노지와 멀리 떨어진 반대편 단벽 및 장벽 가장자리에 분포하며, 도구류는 대체로 네 벽면의 가장자리에 분포하나 그 중에서도 노지의 좌·우 장벽과 후벽에 집중한다. 그리고 노지의 주변과 노지 전면부에서도 토기류 및 도구류가 일정 수준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볼 때 주거 내 취사와 생산·소비 등의 여러 활동 등은 주로 5와 6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과 같이 검단리유형의 주거지 내 유물 분포양상은 전기의 제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내부 공간의 기능적 차이는 노지와 저장공의 배치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노지가 배치되지 않는 공간에는 저장공이 배치되거나 온전한 상태로 복원되는 토기가 다량으로 확인되는 것을 들어 저장 혹은 토기를 보관하는 성격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지가 배치된 공간은 저장이나 토기 보관보다는 조리·휴식·수면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가 이뤄지던 공간으로 추정한다(오용제 2012).

검단리유형 주거지는 전기의 장방형·세장방형인 혼암리식 주거지를 계승하였으며, 주거 내 생활패턴도 전기의 전통이 유존한다. 따라서 영남내륙지역이 송국리유형의 문화요소를 받아들인 것에 반해 검단리유형은 토기의 문양과 주거 형태 및 생활패턴으로 추정하건대 대체로 전기에 유행한 역삼동·혼암리유형의 문화요소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지역적인 독자성과 정체성이 강하였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기에는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대형주거가 대부분이었으나 후기에 들어 검단리유형화되면서 단수의 노지에 중·소형화 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 남한 전체의 큰 흐름으로서 전기의 공동거주형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단위세대가 중·소형의 주거지로 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검단리유형이란 무엇이며, 언제, 그리고 왜 나타나게 된 것이지에 대한 나름의 고찰을 해보았다. 논의의 시작은 검단리유형의 시간성에 대한 문제로 기존에 검단리식토기로 인식된 ‘날알문’을 사선문계 ‘날알문’과 횡선문계 ‘날알문’으로 구분하고, 사선문계 ‘날알문’은 전기의 문화와 혼재되는 양상이기에 본고에서는 횡선문계 ‘날알문’과 ‘파수문’을 검단리유형의 표지적 유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는 범위를 파악하여 분포권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포항-경주-울산을 포함하는 동남해안지역이 주 분포권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외 안동과 원주에서 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거지 면적을 바탕으로 한 인구 추산으로 당시 검단리유형의 주거형태를 단위세대로 파악하였으며, 주거지 내 바닥유물의 분포양상을 토대로 생활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기의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동인으로는 당시 동남해안지역에 거주했던 청동기시대인들의 지역적 독자성과 자아 정체성이 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 김권중, 2008, 「青銅器時代 周溝墓의 發生과 變遷」, 『韓國青銅器學報』3號, 韓國青銅器學會.
- 金範哲, 2011, 「青銅器時代 前期 住居樣相과 家口發達週期-湖西地域 驛三洞 및 欣岩里類型 聚落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第72號.
- 김장석, 2008, 「양식의 고고학」, 『樣式的 考古學』, 제3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金正基, 1974, 「無文土器文化期の 住居址」, 『考古學』3.
-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國史館論叢』104권, 國史편찬위원회.
- 金賢植, 2005, 「蔚山式住居止의 增築과 社會的 意味」, 『嶺南考古學』36, 嶺南考古學會.
- 金賢植, 2006a, 「蔚山式 住居止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賢植, 2006b,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주거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第54號, 韓國上古史學會.
- 慶尙北道文化財研究員, 2006, 『慶州 甲山里遺蹟』.
- _____, 2008, 『浦項 虎洞遺蹟Ⅱ(Ⅱ지구-青銅器時代)』.
-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梁山平山里遺蹟』.
-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경문화사.
- 裴眞晟, 2005,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第48號,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07,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東海文化圈의 設定을 檢하여-」, 『嶺南考古學』40, 嶺南考古學會.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檢丹里마을遺蹟』.
- 釜山大學校博物館, 2000, 『梁山新平遺蹟』.
- 성립문화재연구원, 2013, 『경주 유금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0,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성립과 전개」, 『선사시대의 고고학』, 제4기 고고학 시민강좌, 복천박물관.
- _____, 2014, 「檢丹里遺蹟 再考」, 『韓國青銅器學報』14號, 韓國青銅器學會.
- 李盛周, 2006, 「韓國 青銅器時代 ‘社會’考古學의 問題」, 『古文化』68, 韓國博物館協會.
-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秀鴻, 2011,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의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全開瓦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第1號, 韓國上古史學會.
- 오용제, 2012,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내부의 공간 활용 양상 연구-수혈주거지 내 유물과 내부시설의 분포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蔚山 立岩里遺蹟』.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부산 회동동-석대동유적』.
- 俞炳球, 2008, 「蔚山 檢丹里마을유적의 재검토」, 『韓國青銅器學報』2號, 韓國青銅器學會.
- _____, 2010, 「堅穴建物 廢棄行爲 研究1-家屋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_____, 2017, 「낙동강 상류의 청동기시대 문화양상」, 『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문화재연구원 발굴 10년 학술대회자료집.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원주 문막리유적』.
- 허의행, 2008, 「前期青銅器時代 堅穴遺構의 性格과 變化樣相」, 『韓國青銅器學報』3.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에 대한 토론문

유병록(세종문화재연구원)

발표자는 검단리유형에 대표적인 요소인 ‘검단리식토기’와 ‘울산식주거지’에 대한 기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전자와 관련해서는 흔히 ‘난알문’이라 통칭하던 횡선문의 개념을 전기의 사선문계 전통이 잔존한 ‘난알문’은 제외하고 횡방향으로 짧게 압날된 것만 규정함과 더불어 파수문까지를 검단리식토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시공간적 범위를 보다 뚜렷이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원에 대한 검토도 시도하였다. 검단리유형 주거지에 있어서도 기존 의견(김현식 2005)을 수용함과 동시에 주거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내부공간분할과 유물 분포양상을 볼 때 전기이래의 전통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정리한 본 발표는 검단리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가 울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어쩔수 없는 연구자의 편중탕도 있지만- 같은 검단리유형권에 속하면서 이제 숫적으로도 적지않은 유적이 조사된 포항·경주지역(형산강)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를 가진 발표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기존 울산지역 중심으로 한 검단리유형의 시각을 확장하는데 기대감이 많아서인지 이번 발표문에 대해 아쉬운감이 없진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였다.

1. 발표자나 기존 검단리유형에 관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문화적 요소로 인정하는 검단리식토기의 경우 그 전형적인 형태(횡선문과 파수문)가 대부분 울산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발표자는 횡선문의 기원을 울산지역이 아닌 갑산리나 유금리와 같은 형산강 중류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형산강 유역보다 같은 수계로도 연결이 되지 않는 울산지역이 오히려 검단리식토기의 중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또한 파수문의 경우 횡선문에 비해 그 영역이 송국리문화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발표문에서는 파수문에 대한 기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도 듣고 싶다.
2.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검단리유형을 종합정리한 이수홍(2012)은 경주와 포항지역의 유적까지 포함은 하고 있지만 취락의 시기별 변화에 대한 주요 유적은 모두 울산지역 유적을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타 지역 역시 이곳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취락의 가장 핵심적 구성요소 중 하나인 주거형의 경우 울산지역을 벗어나면 4주식이나 6주식 주거지가 현저히 적고, 무엇보다 4·6·8식 규모별 주거가 단순히 단위세대의 내부적 인원변화(미분가 인원의 여하)로 인한 것이라면 발표자(배군열 2015)나 이수홍(2012) 등이 후기 사회에 위계화나 계층화의 증거로서 소수가 거주하는 주거의 규모차이는 그것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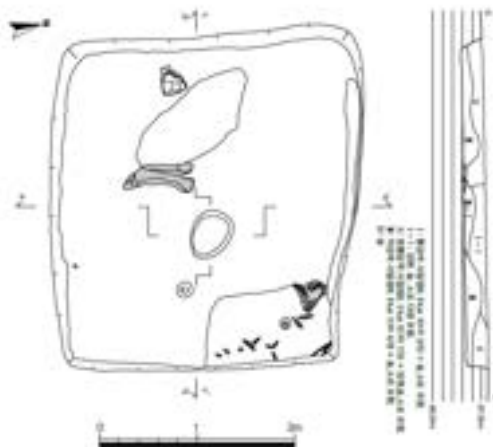
3. 검단리유형의 분포권과 관련하여 그림 7번은 이수홍의 검단리식토기의 분포권 설정과 유사하다. 토론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연구자 모두 금호강 상류인 영천과 중류역인 경산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송국리유형(송국리식토기)권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유적자료로 보았을 때 금호강 유역에서의 두 문화(유형)의 접점은 경산으로 보아야 하며 검단리유형의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사된 영천 신령면 치산리유적(동국문화재연구원 2017)¹⁾에서 면적 10.8㎡의 방형 주거에 파수토기가 출토된 점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송국리문화의 북한계에 해당되는 안동지역과의 영역 연결과 확대가 고려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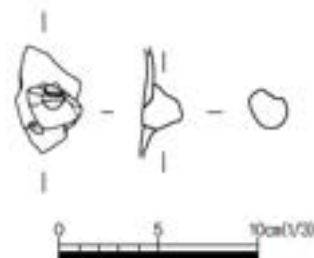
[발표자의 그림 7]. 검단리유형과 송국리유형의 분포권



이수홍(2012)의 검단리식토기와 송국리식토기의 분포권 그림에 토론자 수정
(적색선 동편이 검단리유형권)



영천 치산리유적 주거지 1호와 파수토기편(동국문화재연구원 2017)



1) 치산리유적의 경우 금호강수계 너머 낙동강 지류인 위천의 최상류로서 위치상 남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현재 국도 5호선과 28호선으로 이어지면 의성과 안동으로 연결된다. 이는 토론자가 지적(유병록 2017)한 바 있듯이 기존 검단리유형의 핵심지인 경주·포항과 울산이 수계로 연결된 것이 아닌 낮은 산지와 곡저를 통해 서로 교통신 검단리유형의 특징으로 보인다.

4. 이번 발표회 모든 연구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로도 판단되는 바, 송국리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검단리문화’로의 개념 설정이다. 그 동안 ‘유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왔지만 기존 검단리식토기와 울산식주거로서는 상위개념으로서의 ‘문화’로서 불리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빈약한 무덤의 부재양상과 더불어 발표자가 지적한 것과 같이 전기 이래의 문화요소 뿐 아니라 그 생계에서도 이전의 수렵채집경제가 그대로 유지(安在皓 2012)되었다고 보는 등 당시 사회의 성격까지 규정하는데 어느 정도 연구자간 정리가 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송국리문화에 대비한 비송국리문화권(당동리유형, 천정리유형, 포월리유형, 검단리유형)이 지역은 달리하지만 모두 거의 동일한 성격의 문화권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발표자 및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참고문헌]

- 金賢植, 2005, 「蔚山式住居址의 增築과 社會的 意味」, 『嶺南考古學』 36.
- 동국문화재연구원, 2017,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고속도로(5·6·7공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Ⅱ』.
- 裴君烈, 2015,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배군열, 2017,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 『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주년 특별전 기념 학술대회.
- 安在皓, 2012, 「墓域式支石墓의 出現과 社會相」, 『湖西考古學』 26.
- 유병록, 2017, 「낙동강 상류의 청동기시대 문화양상」, 『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주년 특별전 기념 학술대회.
- 李秀鴻, 2012, 『靑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博士學位論文.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제4발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

발표 : 윤호필(동양문물연구원)

토론 : 황창한(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

윤호필(동양문물연구원)

1. 머리말

생계(生計)는 사전적 의미로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나 형편’을 뜻하는 것으로 선사시대의 의미로는 ‘식량을 획득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량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자연적으로 생산된 식량을 획득하는 것(자원획득 단계: 수렵, 어로, 채집 등)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식량을 획득하는 것(식량생산 단계: 농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윤호필 2013:153). 이러한 구분은 식량을 획득하는 방법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식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양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인간이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와 상태에 따라 생산되는 식량의 편차가 심하다. 이는 식량을 전적으로 자연적 생산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식량 확보가 불안정하다. 후자의 경우도 자연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비슷하지만 전자와 달리 식량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식량생산에 필요한 인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¹⁾ 이는 전자에 비해 식량생산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식량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즉, 식량생산지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개선하여 식량생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고, 식량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식량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식량을 소비자에 맞춰 생산량이나 종류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려는 목적 뿐 만 아니라 식량을 하나의 교역대상이나 위세품으로서의 역할까지를 가능하게 한다(윤호필 2010:15). 따라서 인위적 식량생산은 인간의 생존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생계전략이자 사회적 위계화나 복잡화를 가속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생계전략 방법들을 시대별로 적용해 보면 전자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일반적인 생계 형태이며, 후자는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생계 형태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생계는 수렵, 어로, 채집과 더불어 농경이 중요한 생계전략으로 등장 한다.²⁾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생계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렵, 어로, 채집 활동과 농경활동을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자이나 소비자가 모여 있는 취락의 입지환경을 통해 생계전략 방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생계전략 방식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생계전략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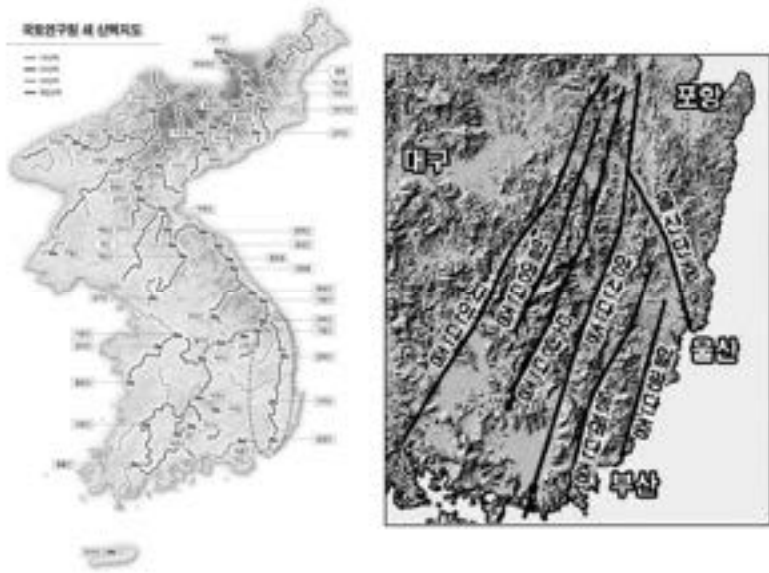
1) 예를 들어 토지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개간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 가뭄에 물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일, 작물을 개량하거나 경작기술을 발전시키는 일 등이다.

2) 농경은 신석기시대 중기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성숙한 단계로 들어선 것은 청동기시대라 할 수 있다.

II. 울산지역의 자연환경과 취락입지

울산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북·서·남의 삼면이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동남쪽만 동해바다로 트여 있다. 산지의 지세는 남서-북동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데, 이는 태백산맥의 2차 산맥인 ‘낙동정맥’이 남해안까지 이어지고, 영남지역의 단층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의 동남쪽지역은 저산성 산지들과 평야가 넓게 분포한다.

하천은 대부분 서쪽의 고산지에서 발원해 동남쪽의 울산만으로 유입되는데, 대부분 좁은 구조곡 지형의 단층대를 따라 흘러간다. 또한 하천은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경사는 급하며 길어도 짧은 편이다. 따라서 하천의 규모와 수량(水量)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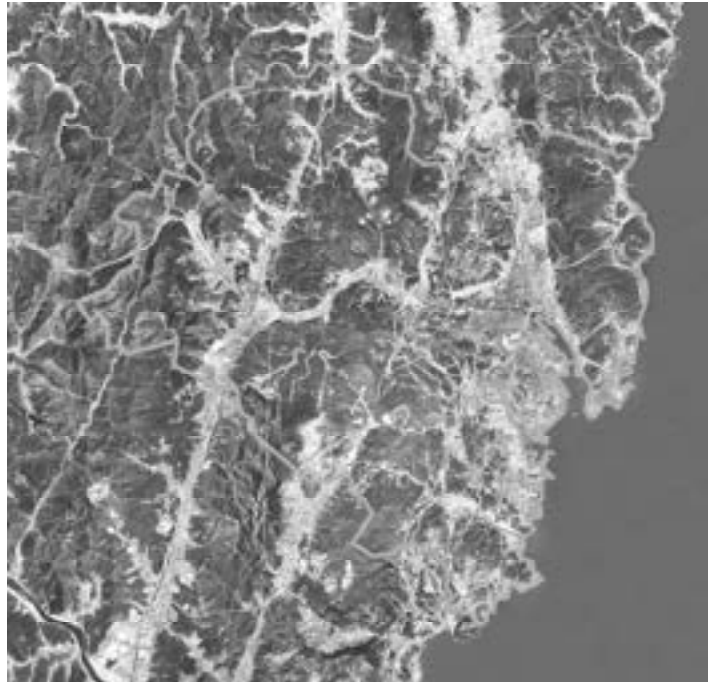
[그림 1] 산맥지도 및 영남지역 단층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충적지(자연제방)와 하안단구 등의 발달이 미약하다. 또한 울산지역은 내만환경(內灣環境)으로 바다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울산의 하천은 크게 서쪽에서 동쪽을 관류하는 ‘태화강’과 경주쪽에서 시작되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동천강’ 그리고 양산에서 시작되어 북류와 동류를 거쳐 남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되는 ‘회야강’이 중심을 이룬다. 이중 태화강은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하천으로 서부의 고산지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상류지역인 언양지역에 넓은 ‘언양분지’를 형성하고, 다시 주위의 소지류들과 합치면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하구 부근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동천강과 합류해 울산만으로 유입된다. 울산의 평야들은 이들 하천들이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주로 형성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하류역의 침강해안의 만입부에 형성된 ‘울산평야’는 동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충적평야로서 토질도 비옥한 편이다. 울산지역의 이러한 특징들은 취락의 입지나 경작지 선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울산지역의 특징적인 입지형태를 나타낸다.

먼저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³⁾ <그림 2>에 표시된 유적들은 대부분이 취락 유적으로 주로 남서-북동방향의 단층대 상의 하천 충적지나 주변구릉지 그리고 동남쪽 해안지역의 하안단구나 평야지역의 소하천과 낮은 구릉지 주변에 주로 분포한다. 이를 비고(比高)와 지형 특징을 통해 정리해 보면 크게 2가지 분류안이 있다(金度憲·李在熙 2004; 김권구 2005). 첫째는 비고에 따른 분류로서 고지성, 구릉성, 저지성의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중 고지성 취락은 현재 울산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분의 입지형태는 구릉성 입지이다. 저지성 입지는 하천변 충적지나 해안평야에 입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드물며, 울산 입암리유적, 울산 백천유적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입지의 특성과 지형을 고려하여 해안성, 하천성, 구릉성의 3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는 취락의 생활권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들 지형과 인접해서 위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울산지역의 취락입지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3가지의 입지형태가 고르게 확인된다. 해안성 입지는 동해안과 접해있는 동남쪽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는데, 주로 하안단구나 해안 가까이까지 뻗은 구릉의 말단부에 입지한다. 하천성 입지는 하천변의 충적지에 입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확인사례가 드문 편이며, 대부분은 하천에 인접한 구릉부에 입지한다. 이러한 하천성 입지는 울산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취락입지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구릉성 입지는 산지가 많은 북·서·남에 위치한 구릉의 말단부에 주로 입지하며, 여기에서도 많은 유적이 확인된다.

3) <그림 2>는 ‘문화재 GIS통합 인터넷 시스템’에 등록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중 발굴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도면화한 것이다. (<https://intranet.gis-heritage.go.kr>)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울산지역의 취락입지는 구릉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충적지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릉지역을 선택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천충적지에 직접 입지하는 않고 인접한 구릉에 입지하면서 하천지역을 생활권역내에 포함시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계전략 차원에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구릉성 입지는 입지형태상 ‘수렵’과 ‘채집’이 주된 생계형태이나 후술하겠지만 생활형태가 주변의 지형(하천변 충적지와 곡부평지)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경’도 중요한 생계형태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 해안성 입지는 ‘어로’와 ‘채집’, 하천성 입지는 ‘어로’와 ‘농경’ 등의 생계형태로 생각된다. 이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다. 김도현(울산발전연구원 2004:57-59)은 취락을 입지형태와 주변환경



[그림 2]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도

에 따라 크게 I 류는 산(구릉)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취락(황토전유적), II류는 큰 하천과 구릉사이에 위치한 취락(천상리유적), III류는 바닷가에 가까운 구릉에 위치한 취락(화정동유적)으로 구분하고, 수렵구, 어로구, 농경구의 출토빈도와 출토량을 통해 취락입지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황토전유적은 농경관련구의 출토빈도가 가장 높고 수렵구와 어로구의 출토빈도가 낮다. 천상리유적은 모든 생업도구의 출토빈도가 낮는데 수렵구와 농경관련구, 어로구의 순으로 출토빈도가 높다. 화정동유적은 어로구의 출토빈도가 가장 높고 수렵구와 농경관련구의 출토빈도는 낮다. 하지만 주거지와 인접하여 논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생계형태와 관련지어 정리하면, I 유형은 농경과 수렵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어로는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함인석부의 출토빈도가 높아 산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II유형은 I 유형과 유사하나 함인석부의 출토빈도가 낮아 산림자원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유형은 생업에서 어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취락은 입지형태에 따라 생계형태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생계전략들이 단순히 주거지가 입지한 지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주변지형과 생활영역, 취락규모, 사회구조 등에 따라 복합적인 생계전략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생계형태

1. 수렵, 어로, 채집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농경이 중요한 생계전략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초기에는 농경기술이나 경작지 조성 등이 활발하지 못해 농경활동에 의한 식량생산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화전경작이나 텃밭 같은 소규모 농

4) 구릉성 입지에서 주거역은 구릉사면에 분포하지만 생활권역이 인접한 곡부평지나 하천변 충적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생계형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곡부평지와 하천변 충적지에서의 식량획득 방법으로 볼 때 ‘농경’이 주요한 생계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활동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농경활동만으로는 식량을 충분히 확보가 어려웠다. 따라서 신석기시대부터 이어져온 생계 전략인 수렵, 어로, 채집활동도 중요한 생계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중기가 되면서 농경기술이 발달하고 성숙한 농경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식량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연에 의존해 식량을 획득하는 생계전략인 수렵, 어로, 채집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⁵⁾

수렵, 어로, 채집의 생계형태는 유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잔존하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토유물을 통해 파악된다. 취락에서 출토된 유물 중 생계형태와 관련된 것을 기능(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농경관련 구(기경구-보습, 수확구-석도, 부리형석기, 곡식가공구-갈돌, 갈판), 수렵구(석검, 석촉, 석창, 석구, 환상석부, 동북형석도), 어로구(어망추, 토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출토품을 통해 각각의 생계형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렵(狩獵)

수렵은 도구를 가지고 짐승을 포획하는 일로서 구석기 이래로 인간의 식량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양학적으로 볼 때 식물섭취만으로 부족한 중요한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가죽, 뼈, 이빨, 뿔 등 다양한 부산물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생계활동이다. 수렵은 크게 동물을 직접 타격하여 포획하는 것과 동물을 함정으로 유도하여 포획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사용되는 도구는 석촉, 석창, 석구 등이 있으며, 이는 다시 원거리 수렵구인 활과 석구, 근거리 수렵구인 석창 등으로 구분된다. 원거리 수렵구(활수렵)는 멀리 있는 동물을 포획할 때 사용하지만 일정한 거리 이상은 타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상처에 약한 사슴과 노루 등 소형동물에 사용된다(곽종철 2003:437). 근거리 수렵구(창수렵)는 근접 타격으로 포획하기 때문에 위험성과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활수렵에 비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 같은 대형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는 함정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함정은 입지에 따라 평지형과 구릉형으로 구분된다. 평지형은 취락의 내·외부에 배치되어 취락과 경작지를 보호하며, 구릉형은 동물들의 이동로에 설치하여 포획하는 것으로 설치목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되며, 울산지역의 함정은 대부분 장타원형이다. 단면구조는 ‘Y’형 또는 ‘V’형이며, 바닥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는 것, 가장자리를 따라 소형주혈을 설치한 것, 중심에 목창을 설치한 것이 있다(김도현 2008; 최수형 2013).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함정유적은 울산 옥동유적, 울산 상연암유적, 울산 입압리유적, 울산 화봉-송정유적, 울주 신화리유적 등이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수렵을 통한 동물 잔여물이 확인된 사례가 아직 없으며, 앞서 살펴본 대로 수렵구와 함정 그리고 취락의 입지환경을 통해 수렵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지방산의 안정동위원소분석법’을 이용하여 토기에서 야생육상 동물을 조리한 흔적들이 확인되어 수렵의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곽승기 2007).⁶⁾ 아직 울산지역에는 이 분석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지만 자료가 부족한 수렵생계 형태를 복원하고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식료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분석법이라 하겠다. 향후 이 분석법을 통한 많은 수렵자료의 증가를 기대한다.

2) 어로(漁撈)

어로는 큰 의미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협의적 의미로서 강과 바다에서 행해지는 물고기 잡이를 말한다. 물고기 잡이는 신석기시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생계형태로서 주로 패총에서 어구 관련 유물들이 확인되며, 그 종류는 낚시바늘, 낚시추, 작살, 어망추 등이다. 어구의 소재는 석재, 토제, 동물뼈 등 다양하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어로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신석기시대에 사용했던 어구들은 대부분 모습을 감추고, 소형의

5)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에 수렵, 어로, 채집 활동은 줄어들게 되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식량생산력 및 식량생산량의 안정성 확보와 영양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조적인 생계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6) 중서부지역의 김포 양촌유적, 평택 소사동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편에서 지방산을 추출하여 안정동위원소분석을 실시하여 사슴과 멧돼지 등의 육상동물의 흔적을 찾아내었다.

‘토제 어망추’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구가 내륙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김성욱 2008). 즉, 신석기시대 어로활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용되었던 패총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다양했던 어로구도 그물을 이용한 ‘망어법’이 성행함으로써 대부분 토제 어망추만 남게 되고 나머지 어로구는 대부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어구의 출현과 기존 어구의 감소는 단순한 어구의 변화가 아니라 생계전략의 변화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청동기시대에 취락의 입지환경이 농경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농경활동도 활발해 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⁷⁾

울산지역에서 어망추가 출토된 유적은 김단리유적, 연암동유적, 신행동유적, 신정동유적, 무거동 옥현유적, 야음동유적, 천상리유적, 다운동유적, 방기리유적, 부곡동유적, 서부동유적, 입암리유적, 화정동유적 등으로 대부분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울산지역의 어망추에 대한 연구는 김도현·권지영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형태에 따라 단추형, 구슬형, 원통형의 3종류로 구분하고 용도와 지역색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단추형은 크기가 작고 무게는 5~7g이 다수를 차지하며, 투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며, 구슬형과 원통형은 크기가 크고 무게가 20~50g의 것이 다수를 차지하며, 유자망과 후리그물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⁸⁾ 또한 이들의 입지를 검토하여 단추형은 내륙 쪽에 있는 작은 하천변에 위치하며, 구슬형과 원통형은 상대적으로 큰 하천변과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망추의 형태와 무게가 어장 및 어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김도현·권지영 2002). 이러한 연구성과와 관련해서 보면 울산의 하천들은 대규모의 하천보다는 소규모 하천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로활동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울산만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만으로, 해안선과 만의 길이가 길고 간만의 차이도 적다. 또한 주변 지형이 방파제 구실을 하는 등 어장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양 어로활동도 어느 정도는 활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사례로는 화정동유적과 입암리유적이 있다. 화정동유적은 해안면 입지로서 동남해안에 인접한 구룡사면에 위치하며, 총 15기의 주거지 중 7기의 주거지에서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주거지가 어로활동과 관련된 생계활동을 한 것으로 화정동유적의 주요 생계활동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거지지역에 인접해서 계단식 논이 확인되어 농경활동도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다의 어로활동과 함께 농경이 복합된 생계형태로 ‘반농반어촌’으로 생각된다.⁹⁾ 입암리유적은 하천면 입지로서 충적지에서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도 총 주거지 수에 대한 어망추 출토 주거지의 빈도가 47%로 다른 구룡사면에 입지하는 유적들 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하천의 어로활동도 생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울산문화재연구원 2010:273).

3) 채집(採集)

채집활동은 자연에서 인간이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획득하는 일로서 대상물이 대부분 움직이지 않아 수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물이 기후나 계절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채집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주요 대상물은 산지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성 야생식료이지만 해안에서는 패류나 해초류를 채집하기도 한다. 채집활동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대상물의 특성상 잘 남아있지 않으며, 채집행위에 대한 물질증거도 찾아내기 힘들다. 따라서 채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다만 일부 채집활동을 통해 남겨진 식료를 통해 채집대상을 파악하거나 취락의 입지를 통해 생계형태를 추론할 뿐이다.¹⁰⁾

7) 생계전략의 변화와 관련하여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까지 이어지는 ‘가도패총’의 사례가 있다. 신석기시대는 봄~가을에 도미 잡이를 중심으로 어로활동을 하며, 가을~이듬해 봄까지는 굴을 중심으로 채집활동을 하여 1년 내내 수산자원에 의존한다. 하지만 청동기시대가 되면 봄~가을까지의 어로활동이 없어지고 가을~이듬해 봄까지의 굴 채집만 남게 된다. 이는 농번기인 봄~가을에는 어로활동을 축소하고 농한기인 늦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만 어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김성욱 2008:14).

8) 선사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망어구의 종류는 투망, 채후리그물, 유자망 등이 있다. 투망은 한 사람이 그물을 던져 펼치는 형태로 사용된다. 채후리그물은 그물이 투망된 위치부터 기점까지의 사이에 있는 대상물을 잡는 방법으로 주로 해안 가까이 얇은 곳에서 사용된다. 유자망은 어구를 조류에 흘려보내면서 잡는 방법이다(김도현·권지영 2002).

9) 어망추가 출토된 유적에서 경작지가 함께 확인된 유적으로는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울산 야음동유적 등이 있다.

10) 청동기시대의 제분-탈곡구로 사용된 도구는 신석기시대와 같은 갈돌, 갈판으로 이에 대한 사용흔 분석을 통해 견과류의 껍질을 벗기거나 부수는 작업에 갈돌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잔존 녹말분석을 통해 ‘고사리’ 등의 식료를 밝혀내기도 하였다(孫峻鎬·上條信彦 2011).

울산지역의 채집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취락의 입지환경을 통해 대략적으로 추론할 뿐이다. 울산지역 취락의 입지적 특징은 구릉지에 편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구릉지의 특성상 산지와 연결되는 곳이 많다. 이는 채집 대상지역이 인접해 있음을 의미하며, 채집할 수 있는 야생식료들도 어는 정도는 확보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형적으로 보면 울산의 서쪽과 북쪽지역에 고산지가 밀집분포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채집활동이 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채집활동은 주로 야생의 식물성 식료를 획득하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생환경은 대략 5,000BP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보다 조금 하강한 기온을 가진다. 하지만 신석기시대의 기후가 ‘기후극상기’로서 청동기시대의 하강된 기온은 현재와 비슷하며, 따라서 기본적인 식생도 오늘날과 크게 다른지 않다(안승모 1993:181-182). 따라서 오늘날 야생에서 채집되는 대부분의 식료들이 당시에 채집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또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거치면서 쌓여온 야생식료에 대한 경험이 청동기시대에는 더욱 발전하여 보다 많은 종류의 식료를 획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농경(農耕)

농경은 식량을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새롭게 개간하여 농경지를 만들고 여기에 작물을 심고 가꾸고(관리)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청동기시대의 농경활동은 경작방법에 따라 논경작과 밭경작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물을 가두어 경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다. 물을 가두어 경작하는 방법은 수도(水稻)¹²⁾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논경작이라 하며, 경작방법 중 가장 발달된 형태이다. 물을 가두지 않고 경작하는 방법은 밭경작이라 하며, 모든 작물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작물재배 방법이라 하겠다. 논경작은 재배작물인 ‘벼(水稻)’의 특성상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과 물을 가두어 경작하기 때문에 지형이 평평하고 배수가 불량한 토질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형 및 토질 조건이 매우 한정적이다. 이에 반해 밭경작은 상대적으로 물이 적게 필요하고 지형조건 및 토질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다양한 지형과 토질에서 경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농경활동의 특징을 바탕으로 울산지역의 경작유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1>은 울산지역에서 경작지가 확인된 유적을 정리한 것으로 현재까지 11개 유적 정도가 조사되었다. 경작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되나 대부분이 논이 확인되었다. 논은 벼를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경작지로서 물을 가두고 빼낼 수 있는 시설인 두둑, 수구, 수로 등을 갖춘 경작지를 말하며, 크게 계단식논과 소구획 논으로 나누어진다.

11) 안승모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야생식용식물을 정리하여 제시한바 있는데, 종시류, 견과류, 근경류, 수피, 야생콩류 등 매우 다양하다(안승모 2002:92-94).

12) 벼는 크게 수도(水稻 paddy rice)와 육도(陸稻 upland rice)로 구분된다. 수도는 물이 가두어지 곳에서 벼가 자라는 것을 말하며, 육도는 마른 땅에서 벼가 자라는 것을 말한다. 양자는 경작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표 1] 울산지역의 경작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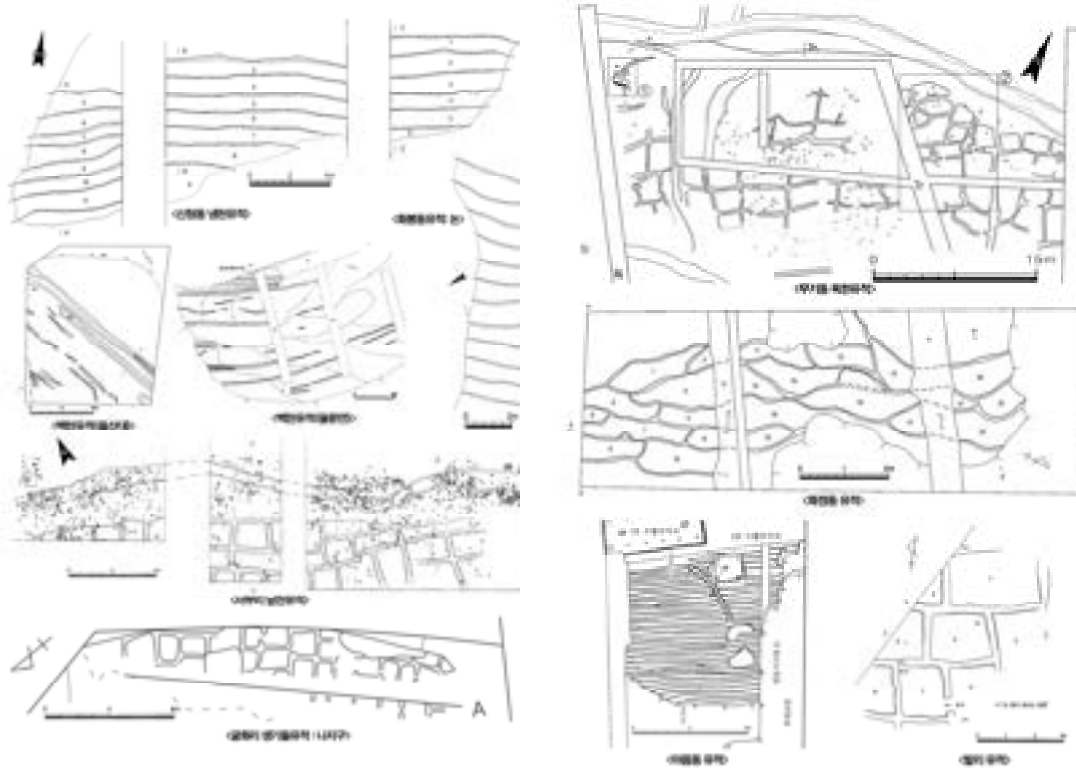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종류	입지	구조	규모	시기
A	신천동 냉천	논	곡간평지	계단식논	·폭 1m 내외, 단차 5cm	전기후반 ~중기전반
B	화봉동	논	선상지의 선단부	계단식논	·폭 80~100cm, 단차 3~3cm	중기
		밭		이랑밭	·두둑폭 25~42cm, 고랑폭 15~20cm	중기
C	입암리	하층:구상경 작유구 중층:밭	하천변 충적지의 배후저지	이랑밭	·고랑폭 30~45cm, 깊이 5cm, 두둑폭 45~60cm	중기
D	서부리 남천	논	하안단구의 말단부	소구획논	·24개 논면, 길이 3m내외, 폭 1.5m 내외 ·논둑 폭 30~40cm, 단면 제형, 수로 폭 0.8~1.5m	중기
E	백천유적 (울산대)	논	하천변 충적지의 배후저지	?	·논면에서 직선구가 확인됨. 폭 30cm 깊이 5~10cm	중기
	백천유적 (울문영)	논		계단식논	·논면에 직선구 확인. 1m이하	중기
F	굴화리 생기들 (나지구)	논	곡간평지	소구획논	·34개 논면, 길이 3m내외, 폭 2cm 내외, 깊이 4cm. ·논둑의 최대폭은 30cm이며, 수구는 7개가 확인	중기
G	무거동 옥현	논	곡간평지	소구획논	·70개 논면이상, 논둑폭 16~52cm, 높이 1.3~6cm, 단면형태 대형 또는 반구형 수구확인	전기후반 ~중기전반
H	야음동	논	곡간의 완경사면	계단식논	·36개 논면, 논폭 30~50cm	중기
I	화정동	논	구릉말단부의 완사면	계단식논	·23개 논면, 길이 2~3m, 폭 50~80cm	중기
J	발리 455-1	밭(논)	낮은 독립구릉 말단부 저지	소구획구	·구상유구로 구획, 길이 4m 내외	중기
K	발리	논	낮은 독립구릉 말단부 저지	소구획논	·8개 논면, 논둑폭 20~30cm, 수구확인	중기

[울산지역 경작유적 보고서 : <표 1> 연번 및 <그림 5> 번호와 같음]

- A.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8, 『울산 신천동 냉천유적』
- B.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8, 『울산 화봉동유적』
- C.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입암리유적』
- D.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5, 『울주 서부리 남천유적』
- E. 백천(울문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2, 『울산 백천유적』
백천(울산대) 울산대학교박물관, 2005, 『울산 굴화리, 백천. 구수리유적』
- F.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입암리유적』
- G. 경남대학교박물관, 2015, 『울산 무거동옥현유적』
- H. 밀양대학교박물관·동의대학교박물관, 2001, 『울산 야음동유적Ⅱ』
- I. 울산문화재연구원, 2004, 『울산 화정동유적』
- J. 가교문화재연구원, 2013, 『울주 발리455-1유적』
- K. 울산문화재연구원, 2003, 『울산 발리유적』

울산지역에서도 계단식논과 소구획논이 모두 확인된다, 계단식 논은 신천동 냉천유적, 화봉동유적, 백천유적, 야음동유적, 화정동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긴 호형이나 부정형이며, 규모는 대부분 폭이 1m 이내로 대략 50~80cm 정도로 아주 좁다. 또한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논둑, 수구(水口), 수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논외의 구조나 경작방법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해준다. 특히, 관개시설인 수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형태의 논인 ‘천수답’일 가능성이 있다. 소구획 논은 서부리 남천유적, 굴화리 생기들유적,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울주 발리 455-1유적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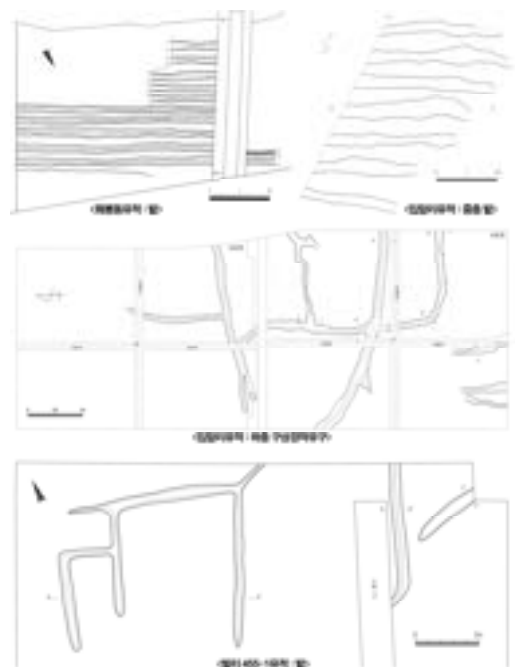
확인되었다. 소구획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대략적인 규모는 길이 3m 내외, 폭 1.5m 내외, 단위면적은 약 3.3㎡~9.9㎡ 정도이다. 논둑 폭은 20~40cm 정도이며, 단면은 제형 또는 반구형이다. 논둑에는 물을 들이고 내보내는 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논으로 물을 유입하는 수로도 확인된다. 이러한 수리시설은 주변에 용수원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3] 울산지역의 경작유적 : 논

울산지역 논둑의 입지는 크게 구릉사면부, 곡부저지 및 단구면, 충적지의 배후저지의 3개의 지형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릉사면부는 야음동유적, 발리유적, 화정유적, 화봉동유적이 해당되며, 곡부저지는 신정동 냉천유적, 굴화리 생기들유적, 무거동 옥현유적, 서부리 남천유적, 발리 455-1유적, 발리유적 등이 해당되고, 충적지의 배후저지는 입암리유적과 백천유적이 해당된다. 이러한 입지양상의 특징은 주로 구릉과 인접한 지역에 경작지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곡부지역을 중요한 경작지로서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지금의 수전처럼 상시적으로 물을 가두어 두는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논과 밭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인 ‘수륙겸종(水陸兼種)’으로 경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울산문화재연구원 2002:42-46).

밭이 확인된 유적은 화봉동유적, 입암리유적, 발리 455-1유적 등으로 이랑밭과 구상의 구획밭이다. 모두 잔존 상태가 불량해서 정확한 규모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화봉동유적의 이랑밭 규모를 통해 일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잔존하는 규모는 두둑폭 45~60cm 정도, 고랑폭 30~45cm, 깊이 5cm로 두둑폭이 고랑폭 보다 조금 더 넓다. 이러한 형



[그림 4] 울산지역의 경작유적 : 밭

태는 전형적인 이랑밭의 형태로서 울산지역에서도 이랑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구상의 구획밭은 현재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는 있지만 정확한 경작방법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구조상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밭경작 방식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윤호필·고민정 2006:40). 향후 이에 대한 자료증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성격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밭경작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 작물은 쌀, 조, 기장, 보리, 밀, 콩, 팥, 복숭아, 박, 오이, 대마 등이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6; 안승모 2008, 2013). 울산지역에서도 대부분의 밭작물들이 재배된 것으로 보인다. <표 2>는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작물출토유적 및 출토작물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작물출토유적 및 출토작물 종류(류아라 2013에서 수정)

연번	유적명	유구번호	출토작물							시기
			쌀	맥류		두류		잡곡류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1	인보리 번답들	26호 주거지				○		○		중기
2	중산동약수Ⅱ	8호 주거지	○	○				○		중기
	중산동약수Ⅱ	10호 주거지		○						중기
	중산동약수Ⅱ	11호 주거지	○			?				중기
	중산동약수Ⅱ	13호 주거지	?							중기
	중산동약수Ⅱ	16호 주거지	?	○					○	중기
	중산동약수Ⅱ	20호 주거지							○	중기
	중산동약수Ⅱ	21호 주거지	?							중기
	중산동약수Ⅱ	30호 주거지	○					○	○	전기
3	매곡동	Ⅳ지구 12호 주거지	○		○			○		중기
	매곡동	Ⅳ지구 14호 주거지	○						○	중기
4	천곡동 가재골Ⅱ	4호 주거지				○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Ⅱ	6호 주거지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Ⅱ	7호 주거지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Ⅱ	14호 주거지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Ⅲ	2호 주거지	○			?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Ⅲ	7호 주거지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Ⅲ	11호 주거지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Ⅲ	15호 주거지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Ⅲ	16호 주거지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Ⅲ	20호 주거지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Ⅲ	24호 주거지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Ⅲ	38호 주거지	○							전기
5	천곡동 가재골Ⅰ	7호 주거지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Ⅰ	8호 주거지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Ⅰ	11호 주거지	○	○			?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Ⅰ	16호 주거지	○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Ⅰ	18호 주거지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Ⅰ	25호주거지	○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Ⅳ	3호 주거지						○		전기
	천곡동 가재골Ⅳ	6호 주거지						○	○	전기

6	달천	5호 주거지	○			○		○	○	전기
7	상안동	Ⅲ-1지구 1호 주거지	○							중기
8	상연암	Ⅱ 지구 1호 주거지				○	○			중기
	상연암	Ⅱ 지구 2호 함정					○			중기
	상연암	Ⅱ 지구 3호 함정	○				○		○	중기
	상연암	Ⅱ 지구 8호 함정					○			중기
	상연암	Ⅳ 지구 3호 수혈	○							중기
	상연암	Ⅳ 지구 4호 수혈	○				○		○	중기
9	다운동 436-5	7호 주거지			○	○				중기
	다운동 436-5	8호 주거지							○	중기
10	다운동 Ⅱ	7호 주거지	○		?	○		○	○	중기
11	굴화리 생기들	2호 주거지		○				○		중기
12	굴화리 장검 Ⅱ	2호 주거지			○					중기
	굴화리 장검 Ⅱ	5호 주거지							○	중기
13	반연리 가막못	Ⅰ 지구 6호 주거지				○				중기
	반연리 가막못	Ⅰ 지구 11호 주거지				○		?		중기
	반연리 가막못	Ⅰ 지구 12호 주거지						○		중기
14	교동리 192-37	4호 주거지	○					○		중기
	교동리 192-37	8호 주거지	○			○		○	○	전기
	교동리 192-37	9호 주거지	○					○	○	전기
15	교동리 456	12호 주거지	○			○				중기
16	명산리	3호 주거지	○							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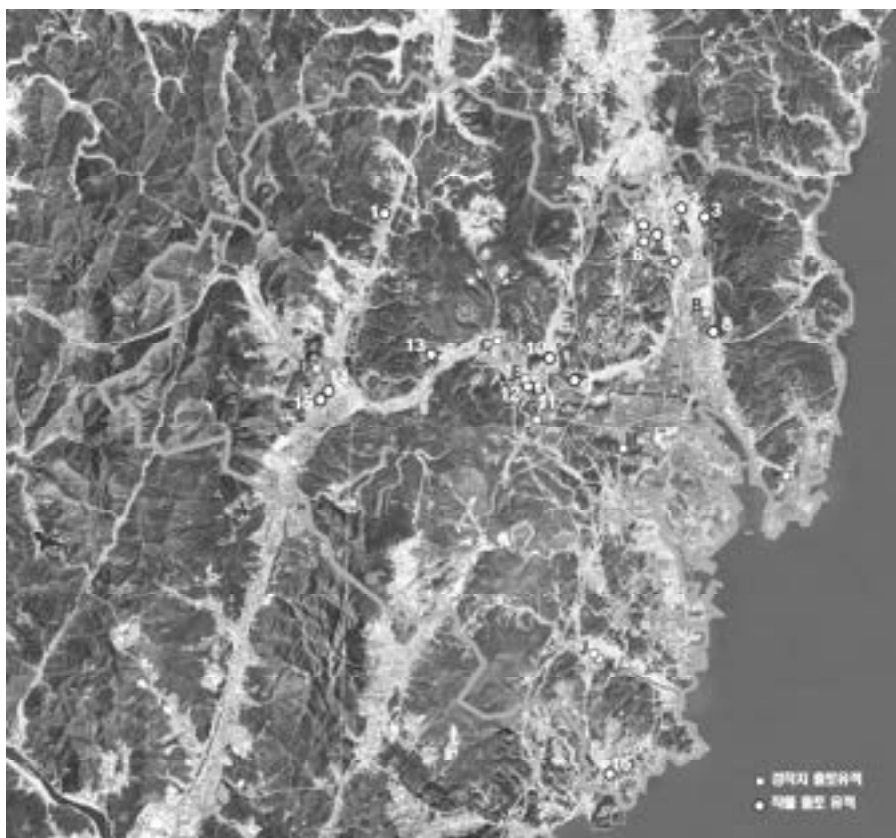
[울산지역 작물출토유적 보고서 : <표 2> 연번 및 <그림 5>번호와 같음]

- | | |
|---------------------------------------|---------------------------------------|
| 01.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 인보리 번답들유적』 | 09.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 다운동 436-5유적』 |
| 02.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 중산 동약수유적Ⅱ』 | 10. 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울산 다운동유적 Ⅱ』 |
| 0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 매곡동유적 Ⅳ지구』 | 11.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 굴화리 생기들유적』 |
| 04.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Ⅱ』 | 12.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 굴화리 장검유적Ⅱ』 |
|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Ⅲ』 | 13.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반연리 가막못유적』 |
| 05. 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Ⅰ』 | 14.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 교동리 192-37유적』 |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Ⅳ』 | 15. 울산문화재연구원, 2004, 『울산 교동리 456유적』 |
| 06.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달천유적 3차 발굴조사』 | 16. 울산문화재연구원, 2011, 『울산 명산리유적』 |
| 07.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상안동유적』 | |
| 08.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상연암유적』 | |

울산지역 주요 출토작물은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등이며, 이를 시기별로 출토 수량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¹³⁾ 전기는 잡곡류인 조와 기장 그리고 쌀의 비중이 높고 맥류인 보리와 밀의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중기는 상대적으로 쌀과 맥류(보리와 밀)의 비중이 증대하며, 잡곡류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¹⁴⁾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한 유적에서 재배되는 작물조성에서도 단일작물만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다작물이 확인된다. 이는 쌀의 지속적인 재배와 함께 맥류, 두류, 잡곡류가 함께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농경활동에서 쌀의 재배는 가장 중요한 식량생산 중 하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밭작물이 재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표 3>에 정리된 수량은 명확하게 동정은 되지 못했지만 같은 과에 속한 것도 수량에 포함하였다.

14) 전기와 중기의 출토작물 수량 비교는 상대적 유적수의 차이가 많아 의미가 없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는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5]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경작지 및 작물 출토유적 분포도

[표 3]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 출토작물 수량

시기	유적수	출토작물								
		쌀	맥류			두류			잡곡류	
			보리	밀	맥류	콩	팥	두류	조	기장
전기	5개소	13	2		1	5	3	1	16	11
중기	13개	16	4	4		7	5	1	8	8

IV. 생계전략의 특징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전략과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자연환경, 취락입지, 생계형태(수렵, 어로, 채집, 농경) 등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의 다른 지역 청동기시대 생계전략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울산지역의 자연환경적(지형, 하천, 해안) 특성과 함께 취락의 발전양상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어 생계전략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이 지역의 특징적 생계전략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내용과 함께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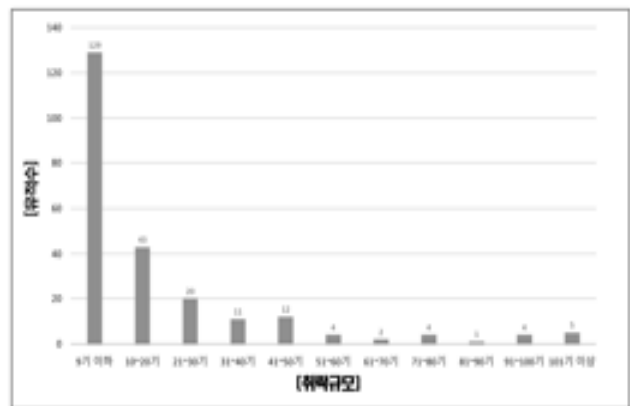
1. 구릉 취락의 일반화와 생계형태의 변화

울산지역의 지형적 특징은 ‘낙동정맥’과 ‘단층’들의 영향으로 북·서·남의 삼면은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남쪽만 동해바다와 맞닿아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동서남북이 단절된 지형으로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로도 한정적이다¹⁵⁾. 또한 울산은 가로지는 하천들은 짧은 거리와 수량이 부족하여 충적지나 하안단구를 발달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해안은 내만환경(內灣環境)으로 울산의 중심부까지도 바다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취락은 하천변의 충적지보다는 안전하고 생활에 용이한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락의 입지선택은 처음에는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지만 점차 생계형태가 구릉지역에 맞게 정착화 되면서 구릉지를 선택적으로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4>와 <그림 6>은 취락내 주거지의 수를 정리하여 취락의 규모를 살펴본 것이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은 약 235개소 정도이며, 이중 대다수가 구릉지에 입지한다. 또한 취락내 주거지 수가 20기 이하의 취락을 일반 취락으로 볼 때 중·대규모 취락이 63개소가 확인되어 전체의 약 27% 정도를 차지한다. 이중에는 취락내 주거지 수가 100기가 넘는 것도 9개소나 확인된다. 따라서 구릉지에 편중되어 있는 입지형태나 중·대규모 취락의 발생과 증가는 환경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취락의 구릉지 입지가 일반화되면서 취락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시스템도 변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구릉지 입지 취락의 생계형태를 수렵과 채집활동으로만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계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규모 양상

취락 규모	9기 이하	10~ 20기	21~ 30기	31~ 40기	41~ 50기	51~ 60기	61~ 70기	71~ 80기	81~ 90기	91~ 100기	101기 이상	총유 적수
유적수	129	43	20	11	12	4	2	4	1	4	5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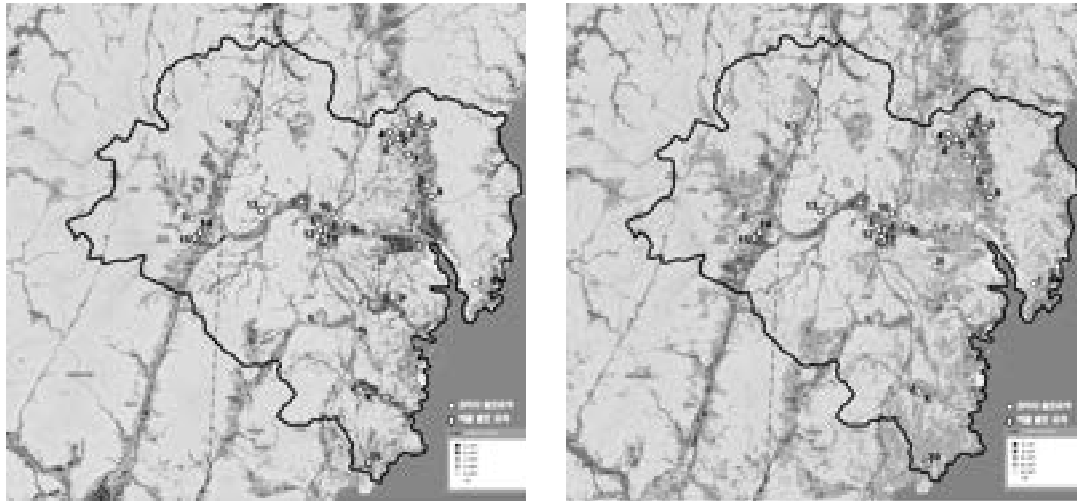
식량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생산량’으로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계형태에서 가장 많은 식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작물’을 생산하는 농경활동이다. 따라서 구릉지에 입지한 취락이라 할지라도 수렵과 채집만으로는 식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농경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경활동의 양상은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울산지역의 기후와 토양 양상을 살펴 그 적합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상청의 국가기상종합정보인 ‘날씨누리’¹⁶⁾에 따르면, 울산지역 기후특징은 연평균기온은 14.1℃, 최고기온은 19.2℃, 최저기온은 9.8℃, 연평균강수량은 1,277.1mm로 기후적으로는 주변지역과 큰 차이는 없고, 남해안지역과 같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기후적으로는 작물성장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토양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¹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논과 밭의 적성등급 토양지도에 경작유적 분포도를 나타



[그림 6]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규모 분포도

15) 울산의 주요 교통로는 태화강을 따라 동서로 연결하는 길과 경주지역과 남북으로 연결된 동천강을 따라 이동하는 길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형으로 볼 때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외부,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길은 매우 한정적이라 하겠다.
16)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average_regional04.jsp
17) 여기서는 토양 및 농업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농사를 짓고자 할 때 토양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토양정보를 제공한다.
<https://soil.rda.go.kr:2360/soil/index.jsp>

낸 것이다. 토양지도에서 색이 진할수록 작물성장에 좋은 토양을 말하는데, 논과 밭의 등급분포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양자 간의 경작방식이나 재배작물의 종류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좋은 토양들은 모두 하천과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밭의 분포범위가 훨씬 더 넓다. 논은 하천변 충적지와 해안평야를 중심으로 곡부평지 지역에 좋은 토양들이 주로 분포하며, 밭은 논을 주요 토양 분포지와 더불어 낮은 구릉지역에도 많이 분포한다.



[그림 7] 좌: 논적성 등급과 경작관련유적, 우: 밭적성 등급과 경작관련유적

농경작지가 확인된 유적의 분포와 토양 적성등급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유적들은 논 적성에 좋은 토양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1급지 뿐만 아니라 다른 등급의 지역에서도 고루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논유구의 분포범위가 현재보다 훨씬 더 넓고 많이 확인될 가능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또한 작물이 출토된 유적들의 분포를 함께 검토하면 농경활동의 범위는 더욱 선명해진다. 전체적으로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을 검토한 결과 울산지역은 농경활동에 매우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울산지역 주변의 논과 밭의 토양환경지도를 보면 울산지역에 비해 토양환경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울산지역이 남동해안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토양환경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울산지역 농경발전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생계형태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곡부 및 구릉지의 농경지 활용

농경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농경집약화¹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농경집약화는 크게 농경지의 확장, 집단노동력의 투입, 농경기술의 발달이 필요하다(김민구 2010; 류아라 2013). 울산지역에서 이러한 농경집약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을 단정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농경지의 입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울산지역의 농경지 입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곡부지역과 구릉지에 농경지가 입지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울산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하천발달이 미약하여 충적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충적지를 활용하는 농경활동 보다는 상대적으로 곡부나 구릉지를 활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곡부나 구릉지를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은 당시의 도구체계로 볼 때 충적지에 비해 많은 노동력과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퇴적토 및 토질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즉, 당시의 청동기시대인들이 울산지역의 지형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노동자본의 투입이 많은 곡부나 구릉

18) 일반적인 의미에서 농업의 집약화(Intensification of agriculture)란 고정된 기간에 고정된 토지에서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곧 작물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한다(키스 윌킨스·크리스 스티븐스(안승모·안덕임 역) 2007:201-201).

지에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울산지역의 인구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취락의 규모를 살펴보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초대형취락들이 들어서고 중규모의 취락들도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울산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증가는 곧 노동력의 증가로 이를 통해 충적지의 대안으로서 곡부나 구릉지를 농경지로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배작물은 단일 작물을 재배하기 보다는 여러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다작물을 선호했던 것을 보이며,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였다. 이러한 농경체제를 ‘다작물농경체계(多作物農耕體系)(이경아 · Gary W. Crawford, 2002:445-454) 한다. 다작물재배는 다양한 작물종류를 재배하는 것으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식량확보 차원에서 보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일 년 내내 농사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안정적 식량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윤호필 2010:15). 또한 이러한 재배방법은 발달된 농경기술과 운영·관리체계가 필요한데, 울산지역의 취락규모나 취락구성 등을 볼 때 복합사회(complex society)의 계층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집단의 존재를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울산지역의 농경지의 확장은 충적지의 대안으로서 곡부지역과 구릉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농경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집단적 노동력은 인구증가를 통해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경기술의 발달은 다작물농경체계의 확립과 충적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형과 토질을 개간하고 경작함으로써 농경기술의 발전도 가속화 되었을 것을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생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울산지역의 생계형태는 다른 지역과 같이 농경을 중심으로 수렵, 어로, 채집의 형태로 생계경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산지역만이 가지는 환경적 특징과 취락양상으로 볼 때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생계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울산지역의 생계경제는 농경과 더불어 수렵, 어로, 채집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취락의 입지가 대부분 구릉에 편중되어 있어 입지적으로 농경활동이 불편한 지역이며, 수렵, 어로, 채집 관련 유물들도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지역에서 취락의 규모나 수에 비해 대규모 경작지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울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취락이 모여 있으며, 특히 중규모 취락이 일반화되고 대규모 취락들이 등장하는 것을 식량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렵, 어로, 채집 활동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즉, 농경활동으로 대부분의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취락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경작지가 확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울산지역의 특징적인 입지형태에 곡부지역과 구릉지역을 주목한 것이다.

곡부지역과 구릉지역은 울산지역의 미약한 하천발달로 인해 충적지의 대안으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취락의 증가와 함께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작물농경체계(多作物農耕體系)의 확립 및 농경기술의 가속화로 농경은 가장 중요한 생계전략이자 식량생산 활동으로서 사회적 위계화나 복합화를 가속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참고문헌]

- 곽종철, 2003, 「가야의 생업」,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해안.
-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김도현·권지영, 2002, 「청동기시대 토제 어망추에 대한 검토」, 『울산연구』 4, 울산대학교박물관.
- 김도현·이재희, 2004, 「蔚山地域 靑銅器時代 聚落의 立地에 대한 檢討-生業과 關聯하여」, 『영남고고학』 35호, 영남고고학회.
- 김도현, 2008, 「청동기시대의 수렵과 채집」 『한국청동기학보』 3호, 한국청동기학회.
- 김민구, 2010, 「영산강 유역 초기 벼농사의 전개」, 『韓國考古學報』75, 한국고고학회.
- 김성욱, 2008, 「청동기시대의 어로활동」 『한국청동기학보』 3호, 한국청동기학회.
-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경문화사.
- 孫峻鎬·上條信彦, 2011, 「청동기시대 갈돌·갈판의 사용흔 및 잔존 녹말 분석」, 『중앙고고연구』 제9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류아라, 2013, 『청동기시대 작물조성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승모, 1993, 「한국선사시대의 식생활-식물성식료」,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3.
- 안승모, 2002, 「신석기시대의 식물성식료(1)-야생식용물 자료」, 『한국 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편.
- 안승모, 2008, 「韓半島 靑銅器時代의 作物造成-種子遺體를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28, 호남고고학회.
- 안승모, 2013, 「한반도 출토 작물유체 집성표」,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 윤호필, 2006, 「밭유구 조사법 및 분석방법」, 『야외고고학』 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윤호필, 2010,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 『경남연구』 제3집, 경남발전연구원.
- 윤호필, 2013, 「경작유구를 통해 본 경지이용방식의 변천연구」,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 이경아 · Gary W. Crawford, 2002, 「옥방 1, 9지구 출토 식물유체 분석보고」, 『晉州 大平 玉房1·9地區 無文土器時代 聚落』, 경남 고고학연구소.
- 이동주, 2012, 「어망추로 본 청동기시대 어로 양상-포항지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14,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최수형, 2013, 「청동기시대 함정유구의 구조분석과 성격 검토-울산, 춘천지역 유적을 중심으로」, 『문화재』 46, 국립문화재연구소.
- 키스 윌킨스 · 크리스 스티븐스(안승모 · 안덕임 역), 2007, 『환경고고학』.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에 대한 토론문

황창한(울산문화재연구원)

윤호필 선생은 한국 청동기시대의 농경 및 생계의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논고를 통해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생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엿보인다. 필자의 연구는 생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같은 시대의 석기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고 울산지역에서 약 20여 년간 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적을 발굴조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고자 한다.

I. 청동기시대 논농사의 개시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농경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논농사가 중요한 획기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논농사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발달된 농경의 형태로 안정적인 식량자원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울산지역의 옥현유적은 최초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논농사 관련 유적이라는 점에서 학사적으로 의의가 크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언제부터 논농사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견은 있으나 청동기시대 전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울산지역의 논농사도 과연 전기부터 시작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최근 울산지역을 포함하여 동해안 지역은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전기의 문화가 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과거 전기로 편년되던 유적이 후기의 유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울산지역에서 논농사의 개시는 전기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아울러 울산지역과 같이 곡간의 벼농사는 충적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사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수확의 불확실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안정적인 농경체제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II. 청동기시대 울산지역의 취락 밀집

청동기시대 울산지역은 하천의 주변 구릉을 중심으로 취락이 발달해 있으며 현재까지 수천기의 주거지가 발굴조사되어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상 충적지가 발달하지 않아 곡간 및 구릉을 중심으로 농경이 이루어졌지만 취락의 밀집도에 비해 가경지는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즉 농경이외에 전통적인 채집, 수렵,

어로 등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어로라고 생각된다. 현재 울산지역의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 및 황어 등은 저장성이 좋은 어종으로 겨울을 나기에 좋은 식재료이다. 이러한 어족자원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토제어망추와 한반도의 동북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 소위 동북형석도라고 명명된 유물이다. 현재 어족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유물은 어망추 뿐이지만 동북형석도가 어류 또는 육류를 손질했던 도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경사회이면서 어류 또는 육류를 저장하여 식료로 활용했던 다른 지역(해외)의 사례와 관련한 도구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Ⅲ. 목축의 가능성에 대하여

울산지역에서는 수렵에 사용된 함정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런데 함정유적에는 바닥에 창을 꽂아 살상력을 높이는 장치가 설치되는데 이런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함정도 다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동물을 생포하여 목축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동기시대 목축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Ⅳ. 청동기시대 울산지역의 생계에 대하여

‘청동기시대 중기가 되면서 농경기술이 발달하고 성숙한 농경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식량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연에 의존해 식량을 획득하는 생계전략인 수렵, 어로, 채집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요인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지역마다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울산지역은 소위 송국리문화권에서 제외된 검단리문화권이라는 지역색을 띤다. 즉 전기의 문화가 후기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울산지역은 농경사회로 성숙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전기의 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 특수한 지형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울산지역의 생계는 수렵, 채집, 어로가 중심이며 농경은 청동기시대 후기까지 보조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사회의 계층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유구가 무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무덤이 울산지역에서는 극히 드물게 확인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울산지역은 다작물농경체계가 확립되어 사회적 위계화나 복잡화가 가속화된 지역과는 차별되는 청동기시대의 문화권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제5발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종말기의 양상

발표 :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 이창희(부산대학교)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양상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1. 머리말

청동기시대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시기구분의 견해 차이이기도 하다. 송국리 문화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에 위치지우는 연구자도 있고, 송국리문화 단계를 중기, 점토대토기 단계를 후기로 비정하는 연구자도 있기 때문이다.¹⁾ 하지만 금회 학술발표에서 제의받은 ‘청동기시대 종말’의 양상이라면 송국리문화·검단리 문화단계²⁾에서 점토대토기문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말하는 듯하다. 이 과도기는 새로운 요소인 점토대토기문화가 파급되는 것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그와 동시기에 존재한 기존의 청동기시대가 어떻게 소멸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선사시대 문화의 종말을 나타내는 지표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새로운 문화의 등장을 통해 앞 시기 문화의 종말기 양상을 유추할 뿐이다.

송국리문화·검단리문화에서 점토대토기문화로 급속하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시간 공존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시간적 폭은 예상외로 넓다고 할 수 있다. 종말기의 기간이 후행하는 초기철기시대와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말기’라는 표현보다는 ‘전환기’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 즉 청동기시대의 종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철기시대 뿐만 아니라 원삼국시대 초반까지 가시권에 두어야 한다.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의 전환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당시 사회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송국리문화(혹은 검단리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시기는 예상 외로 길다(이성주 2017). ②원형점토대토기와 세형동점의 출현은 시간차이가 있으며 원형점토대토기의 상한이 소급된다(이청규 2000). ③AMS연대분석을 활용하여 원형점토대토기의 상한이 상당히 소급되었다(이창희 2013). ④점토대토기문화는 요령지역에서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내려왔다(이재현 2003; 박순발 2004; 이성재 2007; 박진일 2013). ⑤전파경로는 요령지역에서 한반도 중서부로 직접 이주 후 남해안을 경유해 동남해안지역으로 전파했다는 견해(박진일 2013)와 평양을 경유해서 한 갈래는 중서부지역을 거쳐 남해안으로, 또 한 갈래는 원산만을 경유해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였다는 견해(박순발 2004; 박영구 2015)가 있다. ⑥점토대토기인이 한반도 남부지역에 이주했을 초기에는 청동기시대인들과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점차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정인

1) 본고의 시기구분은 청동기시대를 초기-전기-후기로 분기하는 안재호의 안(2006)을 따른다. 청동기시대에 후속하는 시기는 초기철기시대, 원삼국 시대라는 시대명을 사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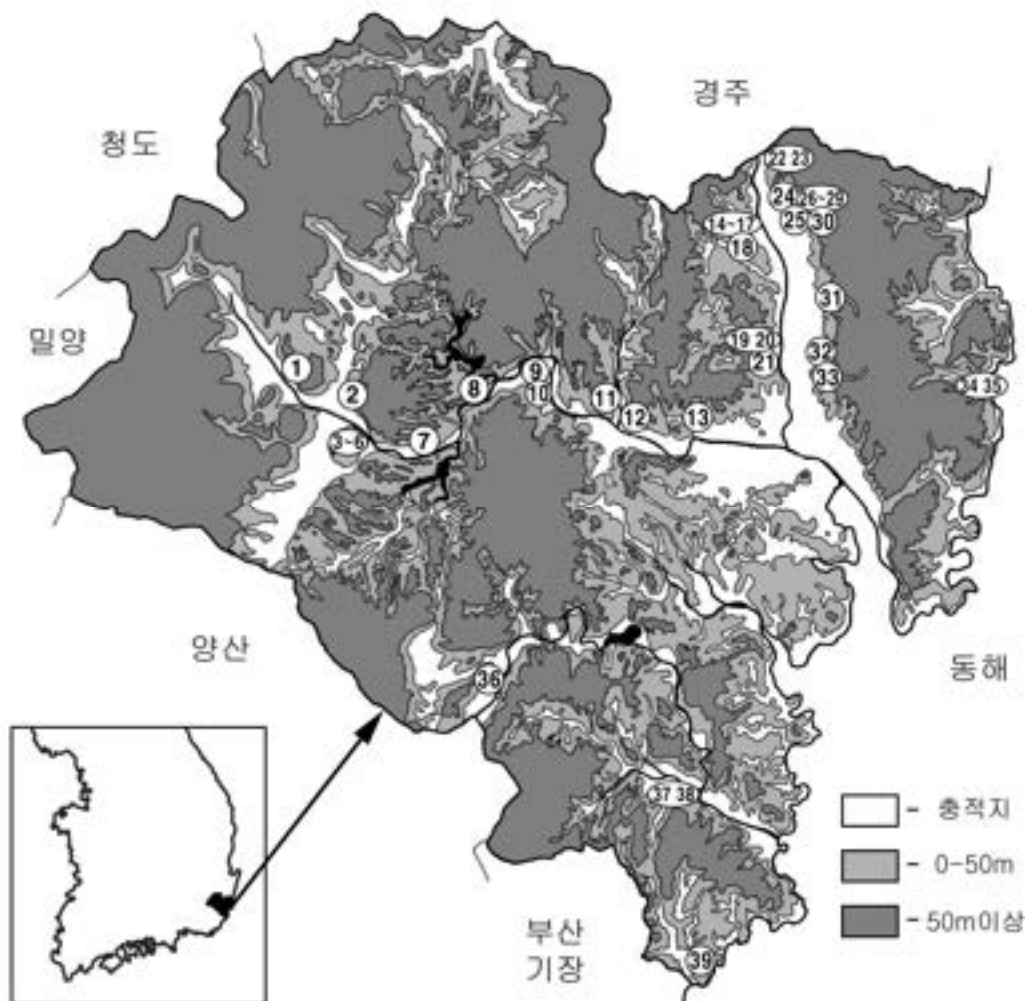
2) 청동기시대 후기는 송국리문화로 대표되지만 실제 송국리문화는 한반도 남쪽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로 볼 때는 송국리문화가 분포하지 않는 곳이 더 넓다. 울산 역시 송국리문화가 분포하지 않는 곳이다. 본고에서는 송국리문화가 분포하지 않은 곳의 고고양상을 송국리문화와 대비하여 ‘검단리문화’라고 표현하였다.

성; 1998; 이형원 2005; 신영애 2011). ⑦점토대토기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원거리 교역망을 가지고 있었다(정인성 1998, 이재현 2002). ⑧청동기시대의 종말·철기시대의 시작은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세계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성주 2017).

본고에서는 전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청동기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어떻게 고고자료에 반영되었는지, 또 이 시대의 양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I. 전환기의 유적 현황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유적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간행된 유적은 39개소에 이른다.³⁾



[그림 1] 울산의 전환기 유적 분포(번호는 표 1의 번호와 일치함)

3) 원삼국시대 유적 중 목곽묘가 확인된 곳은 금회 발표주제와 관련된 청동기시대 종말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표 1] 울산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유적 일람표

(유적명은 보고서명에서 울산이나 읍지를 생략하고 표기하였음. 년도는 보고서 발간년. 시기는 보고서의 견해를 존중하였음. 연번은 도면 1의 번호와 일치함.)

연번	유적명	입지	유구	시기	년도	조사기관	비고
1	항산리 청동유적	구룡말단	목관1	1C후엽	2005	울산문화재연구원	주머니호, 완, 호, 철모, 철검, 철검 출토
2	직동리335-1유적	구룡사면	주거1, 수혈4, 구1	기원전후	2018	울산문화재연구원	삼각형검토대토기, 개 등 토기류 출토
3	교동리192-37유적	구룡	한호, 수혈8	BC1C4/4~AD1C1/4	2009	울산문화재연구원	삼각형검토대토기, 두형토기, 봉상파수 출토.
4	교동리유적	구룡	수혈273, 구15, 건물지284, 묘30, 목책2	BC1~AD3	2013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최대장막, 세형동검 등 출토. 우시산국?
5	신화리유적	구룡	목관2, 옹관2	AD1C초	2011	한국문화연구원	두형토기, 주머니호 출토. 옹관은 합구형치.
6	신화리유적Ⅱ	구룡사면	목관8	AD1C	2011	동아대학교박물관	두형토기 등의 토기류, 철검, 주조철부 등 출토.
7	반송리 425-1유적	구룡사면	수혈28, 굴립주6	기원전후	2013	울산문화재연구원	주머니호, 두형토기, 동북형옹형토기 등 출토.
8	사연리 능내유적	구룡말단	주거1, 옹관2	1C말~2C초	2003	울산문화재연구원	원형주거에서 고래시설 확인
9	입암리 48-10유적	평지	수혈3	?	2016	울산문화재연구원	유물 없음. 삼한시대로 추정
10	입암리유적	평지	옹관3, 수혈9, 주혈	BC3~2C	2015	울산발전연구원	원형검토대토기, 두형토기, 아요이토기 출토.
11	대운동유적Ⅱ	구룡사면	목관4	2C전후	2006	창원대학교박물관	전·후기와질토기 출토.
12	대운동436-5유적	구룡사면	수혈1	1C 후엽?	2008	울산문화재연구원	연질원, 조합우각형파수 등 출토. 청동기시대1호, 2호 주거지는 초기철기시대 가능성.
13	유곡동·우정동유적		도광2	BC1C	2012	중앙문화재연구원	도광요에서 원형검토대토기, 두형토기 등 출토.
14	달천유적1차	구룡사면	주거1, 무덤1, 수혈4	BC 1C중반	2008	울산문화재연구원	달천3차지역의 시굴조사. 아요이토기 출토.
15	달천유적2차	구룡사면	수혈11		2008	울산문화재연구원	3차지역에 연결.
16	달천유적3차	구룡사면	주거7, 수혈27, 원호, 구, 굴립주, 채광창 등	BC 1C중엽~기원전후	2010	울산문화재연구원	검토대토기, 와질토기, 아요이·낙랑계토기 출토. 가장 이른 채광유구 확인.
17	천곡동유적 나지구	구룡	수혈6	BC3C	2005	울산발전연구원	원형검토대토기, 조합우각형파수, 두형토기
18	상안동유적	구룡사면	수혈2	BC2C	2010	울산문화재연구원	원형검토대토기, 두형토기, 어망추 출토
19	장현동유적Ⅰ 지구	구룡사면	주거2, 수혈3	초기철기	2013	울산문화재연구원	원형, 방형 주거, 두형토기, 개 출토.
20	장현동유적Ⅳ 지구	구룡사면	목관 19, 목곽36, 토광4, 옹관16, 구1	기원전후~3C	2013	울산문화재연구원	목관요에서 목곽묘까지 지속적으로 축조.
21	약사동 원막유적	구룡사면	주거1	?	2013	한겨레문화재연구원	방형주거. 원형검토대토기 출토.
22	중산동547-1유적	구룡사면	목관1, 목곽1	목관은 2C중엽	2008	울산문화재연구원	청동검파부철검, 주머니호 출토
23	중산동542유적	구룡사면	목관5	2C중엽~후반	2011	울산문화재연구원	단경호, 표비 등 출토.

24	중산동 약수유적 II	구릉	주거4, 수혈5, 옹관1, 논	BC2~1C	2009	울산문화재연구원	삼각형점토대토기, 원형점토대토기는 1점, 아요이계토기 출토. 삼한시대 논을 확인.
25	신천동585-6유적	구릉사면	목관1	기원전후	2009	울산발견연구원	삼각형점토대토기 출토.;
26	매곡동유적 I 지구	구릉사면	주거1	초기철기	2005	울산문화재연구원	무문4호 주거가 삼한시대일 가능성
27	매곡동유적 II 지구	구릉사면	주거3, 수혈1	초기철기	2005	울산문화재연구원	무문3호 주거가 삼한시대일 가능성, 주거와 수혈이 청동기시대와 혼재, 아요이계토기 출토.
28	매곡동유적 III-2지구	구릉사면	수혈1	초기철기	2007	울산문화재연구원	청동기시대 주거, 수혈과 혼재, 원형점토대토기, 반원형석토 출토.
29	매곡동330-2번지유적	구릉사면	수혈4, 옹관2	초기철기	2010	한국문화재연구원	원형점토대토기 출토
30	호계동28-1유적	구릉사면	주거2, 수혈1, 구 3	초기철기	2016	울산문화재연구원	주거 방형, 구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출토.
31	창평동 810번지유적	구릉	주거2, 목관10, 토광4, 옹관7 등	BC1C	2012	우리문화재연구원	2호 목관에서 BC1세기대의 천한경 2점 출토.
32	상안읍유적	구릉사면	무덤1	초기철기?	2010	울산문화재연구원	삼각형근형 석창과 석축 출토.
33	호문동 산68-1유적	구릉사면	주거1	초기철기	2011	대동문화재연구원	원형주거, 원형점토대토기 출토.
34	산하동 화임고분군	구릉사면	구1	초기철기	2011	울산발견연구원	청동기시대 2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구연부편이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됨.
35	산하동유적	구릉사면	구1	초기철기	2014	울산문화재연구원	C지구 구에서 점단리리식토기와 함께 구연이 외반하는 아요이계토기 3점이 출토.
36	대대리 종대유적	구릉사면	목관1	BC 1C후엽	2006	울산문화재연구원	주조철부, 삼각형점토대토기 출토, 수혈로 보고되었으나 목관묘일 가능성.
37	발리456-1유적	구릉끝자락	목관10, 옹관2	3C중엽	2013	가교문화재연구원	후기와질토기, 목관일 가능성.
38	대안리유적	구릉끝자락	목관65, 옹관9	2C중엽	2002	울산대학교박물관	주머니호, 주조·단조철부, 철축 등 출토.
39	명신리314-1유적	구릉사면	주거11, 수혈2, 구1	BC2C말~기원전후	2009	울산발견연구원	원형(고래시설), 방형주거, 방형이 先(?) 원형, 삼각형점토대토기(主)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태화강과 회야강, 동천변의 교통의 요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송국리문화집단과 점토대토기집단이 배타적 점유관계를 가지며 상호 교류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울산지역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점토대토기 관련 유구가 분포하는 전역이 앞 시기 혹은 동시기의 무문토기인들이 점유한 곳이다. 실제 배타적으로 점유되지 않았다. 유적의 입지에 대해서는 V장에서 다시 상술하겠다.

III. 전환기의 주거지와 무덤

본 장에서는 고고자료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당시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와 무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와 무덤에서 앞 시기와는 다른 요소가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는 단순한 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주민의 이주 혹은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1. 주거지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는 평면형태나 내부시설이 정연하지 않고, 수혈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장기간 존속을 염두에 두고 축조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이때의 주거는 바닥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구릉의 위쪽만 얕게 굴착하였거나 혹은 아예 수혈을 굴착하지 않고 벽과 지붕을 결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노지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가 많은데 이것은 역시 상시적인 이동을 전제로 한 주거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해안지역의 이 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 선행하다가 점차 원형으로 변화한다고 한다(김나영 2007; 이정은 2011). 송국리문화분포권의 경우 앞 시기인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주거지가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이기 때문에 방형주거지의 경우 새롭게 유입된 주거형태라는 것이 뚜렷이 확인된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후기에도 방형계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이용된 점단리문화분포권의 경우 평면형태가 방형인 경우 전단계인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변형인지 새롭게 유입된 요소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수혈의 깊이가 얕고 주혈이 정연하지 않고 벽구가 없는 주거가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에 유행하는 것은 확실하다(이수홍 2007; 신영애 2011). 기존의 무문토기인들이 이주한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의 주거를 모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청동기시대 사회에 장기존속이 어려운 환경이 도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효문동 산68-1유적의 원형주거지가 가장 이른 점토대토기인의 주거이다. 울산에서는 평면 원형이 앞 시기에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이정은(2011)은 방형계 주거→방형과 원형이 혼재하며 무시설식노지와 함께 부뚜막과 고래시설이 축조되는 단계→원형계 주거지에 부뚜막과 고래시설이 설치되는 단계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울산지역에서 3단계의 대표적인 주거는 사연리 늪내유적 5호 주거지와 명산리 314-1유적의 주거지이다. 이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무엇보다 한 쪽 벽면에 고래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2. 무덤

지석묘, 주구묘, 석관묘, 단옹직치의 옹관묘 등이 청동기시대의 묘제라면 점토대토기인들의 묘제는 적석토광묘, 목관묘 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석묘를 비롯한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초기철기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토대토기인들이 한반도에 등장하였다고 해서 무문토기인들이 일시에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다.

울산지역은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타 지역보다 확연히 적은데, 전환기의 무덤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울

산지역에서 확인된 명확한 전환기 점토대토기인의 무덤 중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상연암유적의 토광적석묘이다.

상연암유적의 토광적석묘(그림 2의 1)는 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유구 전체에 할석과 천석이 쌓여 있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무덤은 완주 반교리유적과 정읍 정토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다(서길덕 2018). 출토된 석축과 석검⁴⁾을 통해서 볼 때 점토대토기 단계에서도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이 확실하다. 이 석검이 보령 교성리유적에서 원형 점토대토기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포항 학천리유적 석관묘에서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검파두식과 함께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달천유적 1차 조사에서 확인된 소형할석석관묘(그림 2의 2)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삼한시대 유구와 함께 분포하기 때문에 전환기의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울산 두왕동유적⁵⁾에서 조사된 할석석관묘(그림 3)에서 석검과 검파두식이 함께 출토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환기에 축조된 앞 시기의 전통을 가진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울산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목관묘가 축조된다. 토광적석묘와 할석석관묘에서 목관묘로의 변화는 대외교류의 확대,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반영한다. 바야흐로 울산지역에서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낙랑,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림 2] 전환기의 무덤

(1:상연암유적 토광적석묘, 2:달천유적 1차 2호 석관묘, 3:대대리 중대유적 추정 목관묘, 4:유곡동유적 1호 목관묘)



[그림 3] 두왕동유적 석관묘와 출토된 검파두식

IV. 울산지역 전환기 편년

이 시기의 세밀한 편년작업은 난해하다. 무엇보다 점토대토기의 기형 혹은 점토대의 형태로 세밀한 편년이 어려울 뿐더러 또 점토대토기가 파편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편년 작업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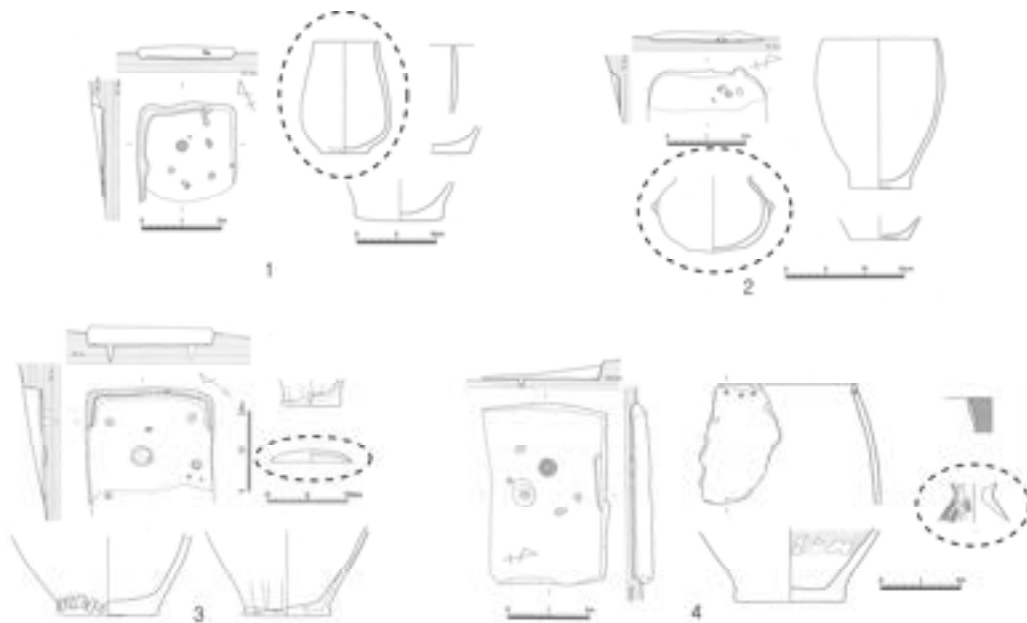
박진일(2013)은 출토유물의 조합을 통한 발생순서에 의해 한반도 남부지역을 5단계로 분류하였는데, 그의 3단계에 울산산을 비롯한 동남해안지역에 점토대토기문화가 전파된다고 한다. 신영애(2011)와 이정은(2011)은 원형점토대토기단계→

4) 필자(2012)는 이러한 형태의 석검을 석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포항 학천리유적 4호 석관묘에서 검파두식과 함께 공반되어 출토된 사례가 있고 최근 울산 두왕동유적에서도 검파두식과 공반되어 출토되었기 때문에 석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5)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아래의 약보고서를 참조하였다.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완료 약식보고서」.

원형과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존하는 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 필자(2007)는 울산식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거나 변형된 울산식주거지에서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단계→변형된 울산식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단계→벽부식노지가 설치된 원형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신영애·이정은의 단계구분을 참조하고 최근의 자료를 추가하여 새롭게 3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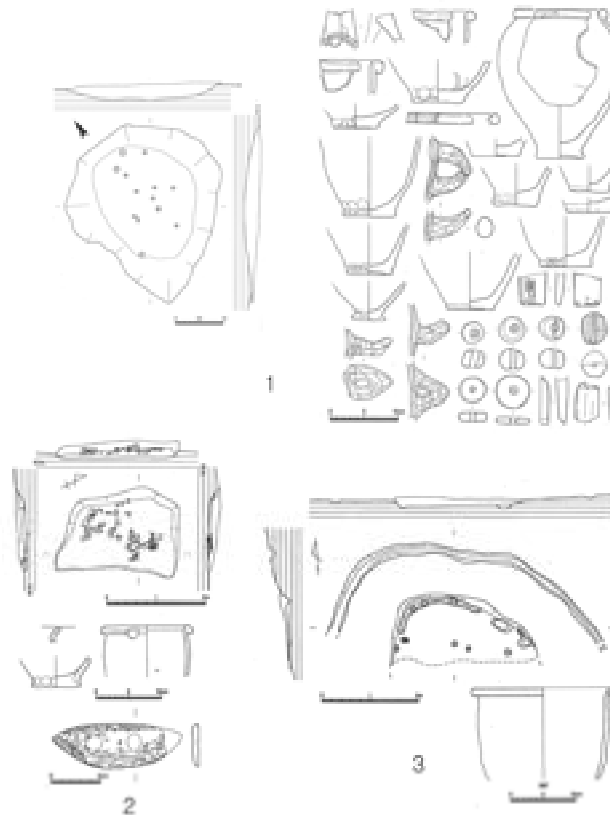
[그림 4] 점토대토기 관련 유물이 출토된 재지계주거지
(1:매곡동유적 I 지구 4호, 2:신정동유적 12호, 3:검단리유적 107호, 4:매곡동유적 II 지구 3호)

1단계 : 원형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는 단계이다. 울산지역에서 초기 점토대토기인들의 유적은 입암리유적, 천곡동 나지구, 상안동유적, 매곡동유적 III-2지구, 효문동 산68-1유적, 상연암유적 등이다. 기존의 방형계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고, 효문동 산68-1유적과 같이 이주민의 주거가 확실한 원형주거지도 확인된다. 매곡동유적 I 지구 4호 주거지 출토품(그림 4의 1)은 점토대의 부착 여부는 모호하지만 기형은 원형점토대토기의 이미지이다(이수홍 2007; 신영애 2011). 검단리유적 107호 주거지 출토품(그림 4의 3)은 청동기시대에 확인되지 않은 뚜껑인데 새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다(신영애 2011). 신정동유적 12호 주거지 출토품(그림 4의 2)은 동체 상단에 꼭지형紐가 부착된 적색마연토기인에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하양 대학리유적 1호 주거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매곡동유적 II 지구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개(그림 4의 4) 역시 점토대토기 단계의 유물이다. 따라서 그림 4는 기존의 전통을 이어받은 방형계 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 관련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재지의 무문토기인과 점토대토기인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명확하게 점토대토기인의 주거라고 판단되는 것은 효문동 산68-1유적에서 확인된 원형주거지이다. 송국리문화가 분포하지 않은 울산은 전기부터 방형계 주거지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원형주거지는 새로운 문화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대부분 수혈유구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수혈유구에서 점토대토기와 함께 앞 시기의 무문토기가 공반되는 점이 특징이다. 수혈을 조성한 점토대토기인들이 재지의 무문토기인들의 문물을 활발히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점토대토기인들의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거의 수혈이 얕거나 지상화된 주거형태이며 그것은 장기적인 정착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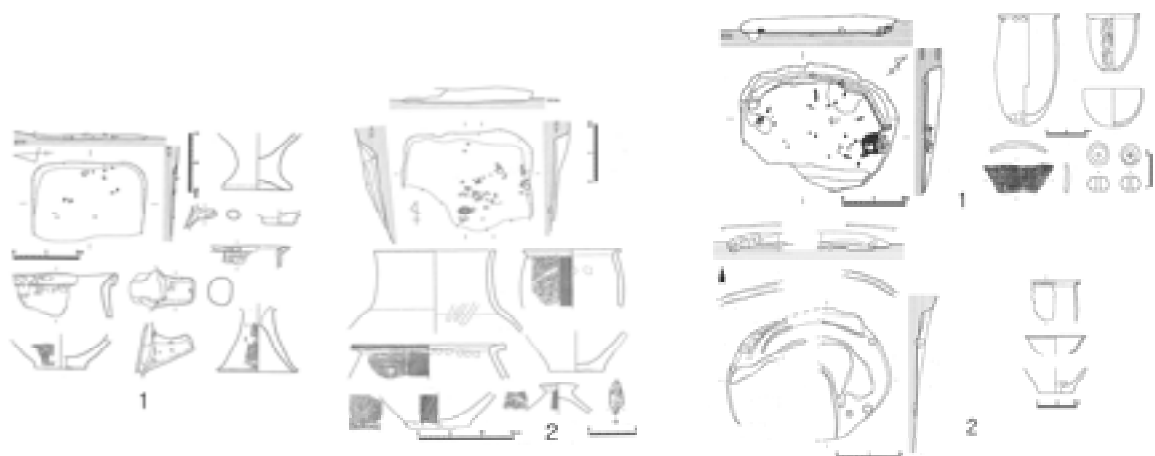
2단계 :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며 원형점토대토기가 소량 확인되는 단계이다. 중산동 약수유적Ⅱ, 매곡동유적 Ⅱ지구, 달천유적 등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대부분의 유적이 이시기에 해당된다. 일부 유적은 3단계까지 이어져 1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착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산동 약수유적Ⅱ·매곡동유적 Ⅱ지구의 주거지는 방형계인데 이때까지 무문토기인의 주거가 계속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야요이계토기가 출토되는 등 울산지역에서 외래계토기가 나타난다. 물론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단계에 효문동 산68-1유적에서 원형주거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기의 원형주거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3단계 :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와질토기가 공반되는 단계이다. 간혹 원형점토대토기 파편이 공반되기도 한다. 사연리 늪내유적, 명산리 314-1유적, 신화리·교동리유적 등 유적의 수가 2단계에 비해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목관묘유적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달천유적 등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삼각형점토대토기, 와질토기와 함께 공반되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볼 때 울산지역은 원형점토대토기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가장 늦게까지 존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명산리 314-1유적과 사연리 늪내유적의 사례와 같이 원형주거지가 본격적으로 축조되는데 재지의 무문토기인들이 새로운 주거양식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새로운 주거양식이란 노지를 벽에 붙여 만들고 고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무덤은 새로운 목관묘가 주요제로 채택되면서 목관묘집단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된다. 이 시기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5] 1단계의 유구

(1:천곡동유적 나지구 1호 수혈, 2:중산동 약수유적Ⅱ 1호 수혈, 3:효문동 산68-1유적 Ⅲ-2구역 주거지)



[그림 6] 2단계의 주거

(1:중산동 약수유적Ⅱ 1호 주거지, 2:매곡동유적 Ⅱ지구 2호 주거지)

[그림 7] 3단계의 주거

(1:사연리 늪내유적 5호, 2:명산리 314-1유적 3호)

V. 울산지역 전환기의 특징

울산지역은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다른 남부지역에 비해 점토대토기문화가 늦게 전파된 곳이었다. 점토대토기문화라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지역과 차이점도 간취된다. 아래에서는 울산지역의 전환기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점토대토기의 종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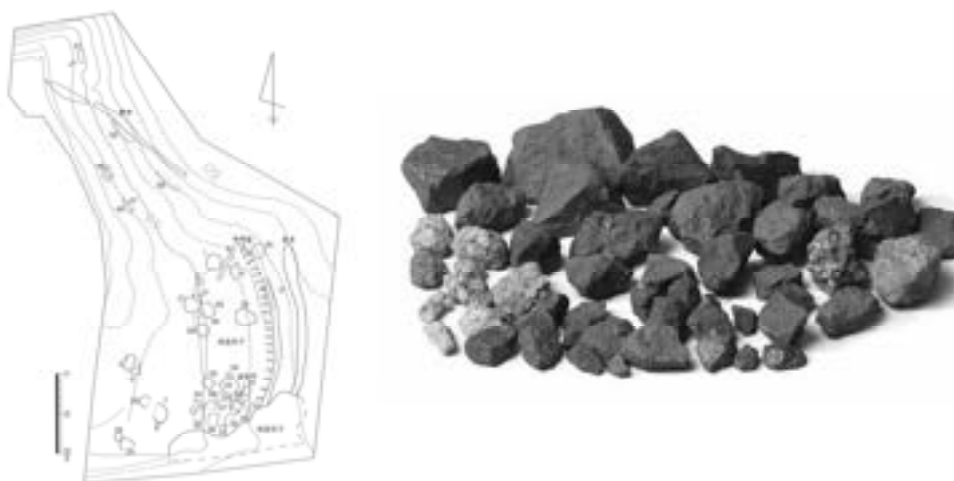
요령지역에서 서해안으로 남하한 점토대토기문화가 남해안을 따라서 동진하여 울산지역으로 전파되었건(박진일 2013), 일부는 소백산맥을 넘어 낙동강을 따라 남하하다가 대구와 경주를 거쳐 울산으로 전파되었건(정인성 1998; 이정은 2011), 일부는 대동강지역에서 원산만을 경유해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였건(박순발 2004; 박영구 2015) 울산지역이 점토대토기의 종착지인 점은 명확한 것 같다. 하지만 유물상 혹은 과학적인 연대측정에 의한 가설은 아니다. 울산이 한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인 원인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현재로는 다른 이견은 없을 것 같다.

2. 점토대토기인 분포지의 입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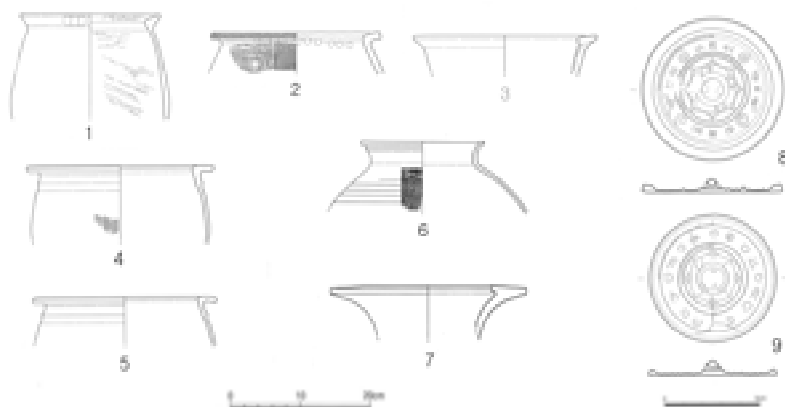
한반도 남부지역의 타 지역에서는 초기 점토대토기집단은 기존의 무문토기집단과 점유지를 달리하면서 점차 접촉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은 점토대토기집단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철기시대인들의 주거는 정주성이 낮고 안정 반제리유적이나 강릉 방동리유적과 같이 중소규모의 취락 형태를 갖춘다 하더라도 고지에 입지하여 송국리문화와 공존을 허락하지 않았다(이창희 2016)는 표현에는 동시기에 일정지역에 점토대토기인과 무문토기인들이 병존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울산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집단이 분포하는 곳은 모두 무문토기인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던 곳이었다. 먼저 점유된 취락이 폐기되고 점토대토기인들이 점유를 하였는지 정말로 동시기에 공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점토대토기인들만의 유구만 분포하는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치 일본열도에서 점토대토기가 야요이취락과 거의 동일한 입지를 갖는 것(이창희 2016)과 동일한 양상이다. 이미 점토대토기인들이 울산지역에 확산될 시점에는 기존의 무문토기인들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시점이거나 적어도 울산지역에서는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대한 갈등이 현저히 적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무문토기인을 점토대토기인들이 대체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공존하면서 점차 다수의 무문토기인들이 소수의 점토대토기인들이 보유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철광산의 발견

초기 점토대토기인들의 취락은 대규모 혹은 장기간 존속했던 취락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이 전제된 주거형태인데 이동의 원인은 철과 같은 광상의 발견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시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구석부나, 석창, 합인석부, 석창, 석작, 등은 군사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생업활동과 관련되는데 그것이 광상의 파악과 개발과 관련된다는 것이다(이재현 2002).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적이 철을 채광한 흔적이 확인된 달천유적이다. 달천유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을 채광한 채광수혈, 채광장이 조사되었다. 달천유적이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이 원했던 철의 발견지일 것이다.



[그림 8] 달천유적 삼한시대 배치도와 채집된 철광석



[그림 9] 울산에서 출토된 외래계유물

(1:매곡동 II지구 1호, 2:同 2호, 3:중산동 약수유적II 채집품, 4~6:달천유적 48호, 7:同 채광갱, 8·9:창평동 810번지 유적 2호 목관묘)

4. 활발한 대외교류 활동

전국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인 울산지역에서 검단리문화 단계에 타지역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거나 타지역에서 제작된 유물의 출토사례는 많지 않다. 청동기시대에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급자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점토대토기문화 단계가 되면 울산에서도 활발한 대외교류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출토된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의 1~5는 야요이계 토기인데 울산의 재지인이 야요이토기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림 9>의 7은 야요이인이 제작한 토기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야요이사화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은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그림 9>의 6은 낙랑계토기인데 야요이사화 뿐만 아니라 낙랑과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의 8·9는 창평동 810번지 유적 2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전한경인데 재지에서 한경을 모방하여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이양수·김지현 2012) 이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중국의 중원지역과도 교류 혹은 정보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울산에서 대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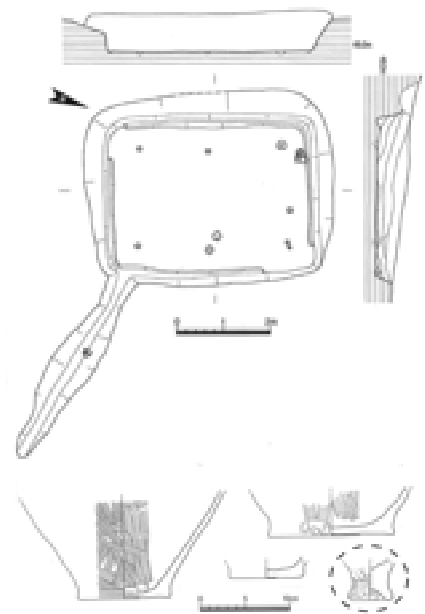
교류를 알려주는 자료가 대부분 달천유적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역시 교류의 계기는 달철철장에서 채광된 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삼국지의 기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철이 매개가 되어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VI.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종말

이 시기는 유적과 주거지 숫자의 급격한 감소, 지석묘의 소멸(급격한 감소), 세형동검의 등장, 철기의 등장과 같은 고고학적인 양상이 뚜렷함에도, 이 고고양상에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다음과 같이 많다. 이것은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①유적의 수가 전시기에 비해 급격히 감소. ②앞 시기 주민들의 행방.
③주거지의 퇴화. ④생계경제의 의문 등이다. 울산의 유적 검토를 통해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유적의 수 감소와 ②앞 시기 주민들의 행방은 연결되는 문제이다. 점토대토기 유입시기에 유적의 수가 적은 것은 이주민 집단이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땅을 굴착한 수혈의 형태만 후대까지 잔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주거지의 깊이가 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확인된 유적보다는 더 많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 시기 주민들이 일시에 사라졌다고 보다는 와질토기 출현 전까지 선주민들이 원래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다가 점차 선진적인 점토대토기인들에 동화되어 갔을 것이다. 즉 우리가 송국리문화(혹은 검단리문화) 단계로 인식하였는데 실제 초기철기시대에 존속했었던 유구와 유물이 많을 것이다. 아무튼 점토대토기인들의 선진적인 문물 혹은 생활방식은 철의 이용과 그 철을 매개로 한 넓은 범위의 대외교류를 말한다. ③얕은 수혈, 정연하지 않은 주혈과 노지 등 주거지가 무문토기인들의 그것보다 퇴화된 양상인데 점토대토기 문화 출현기에는 정착 보다는 이동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IV장의 3단계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으로 정형화되며 수혈의 깊이도 깊어지고 고래시설이 설치된다. 점토대토기 문화가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초기철기시대의 생계경제에 대한 의문은 앞 시기 청동기시대에 확인되는 경작유구가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계경제가 달랐다 하더라도 기존의 무문토기인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했다면 초기철기시대에도 밭이나 논과 같은 생산유구가 존재했을 것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중산동 약수유적II의 계곡부 토층 분석 결과 이 시기의 논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계곡부를 이용한 논경작은 소규모로 지속되었을 것이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다량의 탄화미가 출토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그렇다고 벼농사가 주식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밭은 구릉에 위치하면 삭평되어 현재까지 잔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시기 수렵, 어로, 발작물 채배, 벼농사 등 다양한 식료획득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림 10] 천곡동유적 '나'지구 9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울산의 청동기시대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유행할 때까지 기존의 검단리유형이 지속된다(이수홍 2007; 신영애 2011). 대체로 주거지의 규모가 작고 주혈이 정연하지 않으며 벽구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지가 전형적인 울산식주거지와 병행하다가 점차 후행한다고 생각되나 전형적인 울산식주거지조차도 초기철기시대의 마지막까지 존속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0>은 천곡동유적 '나'지구 9호 주거지와 출토유물이다. 주거지는 전형적인 울산식주거지인데 출토된 유물 중 저부라고 보고된 유물은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초기철기시대 유물이 출토되는 울산식주거지의 조

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동기시대가 환호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락을 이루었다면 이 시기에는 목관묘를 중심으로 중심지가 집결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울산지역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무덤이 교동리 1호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목관묘 유적은 앞 시기의 환호가 확인된 곳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환호 역시 초기철기시대에도 계속 축조되는 것으로 볼 때 중심지의 입지는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청동기시대적인 요소는 목관묘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완전히 소멸한다. 철광산을 이용하고 본격적으로 철기가 등장하며 전한경의 출토에서 알 수 있듯이 중원문화와 유입된다. 새로운 묘제인 목관묘가 정착하고, 신제도술에 의해 와질토기가 등장한다. 이때야말로 청동기시대가 종언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이 동아시아의 질서에 편입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이성주 2007).



[그림 11] 동리 1호 목관묘와 출토유물

Ⅶ. 맺음말

이상으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전환기의 고고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가 공존하는 양상이라 종말기가 아니라 전환기이며 완전한 종말은 목관묘 문화의 정착과 와질토기의 등장시점이다.

본고를 검토하면서 시대(시기)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게 되었다. 송국리문화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비정하던, 점토대토기문화단계를 후기로 비정하던 이 시대의 역동적인 사회상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가 없다. 모두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시대(시기)구분안이다. 그것은 후행하는 혹은 동시기의 초기철기시대와 함께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초기철기시대 혹은 삼한시대라는 시대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청동기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유구·유물의 탐색만으로 이 거대한 담론을 담아낼 수 없다. 또 특정 지역의 연구로도 불가능하다. 동아시아 역사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 金羅英, 2007,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朴淳發, 2004,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 過程」, 『錦江考古』 創刊號.
- 朴榮九, 2015,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後期 聚落의 構造와 展開」, 『牛行 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진인진.
- 朴辰一, 2013,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서길덕, 2018, 「한국 점토띠토기문화기 무덤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申英愛, 2011, 「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成載, 2007, 「중국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學研文化社.
- 이성주, 2017, 「支石墓의 축조중단과 初期鐵器時代」, 『嶺南文化財研究 30 대구·경북의 지식과 문화』, 영남문화재연구원.
- 李秀鴻, 2007, 「東南部地域 青銅器時代 後期の 編年 및 地域性」, 『嶺南考古學』 40, 嶺南考古學會.
- 이양수·김지현, 2012 「V. 고찰 -울산 창평동 810번지 유적 2호 목관묘 출토 환경에 대하여-」, 『蔚山 倉坪洞 810番地 遺蹟』, 우리 문화재연구원.
- 李在賢, 2002, 「IV. 考察」, 『金海大清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정은, 2011, 「영남 동남해안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 2013, 「청동기시대 후기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유패널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이창희, 2016, 「한국 원사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제4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이청규, 2000, 「요령 본계현 상보촌 출토 동검과 토기에 대하여」, 『고고역사학지』 16, 동아대학교박물관.
- 李亨源,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2, 湖西考古學會.
- 鄭仁盛, 1998, 「낙동강 유역권의 細形銅劍 文化」, 『嶺南考古學報』 22, 嶺南考古學會.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양상”에 대한 토론문

이창희(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발표문은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재지계의 검단리유형과 외래계의 점토대토기문화와가 접촉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청동기시대가 종언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발표문의 핵심은 동남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파급이 미약했고,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할 때까지 검단리유형의 문화가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골자로 한 발표자의 舊說(이수홍 2007)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검단리유형을 爲始로 한 재지의 기층문화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다만 금번 발표에서는 새로 유입된 문화로서의 점토대토기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행해진 듯하다. 발표문의 후반부(IV장)에 전환기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며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울산지역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남부 전체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풀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발표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본문의 내용과 상충되어 모호한 감이 없지 않다.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과 코멘트를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도록 한다.

1. 발표자의 1단계에는 효문동유적을 제외하면, 원형점토대토기는 울산지역의 전통적인 방형계주거지에서 출토되며 대부분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수혈을 조성한 점토대토기인들이 재지의 무문토기인들의 문물을 활발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 원형점토대토기인들이 어딘가로부터 울산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재지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2. 발표자의 2단계에는 1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착성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1단계의 점토대토기인들의 주거는 장기적인 정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

→ 점토대토기인들이 울산지역에 이주한 뒤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정주도가 높아진 집단이 일부 존재한다.

3. 발표자의 3단계에는 원형계주거지가 본격적으로 축조되고, 재지의 무문토기인들이 새로운 주거양식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무덤은 새로운 목관묘가 주묘제로 채택되면서 목관묘집단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된다고 한다.

→ 사람은 바뀌지 않고 새로운 주거양식이나 토기문화를 수용했다.

1·2·3을 종합하면, 원형점토대토기인들은 울산지역에 이주하였는데, 처음에는 재지문화에 동화되었다가, 나중에는 외래문화를 수용한 것이 된다. 그런데 3단계에 외래문화를 수용한다는 주제는 누구인가? 여전히 청동기시대의 재지민, 즉 검단리유형 사람들인가, 아니면 재지사회에 동화된 원형점토대토기인들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다인가? 목관묘집단이란 목관묘를 채택한 검단리유형 사람들인가 새로이 이주한 사람들인가?

이에 대해 발표자는 무문토기인을 점토대토기인이 대체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공존하면서 점차 다수의 무문토기인들이 소수의 점토대토기인들이 보유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았다. 소수 점토대토기인들이 다수 무문토기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지사회에 동화됨으로써 새로운 원형계주거지보다는 방형계주거지, 혹은 변형된 방형계주거지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발표자의 3단계) 재지민들이 소수 점토대토기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모호한 표현인데,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를 확실히 구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는 기반문화가 다른 토기(원형·삼각형)가 크게 1·2차로 시기를 달리하여 울산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점토대토기인들의 취락이 한시적이고, 이동이 전제된 주거형태이며, 광상의 발견과 관련된다는 견해에 대해 발표자는 달천유적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달천유적을 위시로 한 철을 둘러싼 대외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는 발표자의 3단계에 무문토기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달천유적은 수구Ⅱ식의 야요이토기와 탄소14연대로 보아 기원전 1세기 전반경의 역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이기 때문에 발표자의 1단계보다 시기가 현저히 늦다. 따라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는 관계없으며, 검단리유형과의 시간적 접점도 괴리가 있다.

또한 발표문의 말미에는 ‘앞 시기 주민들의 행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검단리유형에서 이어지는 재지민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들은 와질토기 출현 전까지 원래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다가 점차로 선진적인 점토대토기인들에 동화되어 갔다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점토대토기인들이 재지민의 문화를 받아들여 재지사회에 동화되었다가, 재지민들이 점토대토기문화를 받아들여 다시 점토대토기인들에 동화되었다가 등 다소 혼란스러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재지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일어난 문물의 수용과 동화에 있어서, 그 주체와 과정을 명확히 하여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울산지역에서 전형적인 울산식주거지를 반출하는 취락과 점토대토기단계의 취락과의 입지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겠다. 전자의 주된 생산기반은 수도작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점토대토기단계에 취락의 입지와 생산기반이 달라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재지민과 이주민의 문화접변 이후에 변화해 가는 생계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코멘트>

발표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철기사회로 접어들고, 한계문물이 유입되며, 목관묘와 와질토기가 등장하는 때를 청동기시대가 종언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울산지역 역시 청동기시대를 조기/전기/후기(송국리유형)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원형점토대토기단계(철기나 한계문물이 출현하기 이전)는 청동기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림 9>(울산에서 출토된 외래계유물)의 4~7은 모방품이 아니라 모두 반입품이다. 이것들은 모두 달천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그 외 유적에서는 모방품이 대부분이어서 달천유적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을 매개로 한 교역의 흔적으로 볼 수 있으며, 야요이인의 이주로 보기는 어렵다.

[울산대국박물관 학술회의 개최]

- 제1회 유적과 유물로 본 울산의 생산과 유통 2009. 11. 14
- 제2회 자연에서 찾은 이상향 구국문화 2010. 8. 11
- 제3회 기와로 본 울산의 역사와 문화 2015. 8. 21
- 제4회 조선시대~근·현대 언양 지역사회 이해 2016. 11. 26
- 제5회 통일신라시대 울산의 불교 미술과 사상 2017. 12. 1
- 제6회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 10. 12